Road to Sustainability

2024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HYUNDAI

Contents

Introduction

1.1	**CEO Message**	**03**
1.2	**Company Overview**	**04**
1.3	**Global Network**	**05**
1.4	**Business Performance**	**06**
1.5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경영 방향**	**08**
1.6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09**
1.7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10**
1.8	**이해관계자 참여**	**12**
1.9	**중대성 평가**	**14**

Environmental

2.1	**환경경영**	**19**
2.1.1	환경경영 체계	19
2.2	**기후변화 대응**	**21**
2.2.1	거버넌스	21
2.2.2	전략	22
2.2.3	위험관리	36
2.2.4	지표 및 목표	36
2.3	**순환경제 조성**	**39**
2.3.1	생산자 책임 확대	39
2.3.2	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1
2.4	**환경영향 저감**	**42**
2.4.1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42
2.4.2	유해물질 관리 강화	44
2.5	**생물다양성 보호**	**46**
2.5.1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	46

Social

3.1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50**
3.1.1	인권경영 추진	50
3.1.2	전략적 인사관리	54
3.1.3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56
3.2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58**
3.2.1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58
3.2.2	맞춤형 복리후생 지원	62
3.3	**지속가능한 공급망**	**63**
3.3.1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63
3.3.2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66
3.4	**고객경험 혁신**	**71**
3.4.1	제품책임	71
3.4.2	고객만족 극대화	74
3.4.3	지속가능한 브랜드	75
3.5	**공유가치 창출**	**76**
3.5.1	CSV 이니셔티브	76
3.5.2	국내외 CSV 활동	77

Governance

4.1	**이사회 책임 경영**	**81**
4.1.1	이사회 구성	81
4.1.2	이사회 운영	82
4.1.3	이사회 기능	83
4.1.4	이사회 보수 지급	84
4.1.5	이사회 산하 위원회	84
4.2	**주주 친화 경영**	**86**
4.2.1	주주총회	86
4.2.2	주주와의 소통	87
4.2.3	주주환원	87
4.3	**윤리·준법 경영**	**88**
4.3.1	윤리경영 확산	88
4.3.2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89
4.3.3	공정거래 자율준수	89
4.4	**리스크 경영**	**90**
4.4.1	글로벌 리스크 관리체계	90
4.4.2	주요 리스크 현황	92
4.4.3	조세 의무	94
4.4.4	개인정보보호	94
4.4.5	사이버 보안	95

ESG Factbook

5.1	지표 및 데이터	97
5.2	ESG 인증 및 특허 현황	106
5.3	GRI 인덱스	107
5.4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110
5.5	TCFD 인덱스	113
5.6	SASB 인덱스	114
5.7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115
5.8	제3자 검증의견서	117
5.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19
5.10	보고서 개요	124

Interactive PDF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CEO Message

현대자동차에 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현대자동차는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블록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 대비 국내 판매량 10.6%, 해외 판매량 6.2% 증가한 421만 7천여 대를 판매하고, 매출액 162.7조 원, 영업이익 15.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며, 양질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Moody's와 Fitch는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을 'B등급 (Baa1/BBB+)'에서 'A등급 (A3/A-)'으로 상향평가 하였고, 이는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였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점차 높아지는 외부의 ESG경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28% 상승한 27만여 대를 기록하였고, 체코생산법인에 이어 인도네시아 생산법인도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RE100을 달성하는 등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헌장 개정 및 인권실사 확대 등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협력사의 ESG 리스크 식별 및 완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안전보건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건전한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및 역량 구성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주가치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권익을 증진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정치 및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다양한 환경, 인권 관련 규제 등이 가시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ESG 경영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의 시장의 평가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성장의 근간이 되어온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이 가장 큰 경쟁력임을 명심하며 안전 강화 및 품질향상에 집중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 큰 고객 만족과 신뢰감 형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고 현대자동차의 결정과 활동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인권 규범과 원칙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동화, 수소 등 차별화된 기술력에 기반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실천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라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투명경영 실천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변함없이 현대자동차를 격려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보다 건강한 지구 환경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와 이를 통한 유의미한 변화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재훈**

인류를 향한 진보,
멈추지 않는 도전과 변화로
이어갑니다.



Company Overview

현대자동차는 1967년 창립 이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을 목표로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신뢰의 기본인 '품질' 확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동경험을 제공하는 'SMART'를 차별화 가치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목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개요

회사명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설립일	1967년 12월 29일
상장일	1974년 06월 28일
본사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이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업
상장시장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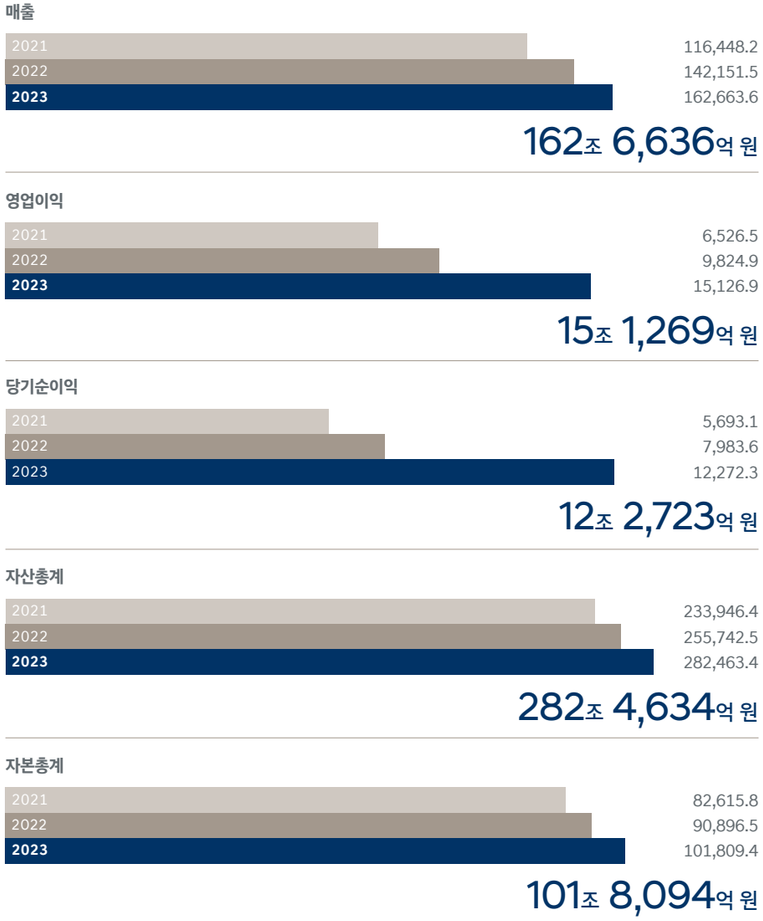
국내		국외	
한국기업평가	AA+	Moody's	A3
나이스신용평가	AA+	S&P	BBB+
한국신용평가	AA+	Fitch	A-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4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재무지표

(단위: 십억 원)



* 2023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글로벌 판매 상위차종

(단위: 대)

투싼



656,867

아반떼



401,894

크레타



327,625

i10



323,657

코나



279,862

* 2023년 12월 31일 기준

Global Network

현대자동차는 해외 주요시장에 생산공장과 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184여 개국에 구축한 6,200여 개의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ia & Pacific

1 현대자동차그룹(중국)유한공사
2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3 중국기술연구소
4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
5 북경경현
6 현대수선중고차
7 글로벌금형법인
8 제네시스중국판매법인
9 일본기술연구소
10 일본판매법인
11 인도권역본부
12 인도기술연구소
13 상용베트남법인
14 아태권역본부
15 인도네시아생산법인
16 인도네시아판매법인
17 HLI Greenpower
18 베트남생산법인
19 오세아니아사업담당
20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21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광저우 유한공사
22 베트남판매법인
23 중국선행디지털연구소
24 중국상용기술연구소
25 태국판매법인
26 필리핀판매법인

Middle East &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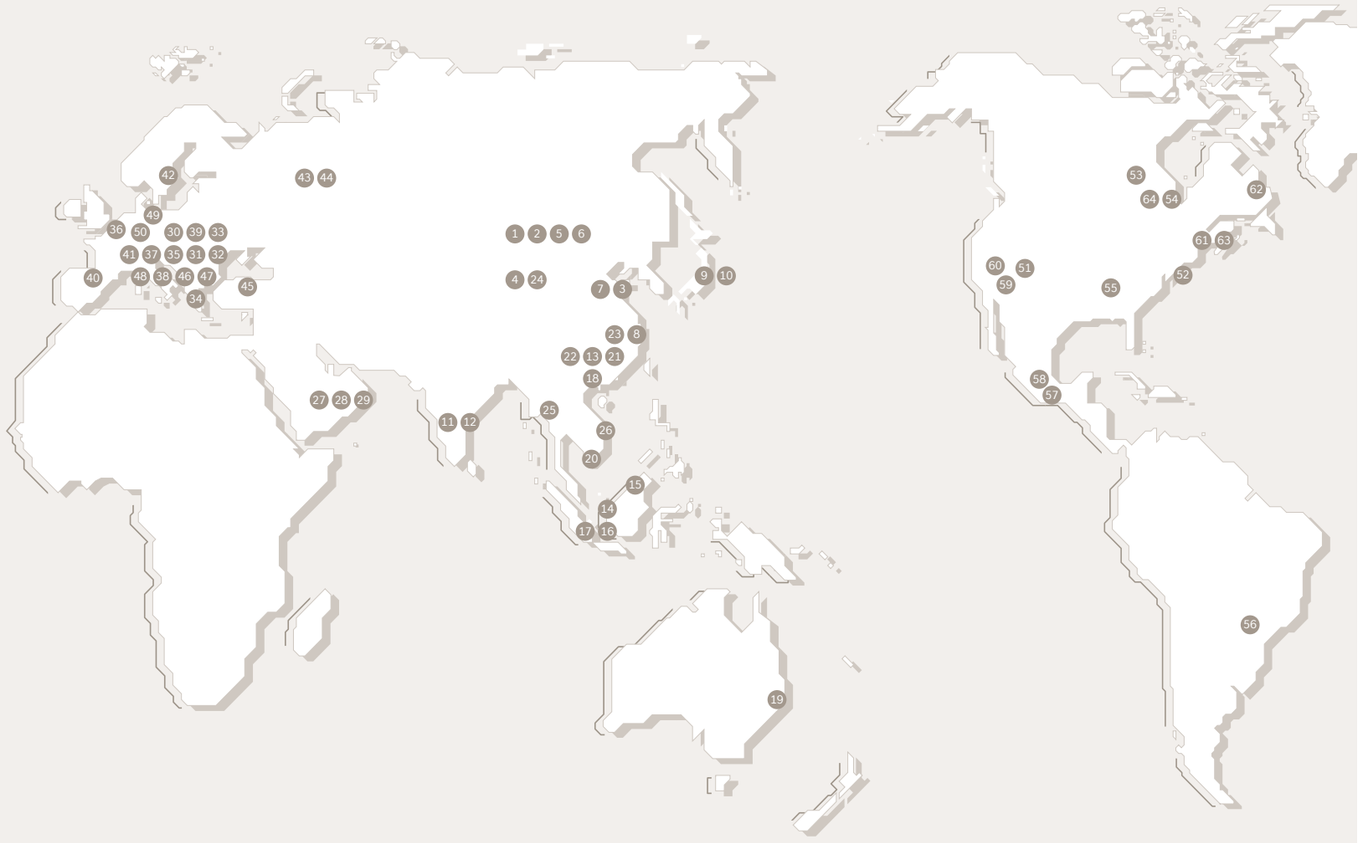
27 아중동권역본부
28 아중동품질센터
29 제네시스아중동(판매)

Europe

30 유럽권역본부
31 체코생산법인
32 체코판매법인
33 현대모터스포츠법인
34 이탈리아판매법인
35 독일판매법인
36 영국판매법인
37 프랑스판매법인
38 유럽기술연구소
39 폴란드판매법인
40 스페인판매법인
41 네덜란드판매법인
42 스웨덴판매법인
43 러시아판매법인
44 상용러시아판매법인
45 튀르키예생산·판매법인
46 제네시스유럽판매법인
47 상용스위스법인
48 유럽품질센터
49 브뤼셀사무소
50 HTWO유럽사무소

North America, Central & South America

51 북미권역본부
52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53 캐나다판매법인
54 미국기술연구소
55 미국생산법인
56 중남미권역본부
57 멕시코판매법인
58 현대트랜스리드 멕시코생산법인
59 현대트랜스리드 미국판매법인
60 미국판매법인
61 모셔널
62 슈퍼널
63 북미품질센터
64 보스턴다이나믹스



* 2024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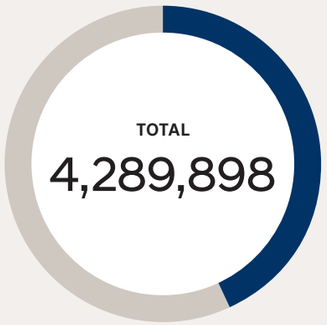
Business Performance

현대자동차는 국내 전국 직영지점, 판매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증진을 위해 고객 최우선 경영 실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개, 현장 맞춤형 판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모빌리티 위주의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소비자 니즈 대응을 위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법인을 통해 거점별 시장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의 지속, 기술력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의 추구, 브랜드 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우량 딜러 중심 판매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 마케팅 및 CSV 활동 강화로 브랜드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판매 현황

(단위: 대)

생산



● 국내 **1,914,433** ● 해외 **2,375,465**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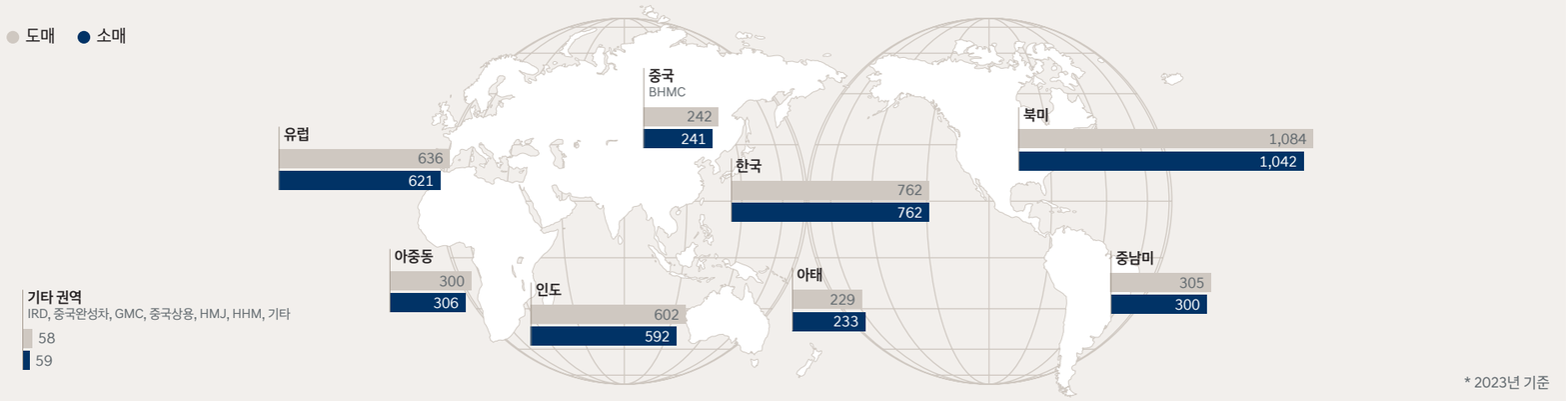


● 국내 **762,077** ● 해외 **3,454,821**

* 도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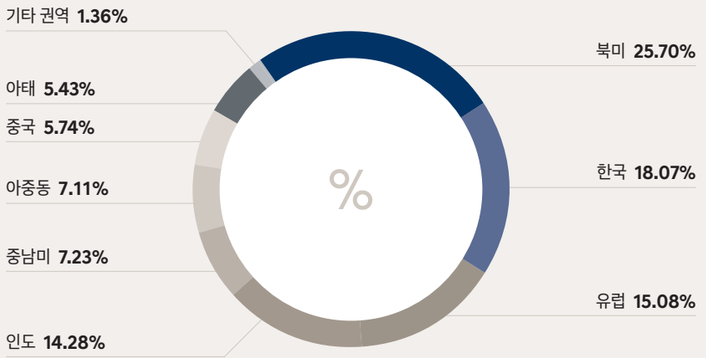
주요 시장별 판매

(단위: 천 대)



* 2023년 기준

주요 시장별 판매 구성비



* 2023년 도매 기준

친환경 차량 판매실적

(단위: 대)

총 판매량

EV, HEV, PHEV, FCEV
695,382

국내·해외 판매량

국내
204,656

해외
490,726

모델별 판매량

EV
268,785

HEV, PHEV
421,549

FCEV
5,048

* 2023년 도매 기준

Business Performance

주요 시장 영업의 개황

한국 시장

시장 여건

한국 시장은 2021년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2020년 대비 8.4% 감소한 173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공급망 불안 문제가 지속되면서, 2021년 대비 2.3% 감소한 169만 대의 신차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이슈가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대비 2.9% 증가한 175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2023년 현대자동차는 신형 싼타페/그랜저 출시 등을 통한 신차효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6.2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품 개발, 가격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를 꾸준히 주도해왔으며,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선정한 '2023 올해의 차'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43.6%

전체 판매량 (현대자동차) 762,077대

친환경 차량 판매량 (현대자동차) 204,656대

미국 시장

시장 여건

2023년 미국 시장에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구매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산 정상화에 따른 재고 수준 개선 및 양호한 경제 상황 지속 등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2년 대비 12.3% 증가한 1,560.8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영업의 개황

2023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87만대를 판매해 5.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투싼의 연간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어서는 등 탄탄한 SUV 포트폴리오에 힘입어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아이오닉6는 Car and Driver의 2023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고, 2023 World Car Awards에서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3 세계 올해의 전기차',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3개 부문에 선정되며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5.6%

전체 판매량 (현대자동차) 870,370대

친환경 차량 판매량 (현대자동차) 159,549대

* 소매 기준

아시아 시장

시장 여건

2023년 중국 시장에서는 2,193.3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속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전년대비 31.1%)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연간 판매는 2022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인도 시장은 2022년 대비 8.2% 증가한 413.3만 대가 판매되며 역대 최다 판매를 갱신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다양한 신차 출시, 부품 수급 개선으로 인한 공급 확대, SUV 선호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영업의 개황

2023년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24.2만 대(도매 기준)를 판매해 1.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주력 모델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체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인도시장에서는 소형 SUV 엑스터 신차 출시 및 SUV 주요 모델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60.2만 대를 판매하여 14.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되는 인도 시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판매, 서비스, 브랜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중국 1.1% 인도 14.6%

전체 판매량 (현대자동차)

중국 242,000대 인도 602,111대

* 도매 기준

유럽 시장

시장 여건

유럽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생산/판매 차질과 소비심리 악화로 인해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유럽 시장에서는 공급 문제가 완화되면서 전년도 판매 부진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591.6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영업의 개황

2023년 유럽시장에서 현대차는 i20와 투싼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5.8% 증가한 62.1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양하여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 측면에서도 2023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에 제네시스 GV60이 선정되며 보수적인 유럽시장에서도 기술력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3.9%

전체 판매량 (현대자동차) 620,737대

친환경 차량 판매량 (현대자동차) 213,371대

* 소매 기준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경영 방향

현대자동차그룹은 ESG 경영 의지와 중장기 방향성을 담은 그룹 사회책임 메시지인 '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를 통해 인류와 환경,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의무이자, 지구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두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그룹 사회책임메시지는 이를 위해 '올바른(Right)' 실천으로 올바른 '변화(Move)'를 이끌어 가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내외 ESG 요구사항과 주요 어젠다별 핵심 관리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Move for Our Planet, People, Community'의 3대 중장기 방향성과 15개 중점관리 분야를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5개 중점관리 분야를 기반으로 그룹 공통 관리지표인 'HMG ESG Index'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및 실질적인 ESG 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책임 체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

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

Move for Our Planet

지구환경

우리의 지구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

탄소중립 &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활성화
친환경 제품 & 서비스 개발
친환경 사업장 조성
자연자본 보호

Move for Our People

내부 이해관계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

다양성 & 포용성 증진
인권 보호 & 존중
기업문화 혁신
인재 성장경험 확장
안전보건 내재화

Move for Our Community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를 위한 올바른 변화

사회공헌 임팩트 확산
고객경험 혁신
제품 신뢰성 향상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미래 일자리 창출

Move

창립 이후 줄곧 사람들의 '이동(Move)'을 돕고 세상의 '변화(Movement)'를 만들어 온 현대자동차그룹에게 'Move'는 헤리티지인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입니다.

Right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올바른(Right)'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현대자동차그룹, 'Right'은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철학을 상징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ESG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ESG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분과별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s)에 반영하는 등 각 조직이 주체적으로 ESG 개선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사적인 ESG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중심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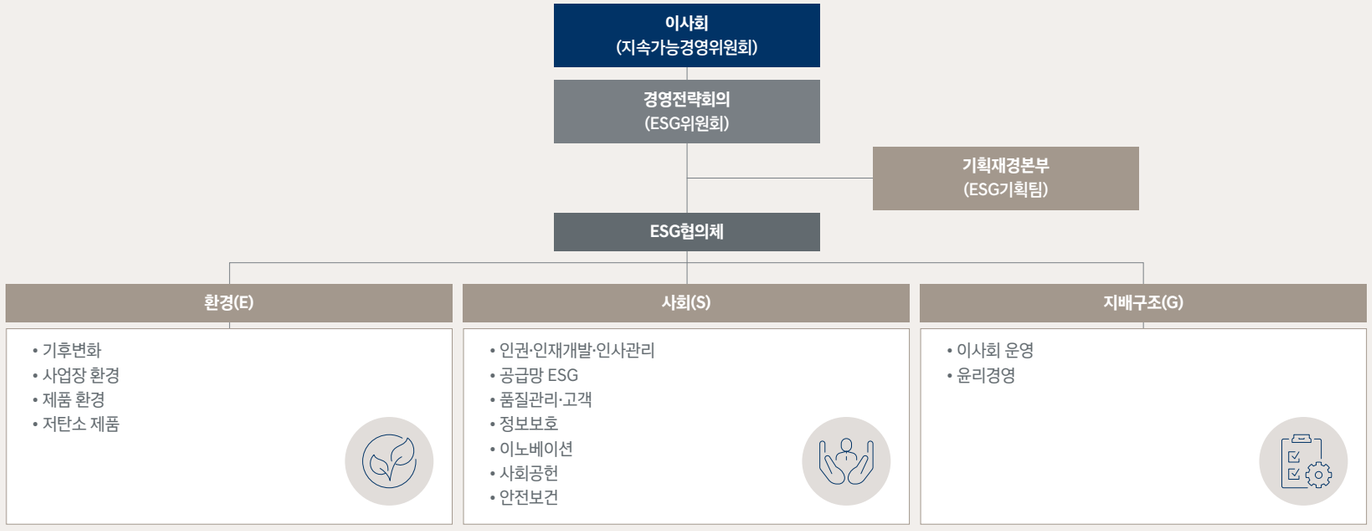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은 'ESG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ESG 중심의 의사결정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 내 소회의체인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리스크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ESG 현안과 관련된 현업부서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ESG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 산하)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총 8명의 이사(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추진과 ESG 성과개선 추진, 주주권익의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며, 전략·활동·성과·목표·계획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과 더불어 공급망 ESG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윤치원 사외이사)는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NDR(기업설명회, Non-Deal Roadshow) 등에 참석하여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ESG 관련 요구사항 및 제언 등은 전사 ESG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ESG위원회 (C-Level)

CEO 및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문별 경영진이 ESG 과제 및 쟁점사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이행 현황 및 주요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자원순환, 인권보호, 공급망 ESG 확산, 사회공헌 등 ESG 분야별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검토하였거나 관리·감독 결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되어 성과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최고의사 결정기구의 심의·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ESG협의체 (실무 Level)

기후변화, 품질안전, 인재개발,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과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ESG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 ESG 추진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고, 리스크 저감 및 성과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현안 및 성과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SG협의체는 분과별 이행 현황 및 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SG 정보공시, 대외평가 대응, 사업 관련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수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ESG기획팀

ESG기획팀은 ESG 경영체계 구축, 조직 내재화, 협력체계 구축, 대외공시 및 소통 등 전사 차원의 ESG 경영 관련 기획·관리·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ESG 관리지표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실 단위 ESG 핵심성과지표(KPIs)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개선 필요 항목을 발굴하여, 실무담당자가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한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반 마련, 대외 ESG 평가기관 대응 등 이해관계자 소통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성과관리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통해 사업적 효과성과 긍정적 사회영향을 창출하고자,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ESG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전략과제별 KPI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분기·반기·연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ESG 전략과제 이행 현황 및 달성성과는 경영진 및 임직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신시장 진출,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 또는 사업 영향력이 높은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형태의 KPI를 발굴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여러 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SG 전담 조직인 ESG기획팀을 중심으로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ESG 진단 및 실사를 시행하였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ESG 관리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판매 및 RE100 달성 사업장, LCA 수행 차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추진, 공급망 지속가능성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관련 정보공시를 강화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

환경(Environmental)

- **친환경 차량 69.5만 대 판매**
  - 2023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6.9만대 기록, 2022년 대비 28% 상승
- **RE100 달성 사업장 확대**
  - 2022년 체코생산법인에 이어, 2023년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완료
  - 글로벌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2022년 대비 69% 상승
- **LCA 수행 차종 확대**
  - 2023년 신규 5개 차종을 포함 누적 총 25개 차종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 수행 완료, 전체 판매 차량의 LCA 수행 비율 40.9% 달성
- **용수 재활용량 전년 대비 15.2% 증가**
  - 2023년 총 2,631,445톤의 용수 재활용, 재활용 비율 23.8% 기록 (2022년 2,284,154톤)

사회(Social)

- **인권헌장 개정 및 인권실사 확대**
  - 인권헌장 개정을 통한 당사 인권경영 강화 의지 표명
    - 아동노동·강제노동 무관용 원칙 강조, 환경권 보장 원칙 신설
  - 인권 리스크 실사 지표 고도화 및 대상 확대
    - 평가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2022) → 100인 이상 사업장(2023)
    - 평가 실시 비율: 100%(2023)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
  - 1차 협력사 대상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수행 및 공급망 매핑(Mapping)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ESG 평가, 해외 공급망 확대 실시 [국내/외 전체 1차 협력사 1,454개사 대상 시행 (국내 372, 해외 1,082)]
- **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을 통한 임직원/협력사 LTIFR(근로손실재해율) 감소**
  - 임직원 LTIFR: 1.94 → 1.89
  - 협력사 LTIFR: 1.53 → 1.05
- **사업장 ESG 진단 및 실사 시행**
  - 사업장 내 ESG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글로벌 선진 ESG 수준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국내/외 주요 58개 사업장 대상 시행 (국내 34, 해외 24)]

지배구조(Governance)

- **이사회 다양성 제고**
  - 전문성(노사·법률)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 외국 국적(글로벌 사업)의 이사 추가 선임
-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공시**
  -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별 역량과 다양성을 표 형태로 공시
- **ESG 거버넌스 강화 (이사회의 ESG 관리·감독 강화)**
  - ESG 안건* 관련, 기존 '보고'에서 '의결(승인)' 형식으로 전환

* 2023년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안] 안건 상정/승인, 2024년 [현대차 ESG 추진방향] 안건 상정/승인

-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업데이트**
  -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임직원 행동지침과 자가점검 리스트를 수록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준법 가이드 자료 제작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현대자동차는 S&P(DJSI), MSCI, Sustainalytics ESG Risk Ratings, 한국ESG기준원, CDP Climate Change & Water Security 등급평가 등 국내외 자본시장의 ESG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SASB Standards, TCFD Recommendation, WEF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등을 기준으로 정보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당사의 ESG 경영 수준을 대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규제기관, 투자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ESG 경영에 요구 또는 기대하는 바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는 ESG 경영활동 및 개선과제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및 이니셔티브 참여

DJSI World Index

S&P Global의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우수한 ESG 경영 수준을 인정받아, 2023년 기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World Index)에 3년 연속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정책 및 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지속가능한 브랜드 등의 지표에서 성과를 창출하여 동종산업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DJSI 월드지수 편입은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에 따라, ESG 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CDP Climate Change & Water Security

2045년 탄소중립 전략 추진, 전동화[1] 라인업 지속 확대,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친환경 제조공정 운영, 국내외 사업장 수처리 설비 고도화 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환경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3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A'를 획득하였으며, 수자원 관리 평가에서는 '리더십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Sector Honors)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료 채취부터 제품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자원 보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최 기간 중 발족식을 개최한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수소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글로벌 CEO 협의체입니다. 현대자동차, 토요타, BMW,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기업 150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2020년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역임하여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글로벌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회원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_2 비즈니스 써밋'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대 민간 수소 협의체인 '코리아 H_2 비즈니스 써밋'에 주축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H_2 비즈니스 써밋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 및 투자기회의 적기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전환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비포함

ESG 평가 결과

DJSI



Sustainalytics

리스크점수 27.3
(Medium Risk)

MSCI

CCC등급

한국ESG기준원

종합등급 A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

CDP
DRIVING SUSTAINABLE ECONOMIES

Hydrogen Council

KOREA H_2 BUSINESS SUMMIT

ESG 소통활동

CEO Investor Day

2023년 6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당사의 새로운 전략인 'Hyundai Motor Way'을 제시하였습니다. Hyundai Motor Way는 현대자동차만의 헤리티지를 통한 혁신으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 전략, 전동화 전략과 미래 사업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 전기차 판매대수 200만대, 전기차 수익성 10%+a를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투자는 전동화 투자 비용 35.8조원을 포함하여 10개년(2023~2032년) 총 109.4조 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 기존 공장 활용 및 전용공장 신설 방식을 통한 전기차 생산방식 추진, 배터리 전 영역 밸류체인 구축 및 설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기차 Top-Tier Leadership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룹사 차원의 수소 툴박스를 통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SDV, 로보틱스, AAM 등 미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당사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기술력을 발전시켜 사람 중심의 혁신을 통해, 당사의 브랜드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를 달성할 것입니다.

ESG Non-Deal Roadshow

2023년 8월, 2분기 실적 NDR과 연계하여 투자자 대상으로 ESG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설명 및 당사에 대한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기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장기 전동화 전환 전략 이행 현황 등의 사업적인 영역부터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사업장 인권 리스크 관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현황 등 ESG 전반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장 인권 문제 관련 회사의 선제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현대자동차는 ESG 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SG Non-Deal Roadshow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산업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고객·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등 7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관심사, 당사에 대한 기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주요 의견은 사업계획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상호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확산 및 채널 최적화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을 통해 접수받은 의견 중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안이거나, 사회·환경적 영향력이 높은 이슈는 ESG위원회(경영전략회의)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산하)로 보고되며, 내부 검토 및 심의결과 중요한 이슈는 사업운영 과정에 적용하거나 개선활동을 추진합니다. 사업운영 과정 적용 여부, 개선활동 추진 현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이행현황 및 경과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의견 수렴	내부보고	개선활동	모니터링
이해관계자별 채널, 방식 최적화	활동 및 안건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영향력 높은 이슈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보고	사업운영 과정 적용, 개선과제 도출	적용 여부, 개선과제 이행 점검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그룹 정의	• 현대자동차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경험하는 이해관계자로, 당사는 고객의 구매·경험 경로를 최적화하고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현대자동차의 제품·서비스와 브랜드 가치·경험을 전달하는 접점으로 당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제품 개발·생산·판매·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현대자동차 소속 구성원으로, 이들의 역량이 곧 당사의 역량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 당사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 이들의 품질과 기술력 및 지속가능성은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지자체는 물론, 당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글로벌 시민을 의미하며, 당사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에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요 채널	• 오프라인 거점 (판매/서비스) • 동호회, 인플루언서 • 대고객 프로모션 (모터쇼, 전시·시승회) • 온라인 (SNS) • 고객만족도 조사 • 공식 홈페이지, App • 스포츠 후원 및 스폰서	• 온라인 딜러 포탈 • 딜러 대회 및 초청 행사 • 정기 딜러 협의회 • 당사 지역관리 담당자의 정기 딜러 방문	• 노사협의회 • 조직문화 진단 및 직원 만족도 조사 • 온·오프라인 고충 접수 채널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각종 간담회, 행사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위원회 • 직무·안전 관련 교육·훈련	• 동반성장포털사이트[1] • 투명구매실천센터 사이트[2] • 상생협력실천센터사이트[3] •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포털)[4] • HMG파트너시스템[5] • 세미나 및 교육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직원 참여 봉사 등) •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소통 활동 • 채용 프로그램 (지역 인재 대상 채용 홍보) • 지역 문화체육예술행사 등 단합행사	• 정책수립 공청회 •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 기업설명회 및 증권사 컨퍼런스 • 주주총회 • Non-Deal Roadshow • IR 미팅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IR 홈페이지 • CEO Investor Day
주요 이슈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제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전동화 시장 선도 • 고객 만족 • 브랜드 이미지	• 차량 Line-Up 확대 • 딜러 마진 및 보상 체계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브랜드 이미지	• 임직원 역량 개발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 조직문화 및 평가·보상 • 노사관계 • 사업장 안전보건	• 공급망 ESG 관리 (평가 및 개선) • 협력사 안전 및 보안 관리 지원 • 협력사 탄소중립 추진 및 동반성장 지원	• 고용 창출 및 유지 •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 사업장 환경 효율성 제고 • 사업활동 관련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 • 관광진흥, 시설물 설치 등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 친환경차 보급 및 차량 안전 강화 • 중소협력사 전동화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이슈 지원 • 로봇, AAM 등 신사업 사업화 지원	• ESG 지배구조 역할 강화 • 중장기 미래사업 전략 • 주주권익 보호 • 글로벌 기업가치 향상 및 펀더멘탈 개선 • 이사회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영향 관리 • 공급망 ESG 관리 • 임직원 다양성 증진 • 사업장 안전보건

[1] 동반성장포탈사이트: 당사의 동반성장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포털사이트 (1차 협력사 대상 공지사항, 동반성장 소식, 교육 및 협력사 채용정보 알림 등)
[2] 투명구매실천센터 사이트: 협력사와의 상호거래에서 투명 경영실천과 상호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및 투명·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3] 상생협력실천센터사이트: 당사의 2·3차 협력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당사가 지원하는 주요 경영지원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안내, 건의사항을 청취 및 피드백 등)
[4]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포털): 협력사 미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자동차그룹 및 1·2차 협력사 대상 교육지원 제공, 세미나 및 신기술 전시회 장소 제공, 협력사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강사 지원 등)
[5] HMG파트너시스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정보공유, 생산·품질·R&D·구매 영역의 협업 업무 지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

BUSINESS CASE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 (Engagement)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 목적

현대자동차 투자자는 당사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기관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이자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전략, 공급망 관리, 근로자 인권, 거버넌스 등 다방면에서 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이자 글로벌 선두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출처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이사회 및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과 ESG 전반에 걸친 성과에 대해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리스크와 성과개선 실적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ESG 및 거버넌스 Non-Deal Roadshow(NDR)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자 면담을 진행하며,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투자자와 회사의 미래 사업전략 방향성과 ESG 관리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당합니다.

주주·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현대자동차 IR(Investor Relations)팀은 NDR, 기업설명회, 증권사 컨퍼런스, 투자자 면담을 통해 당사의 ESG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여 자본시장에서 당사에게 요구하는 ESG 추진방향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NDR	ESG 면담 적극 확대	IR 홈페이지
당사는 2022년 국내 상장사 최초의 글로벌 ESG 단독 NDR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실적 및 재무목표 등을 전달하는 NDR이 아니라 ESG 주제만을 다루는 NDR로 당사의 ESG 개선 실적 및 중장기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시장의 ESG 관심 증가에 따라, 당사의 ESG 현황 및 목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ESG 평가기관,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실적을 포함한 분기 경영실적 자료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I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투자자 기대수준 부합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투자자는 현대자동차의 ESG 개선실적, 단·중·장기 계획, 계획 대비 이행 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여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은 당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 선언한 '2045 탄소중립'과 'RE100' 등의 중장기 목표는 당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이에 대한 단기 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 및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투자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친환경 기술 활용 등 ESG 관련 투자 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이며,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과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당사의 주요 ESG 활동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당사의 대외 평판 관리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채권 발행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있어서 당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과거 재무 성과 비중이 대부분이었던 신용평가사 또한 최근 글로벌 ESG 중요도 확대 트렌드에 발맞춰 고유의 평가 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 외 ESG 신용도 또한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바를 의미합니다.

주주·투자자 신뢰 강화 (Risk Management)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국가에 사업장과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글로벌 전역에 걸친 공급망 관리 또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회임과 동시에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투자자, 주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 발생 시 당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확신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주주서한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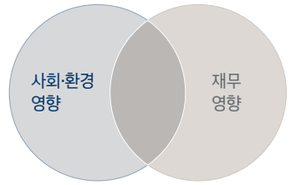
향후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당사의 ESG 개선 실적 및 향후 전략 방향성을 꾸준히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투자자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중대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요 정보 공개를 위하여 매년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Outward Impact)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Risk & Opportunity) 평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올해 평가 결과, 사회·환경 영향 측면 중대주제는 기후변화 완화, 소비자 안전 2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측면 중대 주제는 사회·환경 영향 측면 중대주제 2개를 포함하여 제품 관련 자원순환, 노사관계, 임직원 안전보건, 공급망 노동인권으로 총 6개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개념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프로세스

단계 | 선별 Selection → | 식별 Identification → | 평가 Assessment → |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 Disclosure Determination

선별 Selection

설명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 선별

방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중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분류 기준으로는 GRI, EU CSRD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SG 관련 내부자료, 외부 평가기관 요구사항 등을 활용하였고, 이 단계를 거쳐 27개의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절차

회사 가치사슬별 활동 이해

차량부문	업스트림	광석 채굴,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등
	자체 운영	연구개발, 자동차 제조 등
	다운스트림	자동차 판매, 재활용, 폐차 등

회사 관련 주요 주제 선정

- **Long List**: ESRS 전체 토픽(93)
- **Short List**: 분류 기준에 의해 선별된 토픽 IRO[1] 식별 대상(27)

분류 기준

- 회사 내부 자료
  - 2023년 중대성 평가 결과
  - 내부 경영진 ESG KPI
  - 현대자동차그룹 ESG Index
- 평가기관 지표
  - DJSI, MSCI, Sustainalytics, CDP 등
- 동종기업 벤치마킹
  - 글로벌 완성차 OEM

[1] IRO : 회사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Impact), 이해관계자가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Risk & Opportunity)

식별 Identification

지속가능성 주제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선별된 주제의 영향과 위험/기회를 식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별 특징을 분석하여 관련 활동을 정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환경적 영향을 도출하였습니다. (27개) 또한 국제사회 이슈와 ESG 규제/컴플라이언스 등을 분석하여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25개) 식별 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임직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IRO 식별 예시

가치사슬 주제	기후변화 완화	소비자 안전	노사관계	자원순환
업스트림	Impact & R/O	N/A	N/A	Impact & R/O
자체운영	Impact & R/O	N/A	Impact & R/O	Impact & R/O
다운스트림	Impact & R/O	Impact & R/O	N/A	Impact & R/O

	사회·환경 영향		재무 영향	
	Impact (27)		Risk/Opportunity (25)	
영향분류 유형	부정적	잠재적	위험	단기
	긍정적	실재적	기회	중기/장기
	단기	인권영향 유무		
	중기/장기			

유관부서 대상 설명회 개최, 검토 및 평가 진행

평가 Assessment

지속가능성 주제 평가

식별된 영향과 위험/기회에 대해 점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약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가치사슬 및 ESG 토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평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EU ESRS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영향 관점에서는 규모, 범위, 발생가능성을 정량화하고, 위험 및 기회 관점에서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크기(질적/양적)와 발생가능성을 정량화하였습니다. (1~3점)

사회·환경 영향			재무 영향	
규모	범위		크기 (질적, 양적)	발생 가능성
복구불가능성	발생가능성			

IRO 평가 예시[2]

사회·환경 영향	규모	범위	발생 가능성	복구 불가능성[3]
기후 변화 완화	3	3	3	3
소비자 안전	3	3	2	3

재무 영향	크기 (양적)	크기 (질적)[4]	발생 가능성
기후변화 완화	2	3	3
소비자안전	2	2	2
노사관계	3	3	2
자원순환	2	2	2

최종 평가 점수 도출 과정

ESG 총괄부서 + IRO 유관 부서 + 외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

- 각 주제의 Impact 점수: 규모, 범위, 발생가능성 평균값
- 각 주제의 R/O 점수: 잠재적 재무영향의 크기 (질적, 양적), 발생가능성 평균값

[2] • Scale(규모):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grave)인 정도
• Scope(범위):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이 넓은 정도
•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복구가능한 정도
• Magnitude(크기):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규모
• Likelihood(발생가능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3]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은 부정적 영향인 경우에만 평가

[4] 질적 재무영향 크기 평가 시, 이사회/경영진 보고 여부를 점수에 반영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 Disclosure Determination

중대 주제 우선순위화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반영

정량화된 평가 결과를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요 공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각 주제의 영향력, 위험 및 기회(IROs)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점수의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임계값은 '주제별 평가 점수 평균값의 15% 초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향 측면 2개, 위험 및 기회 측면 6개의 토픽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결과는 경영진 보고를 통해 최종 우선순위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선정된 중대 주제는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ERM)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중대 이슈 리스트 선정

사회·환경 영향

평가대상 (27) → 임계값 적용 → Impact (2)
- 기후변화 완화
- 소비자 안전

재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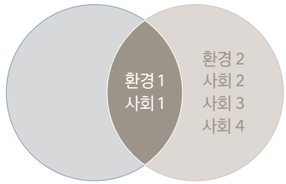
평가대상 (25) → 임계값 적용 → R/O (6)
- 기후변화 완화
- 제품 관련 자원 순환
- 소비자 안전
- 노사관계
- 임직원 안전보건
- 공급망 노동인권

중대성 평가

2024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현대자동차는 이중중대성 평가에서 일정 점수(임계값) 이상을 획득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가 ①사회·환경 영향 관점 중대성과 ②재무적 관점 중대성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임계값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최종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중대 이슈의 평가 점수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결과



영향(Outward Impact)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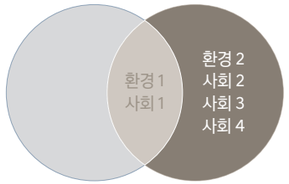
ESG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산출지표	영향 평가				영향 지표
					영향 분류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	평가에 대한 설명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전기차 전환)	다운스트림 (Downstream)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생산	동일 주행거리 기준 내연차량 대비 전동화 차량 탄소배출 저감 정도	긍정적 영향 (Positive Impact)	실재적(Actual)	환경	• **사회적 비용 회피 (Social cost avoided)** - 현대자동차의 2023년 글로벌 EV 판매 차종(대형 상용차종 제외)[1]와 내연기관 차종의 기준거리(200,000km) 주행 시 탄소배출량 비교 결과, 연료생산단계부터 주행 시까지의 탄소배출량 기준[2] 연간 2,959,907tCO$_2$eq의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3].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260,166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60,166백만 원 = (기준거리[4] 주행 시 내연기관 기준차량 대당 탄소배출량 - 기준거리 주행 시 EV 차량 대당 탄소배출량) tCO$_2$eq X (2023년 EV 차량 판매량[5])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6]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자체 운영 (Own Operations)	•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LNG,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 등 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Actual)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 (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는 2023년 2,275,751tCO$_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 부정적 환경영향의 원인이 되며, 현대자동차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200,031백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31백만 원 =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6]
		업스트림 (Upstream)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엔진, 배터리, 모터, 조향/변속 장치, 내장재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LNG,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Actual)	환경	-	-
사회 1	**소비자 안전**	다운스트림 (Downstream)	• 전기차는 제조, 보관 등 취급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배터리를 핵심부품으로 사용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적, 금전적 손실액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잠재적 (Potential)	소비자	잠재 영향이므로 사회적 비용 산출 대상에서 제외	

[1] 2023년 글로벌 EV 판매 차량 중 승용차종만 산정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에 Baseline 차종 부재하므로 제외)
[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 기준으로 Baseline 차종 선정
[3] EV 판매 차종별 트림 중 최대 탄소 감축량 트림 기준
[4] 200,000km
[5] 승용차종 2023년 글로벌 EV 판매량: 267,381대
[6] PwC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방법론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온실가스의 톤당 SCC(Social Cost of Carbon) 평균값은 US$78/tCO$_2$eq로 평가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2024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결과



위험 및 기회 측면

ESG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	재무적 위험 및 기회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		위험 및 기회 분류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전기차 전환)	다운스트림 (Downstream)	• 사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변화 • 기술: Price Parity 달성 속도 등 전동화 전환 기술 발달,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가속화 • 정책: 유럽 내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전기차 확산 정책 및 정부 지원	• 단기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 및 연구개발 비용이 높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 비용	기회	단기-장기 (Short to Long Term)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자체 운영 (Own Operations)	• 기술 및 경제: 재생에너지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전기 생산 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변동 •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관련 규제(국내 배출권 거래제 등), 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저감을 위한 설비/기술 개선 등의 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PPA, REC, 녹색프리미엄 등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환경 보상금, 탄소 배출권 구매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장기 (Short to Long Term)
		업스트림 (Upstream)	• 규제: EU 탄소조정국경세(CBAM)의 원재료 탄소가격 부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 기후 관련 규제	• CBAM 대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재료 구입 비용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투자 및 관련 활동 비용은 IRA 대응을 위한 자본 투자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제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장기 (Short to Long Term)
환경 2	제품 관련 자원 순환	업스트림 (Upstream)	• 사회 및 경제: 차량용 자재 재활용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 기술: 재활용 소재 및 원료의 재생/재이용 개발 기술 발전	•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 차량용 자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적 지출 및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 (Medium Term)
		다운스트림 (Downstream)	• 기술: 폐광물 분리, 정제 등 재활용 기술, 사용주기 확대, 친환경 소재로의 대체 발굴 등 다양한 기술 발전 • 경제: 자동차산업에서 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가속화 • 규제: EU 배터리 Regulation 등 관련 규제	• 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사외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등 관련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터리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환경 보상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중기 (Short to Medium Term)
사회 1	소비자 안전	다운스트림 (Downstream)	• 기술: 기술 결함에 의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로 전기차 확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사회: 자동차 판매 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 리스크, 판매 후 안전 및 품질 이슈/리콜 시 소비 접점인 대리점이 주요 고객경험 형성 지점으로 작용 • 규제: 자동차 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 기술 결함 방지를 위한 배터리 안전 및 품질 제고 비용 및 제품 안전 및 품질 사고 발생 시의 리콜 비용, 소송 비용(패소 시), 그리고 매출 감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이슈 예방을 위한 안전 및 품질 제고 비용, 자발적 리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안전 및 품질 사고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매출 감소 등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장기 (Short to Long Term)
사회 2	노사관계	자체 운영 (Own Operations)	• 사회: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노동3권 보호 및 노사 관련 시민단체의 높은 사회적 관심도	• 노사 관계 갈등 해소를 위한 비용과 갈등에 따른 조업 중단 시 생산성 및 매출 감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 (Medium Term)
사회 3	임직원 안전보건	자체 운영 (Own Operations)	•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적규제 요구	• 근로 감독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부/전면 작업 중지 명령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및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회사 귀책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 비용,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장 및 직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중기 (Short to Medium Term)
사회 4	공급망 노동인권	업스트림 (Upstream)	• 사회: 아동, 강제노동 관련 노동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 • 규제: 아동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아동 노동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장 지침 (ILO Convention No. 182 and Recommendation No. 190, 1999) 등 국제적 규범 존재	• 공급망 내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이행 비용 및 회사 귀책에 따른 인권 침해 발생 시의 소송 비용과 평판 악화로 인한 자본 유입 감소 등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중기 (Short to Medium Term)

중대성 평가

중대 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KPI)

ESG	토픽	비즈니스 전략	2023년 이행 실적	핵심 성과 지표 (KPI)[1]	중장기 목표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전기차 전환)	현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차량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버스와 대형 트럭 같은 상용차는 2028년까지 전 차종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고, 2035년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타 지역까지 100% 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 2023년 전체 전동화 차량 695,382대 판매 • 2023년 전체 전기차 268,785대 판매 • 2023년 수소전기차 5,048대 판매 * 2023년 도매 기준	• 친환경 제품 매출 확대 • 친환경 제품 관련 활동 확산 • 전기차 판매량 및 판매 비중 확대	• LCA 대상 차종 라인업 확대 •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 •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기차 판매 •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기차 판매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2021년 9월 전동화, 수소사회, 스마트시티,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현대자동차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은 원부자재 구매·조달, 차량의 설계·생산·판매, 차량의 사용·폐기·회수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가치사슬 외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활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및 로드맵 구축 •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로드맵 및 협력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 2023년 인도네시아 공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2025년까지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 공장 RE100 달성 • 2027년까지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공장 RE100 달성 • 2045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 4	**공급망 노동인권**	현대자동차는 2021년 발생한 북미 아동노동 이슈 등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를 중대한 관리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23년에는 강제노동 리스크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서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공급망에 대한 현장실사를 확대하는 등 해외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 협력사 1,082개사 ESG 리스크 서면진단 실시 • 1차 협력사 대상 외부 DB 기반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실시 • 강제노동 관련 협력사 행동규범, 계약서 및 견적요청서 보완 • '강제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협력사 ESG 점검률/실사율 • 협력사 리스크 개선조치율 • 협력사 ESG 수준 관리	• 국내외 전체 1차 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진단 시행 • 중점관리 협력사 서면진단율 100% 달성 • 고위험 협력사 ESG 현장실사율 100% 달성 • 2025년까지 전체 1차사/2차사 대상 안전설비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1] KPI는 CEO, CFO 등 C-Level 임원 보상 연계



Environmental

지구 환경은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전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바탕의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구의 푸른 빛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 환경경영
2.2 기후변화 대응
2.3 순환경제 조성
2.4 환경영향 저감
2.5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경영

현대자동차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참여하는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정책에 의거하여 전사 차원에서 환경경영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을 통해 자연과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공장은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ISO 인증 심사와 함께 매년 본사 차원의 사업장 대상 자체 환경 평가, 실사 등을 통해 영향, 리스크 등을 사전 식별하고 있으며 부정적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의 경우 개선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전 완화/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환경 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 거버넌스

이사회 역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경영 추진 성과,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개선활동 등을 상시 보고받으며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과제를 10월에 개최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용수 및 폐기물 실적 개선을 위해 용수 및 폐기물 전사 개선 목표 수립을 위한 사업장 환경 중점 추진과제를 2023년 ESG 추진방향에 포함해서 3월에 열린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경영진 역할 대표이사(CEO)가 참여하는 경영전략위원회(경영전략회의 개최)에서는 전기차 확대 전략,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전사 주요 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이행 현황 점검, 개선 성과 검토,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그 밖의 환경경영 확산·전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 등 경영진이 보고받은 사항 중 사업전략 추진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관련 이슈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장의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여 환경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담조직 역할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CEO와 CSO 책임 하에 전사 총괄 조직 및 사업장별 운영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사 총괄 조직 현대자동차 본사 총괄 조직은 국내외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이행 및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 환경경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사고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환경 관리 KPI(성과지표) 기획 운영, 환경 규제 개선 대응, 환경 투자/문화/기술/교육 총괄에 대한 기획 및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환경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경영 체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조직 사업장별 관리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장 환경효율성 제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설비 운영, 정책 시행, 환경 리스크 파악 및 개선, 환경경영 확산/전파, 환경 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개발 조직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R&D센터)를 중심으로 전동화 차량 개발을 통한 차량의 탄소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제품 환경평가(LCA) 수행,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유해물질 함유 대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개발 등 다양한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저탄소 제품 개발 등의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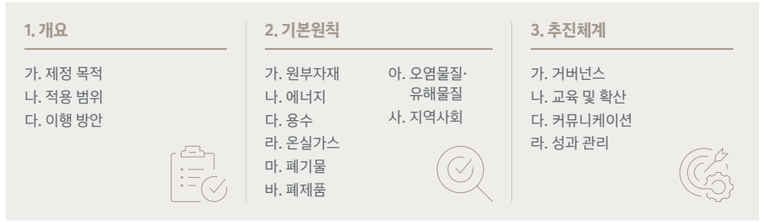
환경경영 이행

환경경영 정책 현대자동차는 환경을 기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대내외 환경 규제와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2022년 최신 개정). 본 방침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현대자동차가 환경친화적 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항목을 포함합니다. 중점 관리 항목에는 기후변화 대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자본 보존,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활동이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본 정책을 통해 해당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모든 자회사, 사업 단위는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 전반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모든 협력사, 계약 파트너 등 공급망이 환경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본 환경경영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제를 본 정책에 앞서 우선 준수하며, 현지 국가의 법·규제가 다루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책에 따라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규제의 제·개정, 대외 시장환경 및 기업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환경경영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이행 방안 현대자동차의 환경경영은 1) 법령 및 규제 등 준수, 2) 환경경영 정책 선언, 3)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규정 도입, 4) 환경 성과 및 데이터 점검, 5) 리스크 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6)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활동 등 'Plan-Do-Check-Action'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정책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현대자동차의 국내 모든 사업장과 해외 생산공장은 ISO 14001 등 국제표준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경우, ISO 14001 통합인증을 통해 전사적으로 일원화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환경경영 수준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 취득 사업장은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 심사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기반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별도로 내부심사원이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며, 외부 전문기관(TÜV NORD 등) 등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장 대상 환경경영 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사고 및 규제 대응 체계 현대자동차는 국제 안전·보건·환경(SH&E) 표준에 의거하여, 대기·수질·폐기물 및 화학물질 유출 등과 같은 환경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사 및 각 사업장은 비상상황 대응 조직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임직원에게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사고에 대한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대응훈련을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 사례를 유추하고, 이를 통해 현업 부서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 부품사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경영자총협회, 환경 자문위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기아 환경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사별, 사업장별 환경 담당자들이 환경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투자 계획 및 이행 현대자동차는 중장기 전동화 전략 달성을 위해 2032년까지 총 109.4조 원(R&D 47.4조 원, 설비투자 47.1조 원, 전략투자 14.9조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국내 전기차 전용 생산시설 구축,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후방 전기차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4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3년 환경투자 예산은 7,164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8,611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에는 2023년 4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사업장 환경설비 투자는 집계실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환경경영

환경경영 성과 관리

환경경영 목표 관리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 추진 체계를 통해 탄소 배출과 같이 사업 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중장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과 목표는 배출 및 사용 데이터 전망치(Business As Usual)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상황, 정부 정책방향, 내부 사업전략을 고려해 설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 조달, 생산,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전환 전략, 사업장 RE100 추진, 공급망 탄소 배출 감축 등의 전략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제외한 환경 지표들의 정량적 개선을 위해 용수와 폐기물의 경우 COVID-19 이후 증가하는 생산량과 연동해서 증가하는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의 상승분을 억제하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허용기준치 보다 엄격하게 사업장별 오염물질(대기: 먼지, NOx, SOx, THC / 수질: TOC, TP, BOD, SS)을 관리하고 있으며, 3개년 평균 오염물질 배출실적 대비 5% 이내 상한선을 설정하여 상한선 내 사업장별 자체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성과 평가 사업장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공정 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 활동, 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내부 목표를 사업장 KPI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의 경우 월별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량 목표 대비 실적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품 부문에서는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 또는 CO_2 배출량, 전동화 판매 목표 달성률 등을 KPI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 및 기회요인과 재무 영향 매년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오염물질, 용수 및 해양자원 사용,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영향,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중대한 이슈들에 대한 중장기 재무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차원의 사업장 현대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 (HEAT), 사업장 및 공급망 ESG 진단 실사 체계를 통해 국내외 사업장과 공급망 내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리스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층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점검/평가결과 기반해서 법규 위반사항, 내부 기준 대비 미흡사항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커뮤니케이션

환경경영 인식 개선 교육 현대자동차는 환경 관련 법·규제 요구사항, 전사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 환경경영 활동 우수사례 및 주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관련기업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환경 교육 과정을 최신화하고, 환경 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담당자의 글로벌 ESG 대응을 위해 해외 포럼 및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 실무 직무역량 향상과 법적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 환경기술인 ISO 심사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40,524명의 임직원이 환경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임직원이 이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총 운영시간은 75,711시간입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대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ESG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 필요성 및 협력사의 역할을 전달하고 있으며, 별도 집체과정, 세미나를 운영하여 환경 관련 심층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2023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이슈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ESG NDR(Non-Deal Roadshow) 시행을 통해 환경 이슈를 포함한 ESG 이슈들에 대한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등) 및 환경단체(Healthy Seas,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된 당사의 의견 개진과 환경보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 운영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환경 관련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고충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등 법·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고충은 법무실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고충은 각 사업장별 환경관련 전담조직 및 대표 고충처리 채널(ESG@hyundai.com)로 접수 가능합니다.

환경경영 목표 및 이행 현황

분야	중장기 목표	2023년 이행 현황
전기차 전환	2026년 94만대, 2030년 200만대 판매	• 2023년 전체 친환경 차량 695,382대 판매 • 2023년 전체 전기차 268,785대 판매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기차 판매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기차 판매	
수소사업 시너지 창출	수소 모빌리티 판매 확대	• 2023년 수소전기차 5,048대 판매
	그린수소 생성 및 보급	• H2Pro사와 고효율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협업 • NextHydrogen사와 그린수소 수전해 시스템 개발 협업
사업장 탄소중립 추진	2045년 RE100 달성	• 2023년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12.7% (체코생산법인, 인도네시아생산법인 100%, 튀르키예생산법인 68% 사용)
공급망 탄소중립 추진	2045년 탄소중립 유도	• CDP Supply Chain 참여 및 협력사 대상 관련 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협력사 대상 부품 LCA 산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탄소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구매 지원

용수 관련 기회/리스크 요인 분석 및 재무 영향

구분	주요 내용	재무적 영향	세부 대응전략
리스크 요인 (물리적 리스크)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현상 심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인도,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중동 및 서아시아 지역의 17개국의 수자원이 모두 고갈될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냉각공정, 세척공정, 도정공정 등에서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차질 및 중단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 물리 환경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을 분석했으며 최악의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 중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용수 스트레스 위험 수치가 높아 물 부족으로 인한 중대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은 인도생산법인을 대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의 생산 중단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생산차량은 인도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표 차량인 '베뉴'로 선정하고, 2023년 판매량(555,178대)과 차량가격(21,700,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받을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은 1,204,736,26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재무 영향 산출근거 2023년 인도 판매대수 555,178대 x 피해량(10%) x 차량가격(21,700,000원) = 1,204,736,260,000원	인도공장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 기반 용수를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법인이 위치한 첸나이 지역의 물 부족 리스크 대응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저장량을 확대하기 위해 총 6개 저수지를 운영 중이며 총 335,000톤의 용수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수로 통합 연결, 초대형 펌프 설치 등 우천 시 강수량의 집수/포집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기회 요인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생산을 위해 냉각, 세척, 도장 공정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 총 15개의 생산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정 내에서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감축하기 위해 용수 절감은 물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3년 기준 총 2,631,445톤의 용수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용수 재활용으로 1,968,320,860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셈입니다. * 재무 영향 산출근거 2023년 총 용수 재활용량(2,631,445톤) × 수도요금(톤당 748원, 2023년 대한민국 기준) = 1,968,320,860원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한 아산공장과 인도공장의 경우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량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도장부스의 세정식 집진기 순환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송배관을 포함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주요 사업장별로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용수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법·규제 변화 등으로 인한 거시적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요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 및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역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및 '환경경영 정책' 3. 추진체계에서 명시된 위임권한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마다 논의하며, 탄소감축, 기후변화 대응, 제품 전과정 친환경, 공급망 ESG 관리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적 계획, 개선 추진활동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감독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경영전략회의 내 소회의체(CEO 주관 본부장급)로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분야별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 활동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검토하였거나 관리·감독한 결과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되어 성과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심의·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상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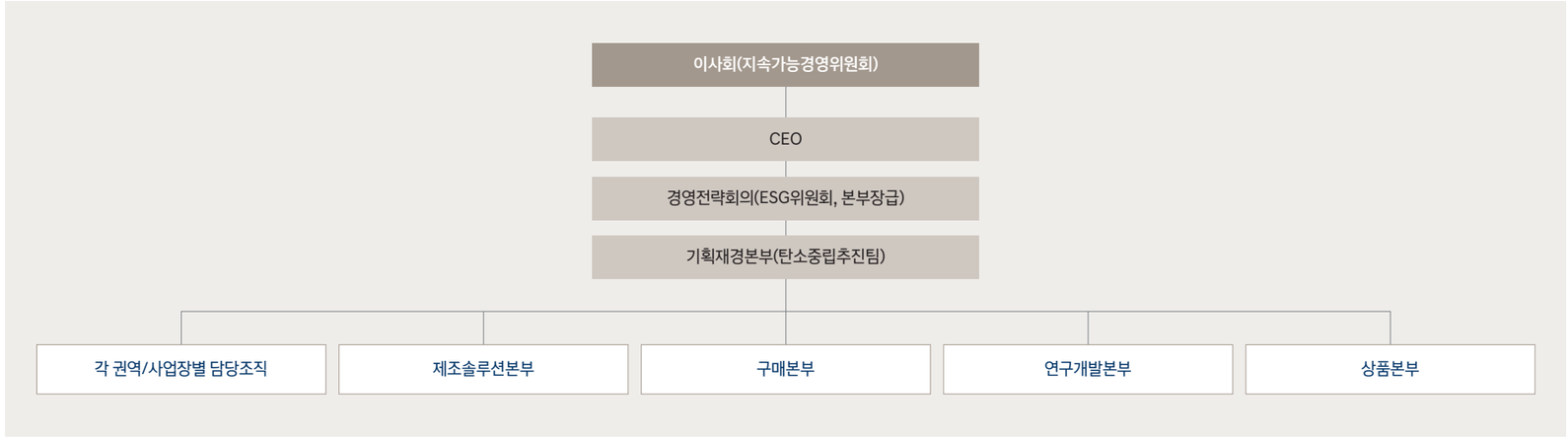
협의체 및 전담조직 역할

탄소중립 협의체 운영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사 기획조직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사 기획재경본부 내 전담조직인 탄소중립추진팀을 2021년 신설하였고, 유관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사업장,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2023년 이사회 교육 현황



2023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점을 고려한 주요 안건

일자	구분	주요 의안 내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고려 사항
03.23	보고	2023년 ESG 추진 방향	탄소중립 투자기준 수립,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 CDP Supply Chain 이니셔티브 참여 등
10.24	승인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 승인의 건	국내 사업장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탄소 상쇄 조기 대응 등
10.24	보고	수소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추진 현황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 사업에서의 기회 요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위험 및 기회와 영향

유형			위험 및 기회 요인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영향 예상
전환	위험	현재 규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및 탄소 가격 상승 • 국가 단위의 넷제로 목표 보유 • 넷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 기관 투자 및 금융 지원	☑ 단기 ☑ 중기 ☑ 장기
		신규 규제		• EU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행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 단기 ☑ 중기 ☑ 장기
		기술	친환경차 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 기술 변화 선도 실패 시 시장 점유율 하락	☑ 단기 ☑ 중기 ☑ 장기
		법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규제 강화	• 규제치 미준수로 벌금 부과 시 대응 비용 증가 • 연비 관련 소송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투자철회 및 고객 이탈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 EV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한계로 원료(리튬, 코발트, 니켈) 조달 비용 상승 • FCEV 수익성 미확보 시 매출 하락	☑ 단기 ☑ 중기 ☑ 장기
		평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강화	• 기후변화 정보 공개 및 대응 미비 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투자 철회 및 고객 이탈	☑ 단기 ☑ 중기 ☑ 장기
	기회	제품 및 서비스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	• 전기차 시장 확대로 EV 판매 증가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확산	• 기술 혁신에 의한 전기차의 Price Parity 달성 가속화로 전기차 시장 확대 • 기후테크 R&D로 수소 시장 활성화 • AI 등을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의한 전동화 가속화	☐ 단기 ☑ 중기 ☑ 장기
		에너지원		•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저감	☐ 단기 ☑ 중기 ☑ 장기
		자원효율성		• 자재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 확대	☐ 단기 ☑ 중기 ☑ 장기
물리	급성 위험		강풍, 산불, 침수, 우박/뇌우, 폭우	• 기후재해에 의한 자산가치(건물, 설비, 재고) 손상 및 매출 감소(생산중단)	☑ 단기 ☑ 중기 ☑ 장기
	만성 위험		폭염, 가뭄, 한파	• 만성적 기후 패턴 변화에 의한 생산성 감소로 매출 감소	☐ 단기 ☑ 중기 ☑ 장기

기후 위험 및 기회 관리 적용 기간 및 범위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적용 범위
☑ 단기(0-3년)	☑ 사업장: 글로벌 전 사업장 (신규 사업장 포함, 설비 예상 수명 고려)
☑ 중기(3-10년)	☑ 업스트림: 공급망, 자본재, 업스트림 유통망
☑ 장기(10-25년)	☑ 다운스트림: 운송, 사용(고객), 폐기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의사결정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중대 위험 및 기회	직간접 완화 및 적응 방안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1 사업장 공정 및 설비 변경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설비 도입
	시설 재배치	IRA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 조지아 공장 신설
	4 제품 사양 변경	EU Fit-for-55 및 북미 GHG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연비 개선 및 전동화 전환
	5 전과정 평가(LCA)	Full-LCA 방식 전과정 평가 수행
	6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IRA, CBAM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요구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	공정 및 설비 변경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시설 재배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조지아 공장 신설,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3 제품 사양 변경	전기차 충전속도 향상 및 생산단가 절감 등 R&D 확대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 용량 개선 등 공급망 R&D 확대 요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2 재생에너지 전환	태양광 인프라 구축, 전기공급계약 등을 통한 RE100 이행
	제품 사양 변경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및 전기차 충전시간, 항속거리 개선을 위한 R&D 확대
	6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저탄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7 사회적 탄소 감축	현대자동차그룹 주관 대기중 탄소 포집 및 활용 산학 연구 진행, 블루카본 프로젝트 수행

1 사업장 공정 및 설비 변경

에너지 효율화 현대자동차는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개선 기회를 식별하여 도출된 방안을 실천합니다. 에너지 진단 및 감사를 통해 개선 테마를 식별하고 각 공정·설비 특성을 분석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및 고장률과 노후도에 따른 손실 발생 정도, 투자금액 대비 예상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에너지 다소비 및 우선 개선 영역을 결정합니다. 개선 영역 파악 후, 고효율 모터 및 인버터 적용, 전력회생장치, 저온경화 도료개발, 폐열 회수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솔루션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112억 원 투자를 통해 전기 250,412MWh 및 LNG 48,880천Nm^3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투자 완료 후에는 전후 성과를 비교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절감 진행상황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사업장별로 임직원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 기술 및 설비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냉난방 기준 및 에너지 낭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제조 공정 중 가장 많은 약 43%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장 공정에서 고온 환경 조건을 완화해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저온 경화 도장 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40°C에서 20분 동안 이뤄지던 상도 경화 공정을 90°C에서 20분 동안 진행하면서도 동일한 도장 품질을 유지하는 도료 기술로서 약 40%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튀르키예생산법인이 저온 경화 도장 공법 적용을 위해 1.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 공법을 모든 글로벌 제조 공장에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LNG 사용량 6,161,000Nm^3 절감 및 온실가스 14,000tCO_2-eq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현황

연구시설 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환수된 폐열과 스팀을 보일러에 재사용하고,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고효율 조명 도입, 절전시스템 가동, 보일러 스케일 제거, 수축열 변압기의 효율적 운전 등 전력과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연간 온실가스 약 8,138tCO_2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울산공장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1% 절감을 목표로 하여, 에너지 고효율 펌프 교체, 엔진공장의 모터 절전회로 구성 및 인버터 적용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전착오븐 예열존 연장을 통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설비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엔진 가공장비 초절전 회로를 구축하여 350여대 가공장비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생산설비뿐 아니라 직원 복지시설에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하고 가동시간을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식별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전주공장은 도장공정 부스 통합 운영, 엔진공장 절전회로 구성 등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효율 냉난방기와 프리미엄 전동기 설치 등 설비의 고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서비스사업부 서비스센터 현장과 사무실 LED 조명 교체 및 급탕 보일러 온도 재설정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 대상 캠페인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코생산법인 사업장 내 에너지 CFT(Cross Functional Team)를 운영하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장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대로 Eco Smart VEC(Vapour Emission Control) 시스템을 적용하고 압축공기 공급 조절, LED 조명 교체 등을 시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생산법인 도장공장 천연가스 사용량 절감을 위해 2023년에 RTO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을 12.2% 절감함으로써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비생산시간의 에너지 낭비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과다 소모 설비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조명, 스팀, 컴프레셔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도장 오븐 온도를 통제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생산법인 에어 컴프레셔 가동률을 평일·주말 운영 시간에 맞춰 조정하여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주간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량이 약 611MWh 감소했고, 총 268tCO_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②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이행 계획 현대자동차는 주요 그룹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와 함께 2021년 전기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을 선언하였고, 2022년 4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E100의 글로벌 목표인 2050년보다 앞선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수급 환경과 정부 정책 및 규제, 그리고 공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2045년까지 주요 사업장에 생산공장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공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204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것이며 북·중미, 유럽, 인도 지역의 모든 사업장은 2025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체코생산법인 체코생산법인은 2022년 재생에너지 원산지 보증 GO(Guarantee of Origin)를 통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습니다.

튀르키예생산법인 2025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를 통해 전체 전기에너지 중 약 68%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생산법인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전기 사용량의 약 35%를 친환경 에너지원 구매(PPA)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약 24%를 REC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6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일부 자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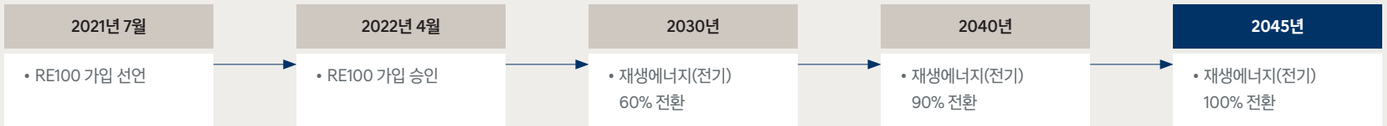
브라질생산법인 브라질생산법인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약 41%를 REC로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 PPA와 지역 발전 투자 및 자가 발전을 추진하여 2030년 RE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2023년부터 REC 선도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여 100% 재생에너지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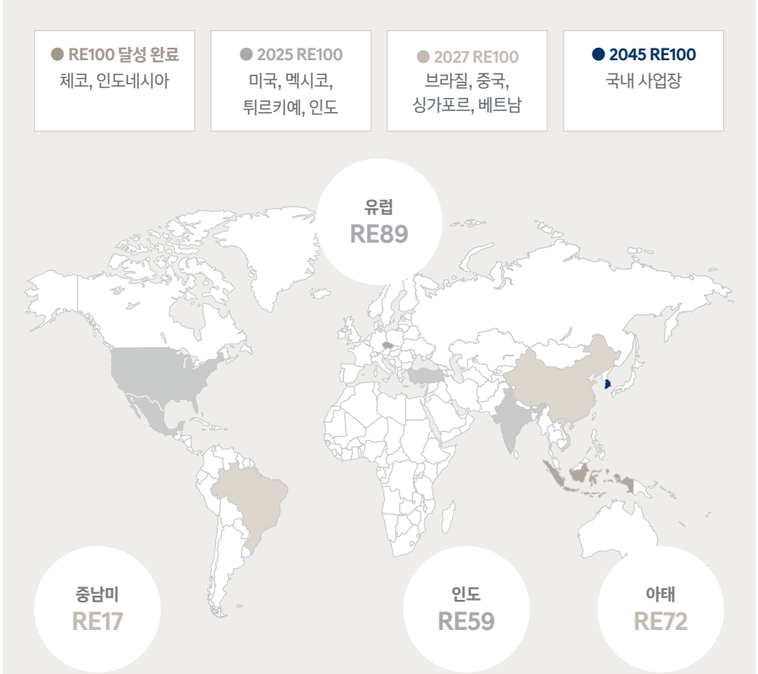
국내 공장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의 사업장 부지 내 임직원 주차장, 치장장 및 공장지붕 등에 약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4년 내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구시설 연구시설은 60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RE100 이행 로드맵



2023년 RE100 추진 현황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	이행수단별 비율			
			자가 발전	On-site PPA	Off-site PPA	REC 구매
유럽	체코생산법인	100%	-	-	-	100%
	튀르키예생산법인	68%	-	-	-	68%
인도	인도생산법인	59%	-	4%	31%	24%
중남미	브라질생산법인	41%	-	-	-	41%
아태	인도네시아생산법인	100%	4%	-	-	96%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9%	-	9%	-	-

기후변화 대응

③ 전동화 전환

전동화 전환 방향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판매 차량의 탄소감축 및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운행 중의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Electronic-Global Modular Platform) 등 전기차 특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승용차·상용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성능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및 수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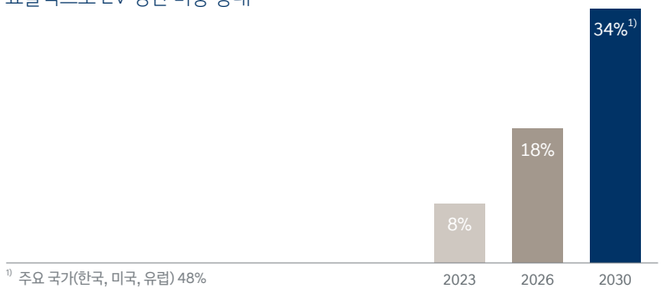
2030년 중장기 전동화 전략 2030년 전동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집중 지역 내 생산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배터리 모듈화 등을 포함한 배터리 종합 전략 추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기차 상품성 강화 등의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생산 비중은 2023년 8%에서 2030년 34%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국내 중심의 생산에서 점차 라인 전환과 신공장 설립의 투 트랙 방식을 통한 지역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기술 경쟁력 확보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 확보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조달, 개발, 모듈화 등 3가지 전략을 종합한 '배터리 종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에 필요한 대규모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Top-tier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생산지역의 배터리 현지 조달을 추진하고자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개선 극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개발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현대자동차의 E-GMP는 배터리, 모터 및 전력 전기 시스템을 포함한 차량의 섀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장 가능한 휠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입니다. 또한, 2025년 승용 전용 전기차 플랫폼 'eM'과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용 전기차 플랫폼 'eS'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eM 플랫폼은 E-GMP 대비 공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 특징으로, 모든 세그먼트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eS는 유연한 구조로 개발되어 배달·배송(Delivery)와 차량호출(Car Hailing) 등 B2B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배터리 용량 40% 증대, 모터 출력 28% 개발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배터리 용량 증대에 따른 급속 충전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속 충전시간도 현재 대비 50% 수준의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서는 기존의 전 지역 최고 충돌안전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배터리 화재 시 화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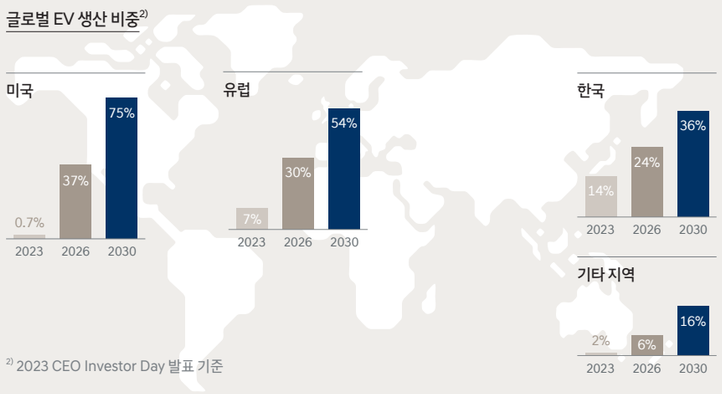
전기차 생산 전환

지역별 라인 전환 및 공장 시설 통해
효율적으로 EV 생산 비중 증대



[1)] 주요 국가(한국, 미국, 유럽) 48%

글로벌 EV 생산 비중[2)]



[2)] 2023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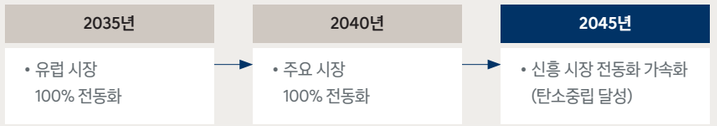
전기차 핵심부품 표준화 및 모듈화 현대자동차는 차급별 배터리 수요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터리시스템을 총 9종으로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셀-모듈-팩 단계로 구성된 '셀투모듈(Cell-to-Module)' 배터리 공정을 2025년 모듈 비중이 제외된 '셀투팩(Cell-to-Pack)' 방식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밀도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초고속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 'E-pit'을 론칭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운영 개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업체인 아이오니티(IONITY)에 전략투자하여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Shell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편의성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E-pit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충전속도를 제공하며, 고출력 충전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최고 18분 이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기준,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350kW 초급속 충전 기준) 또한, E-pit 이용 고객에게는 예상 충전시간 및 순번을 안내하는 '디지털 큐', 자동으로 회원 인증과 충전, 결제를 진행하는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 타 충전망에서도 회원 인증 및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월렛', 비어있는 충전소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경로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 H무빙 스테이션 'H 무빙 스테이션(H Moving Station)'은 수소 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나 충전소가 고장난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충전소 (트럭)입니다. 충전소 1대당 80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350bar의 충전 압력으로 하루 최대 25대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충전 압력 수치는 국제 표준 충전 프로토콜(SAE J2601)에 따른 것이며, 이동형 설비에 대한 내구도와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와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년 전동화 전환 로드맵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차 확대

전기차(EV) 현대자동차는 2016년 친환경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소형 SUV 전기차 코나EV를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E-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하였으며, 2021년 아이오닉 5에 이어 2022년 아이오닉 6를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27만 대로서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물류 특화 모델인 카고와 카고 냉동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아이오닉, 아반떼, 코나, 쏘나타, 투싼, 싼타페, 그랜저 등 대형 SUV와 소형 세단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쏘나타, 투싼, 싼타페 차종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7.4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4.8만 대로서 지난해 대비 각 56.3%, 1.0%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2030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91만 대로 확대하여 전체 판매량의 16%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FCEV) 현대자동차가 2018년 출시한 넥쏘는 최대 항속거리 611km(미국 인증), 충전 소요시간 약 5분(1회당 6.33kg 충전)의 성능을 가진 대표적 수소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리더십을 확장하여 수소전기 버스인 일렉시티 수소전기 버스, 수소전기 대형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하는 등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약 5천 대입니다.

기타 대체연료 차량 현대자동차는 바이오에탄올과 CNG(압축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지역특화 대체연료 모델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바이오에탄올 수요에 맞추어 혼합연료차 HB20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CNG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전략 차종인 아우라의 CNG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혼합연료 차량과 LPG 차량 판매 비중을 각각 5.2%,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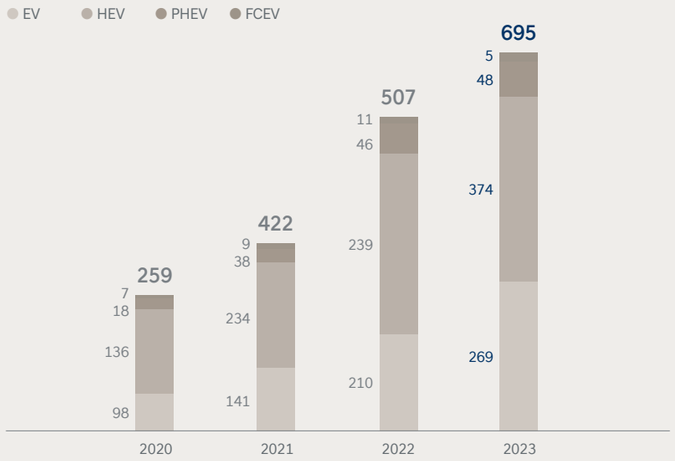
전기차 판매성과 및 확대계획

전기차 판매성과 2023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268,785대로서 전체 차량 판매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판매량 210,352대 대비 약 27.8% 성장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등이 전기차 판매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전기차 판매목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시장 예측 대비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22 CEO Investor Day에서 발표한 2030년 187만 대 목표를 200만 대로 상향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판매목표도 상향하였으며, 시장 수요에 따라 판매목표 또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차종 확대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와 GV60를 2021년, 아이오닉 6를 2022년 출시한 데 이어 아이오닉 7을 2024년 출시할 예정입니다. E-GMP를 계승 발전시킨 차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의 경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차종(현대자동차 4차종, 제네시스 5차종)을 출시하여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 친환경차 판매량 (단위: 천 대)



기타 대체연료 차량 판매량 (단위: 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바이오연료 모델	152,977	186,573	195,485	191,348
CNG 모델	1,352	1,489	1,581	1,180
LPG 모델	53,953	48,851	42,803	41,495
합계	**208,282**	**236,913**	**239,869**	**234,023**

2030 전기차 판매 목표[1] (단위: 만 대)

	2023	2026	2030
한국	10	15	24
유럽	10	30	51
미국	7	23	66
기타	6	26	59
	33만 대 (전체 판매차량 8%)	94만 대 (전체 판매차량 18%)	200만 대 (전체 판매차량 34%)

[1] 2023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배터리 효율 개선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에서 낭비되는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는 '열 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난방 시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사열을 기반으로 발열체의 온도를 높이는 '복사열 워머' 기술과, 뜨거운 바람이 아닌 발열 유리를 활용하여 자동차 앞 유리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발열 유리 제상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 70~80% 도달 시 최대 25~30만km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객이 연간 2만km 주행 가정 시 12~15년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상환경 조건에서도 최적화된 충전속도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전 시 외부에서 필요한 온도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하는 '외부 열 관리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배터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배터리 예측 기술은 실제 차량의 주행이력을 기반으로 여러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재계산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배터리 수명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제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차(아이오닉 5)에서 수집된 각종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에 가상의 전기차를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차량별 배터리 수명을 예측합니다. AI, 머신러닝, 물리 모델 등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고도의 데이터 통합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방전과 운전습관, 주차 및 주행환경 등 차량별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배터리 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모델별 공인전비 현황

모델명	한국(복합)[1]	유럽(WLTP)[2]	미국(EPA)[2]
Electrified G80	4.3 km/kWh	19.1 kWh/100km	97 MPGe
Electrified GV70	4.6 km/kWh	19.2 kWh/100km	91 MPGe
Electrified GV60	5.1 km/kWh	17.0 kWh/100km	112 MPGe
코나 Electric	5.5 km/kWh	14.7 kWh/100km	120 MPGe
아이오닉 5	5.2 km/kWh	17.0 kWh/100km	114 MPGe
아이오닉 6	6.0 km/kWh	14.3 kWh/100km	140 MPGe
아이오닉 Electric	6.3 km/kWh	13.8 kWh/100km	133 MPGe

[1] Electrified G80(19인치, 공차중량 2,265kg 기준), Electrified GV70(19인치, 공차중량 2,230kg 기준), GV60(스탠다드 2WD 모델), 코나 Electric(Long Range 공차중량 1,720kg 기준), 아이오닉 5(Long Range 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 아이오닉 6(Long Range 2WD, 18인치 기준)

[2] 유럽, 미국은 각 모델별 대표 트림 기준으로 선정

수소전기차 배터리 성능

차량	연료탱크 용량	연비(복합)	1회 충전 시 항속거리	별도보증 부품 보증기간
넥쏘	6.33 kg / 156.6 Liter	96.2 km/kg	609 km	10년 16만 km
	Modern I 17인치 타이어 기준			

4 연비 개선

내연기관등차량 단위 연비 개선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판매비중이 높은 내연기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효율 개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판매국가별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경량화, 공력 개선 등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하여 환경적·경제적 효익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연료효율 개선 기술 공력 개선 측면, 범퍼, 트렁크, 루프 등의 형상 최적화, 풀 언더커버 최적화 등 디자인·엔지니어링 전 영역에서 공력 개선을 위한 개발 방향과 더불어 냉각 저항 개선을 위한 에어가드(ICE), Active Air Flap(HEV) 등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차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주행 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분사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MPI와 GDI의 장점을 담은 3세대 파워트레인(스마트스트림)을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유량 제어 밸브 적용을 통한 차량 운전조건별 냉각 수온 최적화 제어, 흡기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 시스템(CVVD),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LP-EGR) 등의 연비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비 테스트 공신력 강화 현대자동차는 한국,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판매국가의 연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연비 인증을 획득하고자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연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 실시하는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인정기구(KOLAS),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비 측정 시설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연비 테스트를 수행하여 연비 측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임원에게 연 1회 이상 온사이클 테스트 및 오프사이클 테스트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도로(오프사이클) 연비 테스트 차량의 연비는 주행상황에서의 기어변속, 차량중량, 공조상태 등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도로환경, 교통체증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요인이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의 연비 테스트와 더불어, 실제도로와 유사한 주행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오프사이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 기관 협업 현대자동차는 연비 관련 실도로(오프사이클) 테스트 결과와 타 기관들의 연비측정 결과 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EPA, J.D. Power, Consumer Reports 등 제3자 기관이 발표한 연비 데이터와 비교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Green NCAP, Auto Bild, Spritmonitor 등의 제3자 기관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제3자 기관과 연비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당사 연비 테스트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시장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 대응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_2 배출 규제 또는 기업 평균 연비규제는 해당 국가들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2월,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_2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2023년부터 연비규제 목표치를 5~10%씩 매년 끌어올려 2026년에는 갤런당 55마일로 높인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EV·PHEV·FCEV 포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35%, 2030년부터는 68%를 전기차를 포함한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주요 지역별 CO_2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전동화 차량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플릿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판매실적에 기반해서 규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미달 가능성에 대비하여 판매물량 조정은 물론 누적 크레딧 사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주요 판매시장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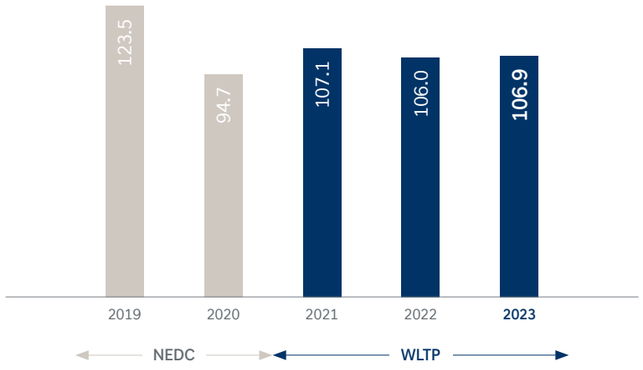
한국 시장

한국은 차량 배출가스를 2020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2030년 70g/km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배출량 허용 기준 초과 시, 1g당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25년까지 283만 대 보급하고,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하여 배출가스를 24% 감축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EU 시장

EU는 현행 승용차 95g/km, 소형 상용차 147g/km인 EU 산업 평균 탄소 배출량 기준을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55% 감축하는 목표와 2035년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00% 감축하는 목표를 EU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2035년부터 EU 시장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는 불가능하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2035년보다 빠른 시기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평균 탄소 배출량 (단위: g/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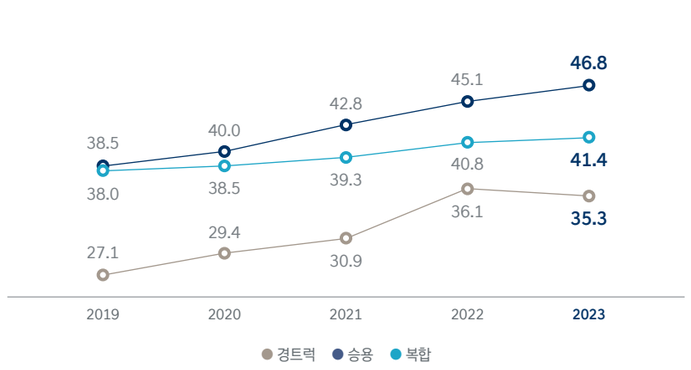


*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CO_2 배출량 인증모드를 NEDC에서 WLTP로 변경하여, 2021년 이후 실적을 과거 실적들과 비교할 수 없음. 2021년 규제치도 인증모드 변경에 따라 2020년 규제치인 95g/km 보다 상향된 112.5g/km으로 조정됨
** 2021년 수치는 당사 자체 추정치(109.7g)에서 EC 공시 발표수치(107.1g)로 수정됨
*** 2023년 입력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 기반한 자체 추정치임. 향후 유럽집행위(EC)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미국 시장

미국 정부는 1갤런 당 40마일(64.4km)인 평균 연비를 2026년까지 55마일 (88.5km)로 상향했으며, 1마일 당 224g의 온실가스 규제도 2026년까지 161g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정부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평균 연비 (단위: m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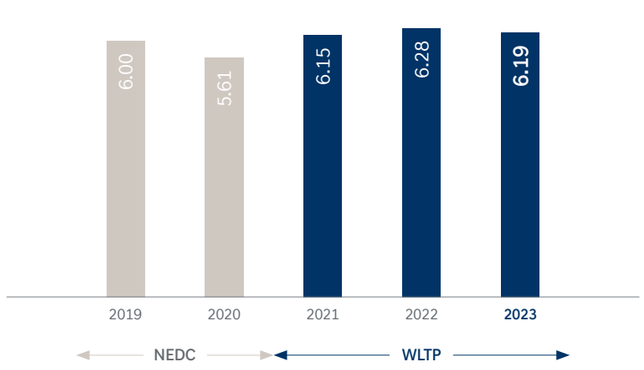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의 평균 연비는 매년 해당 정부기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중국 공신부)이 공시한 자동차 브랜드별 평균 연비실적을 반영함
** 2023년 입력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 기반한 자체 추정치임. 향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중국 시장

중국정부도 연비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판매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 차량(NEV) 의무 판매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 50%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35년 NEV 중에서 전기차 비중 95%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중국 평균 연비 (단위: L/100km)



* 2021년 중국정부가 연비 인증모드를 NEDC에서 WLTP로 변경하여, 2021년 이후 실적을 과거 실적과 비교할 수 없음
** 2023년 입력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 기반한 자체 추정치임. 향후 중국 공신부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기후변화 대응

5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 현대자동차는 원소재 채취로부터 부품 제조, 부품 수송, 차량 제조, 차량 유통, 차량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 14040 및 14044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LCA를 수행한 차종의 비율은 40.90%으로, 모든 차종의 전과정평가는 Full-LCA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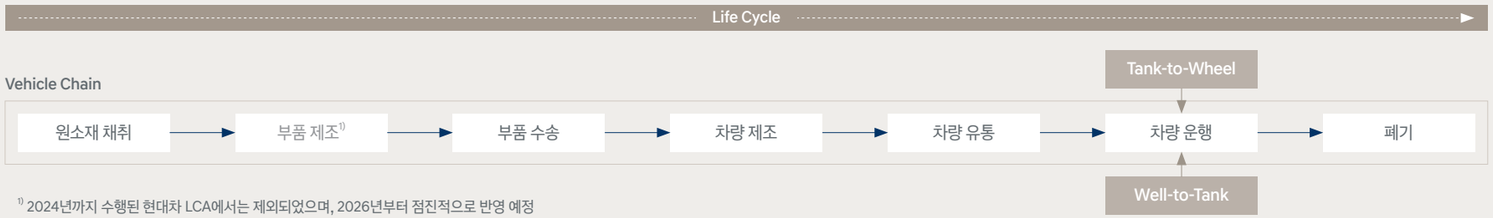
LCA는 CML(Centrum voor Milieukunde Leiden)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구온난화(GWP), 자원소모(ADP), 산성화(AP), 부영양화(EP), 오존층파괴(ODP), 광화학산화물생성(POCP)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ML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이용, 전리방사선 등의 지표는 EF(Environmental Footprint) 3.0 방법론을 통하여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부품 제조에 대한 환경 영향은 현재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배터리 셀 등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송 및 유통, 전력 등의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은 사업장에서 측정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운행 단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의 전력 생산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LCA 확대 2021년까지 구축한 파워트레인별 차량의 전과정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승용 5차종에 대한 LCA를 수행하였습니다.

LCA 활용 현대자동차는 LCA 결과를 기반으로 전 과정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친환경성 개선 활동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 채취 단계에서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를 확대하고, 부품 제작, 차량 생산 단계에서는 RE100 및 자원순환 등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할 것입니다. 신차 개발 시, 전과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LCA 결과 2023년에는 5개 차종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추가로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LCA를 수행한 누적 차종은 전체 25개 차종입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품 제조 단계는 추후 LCA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LCA 범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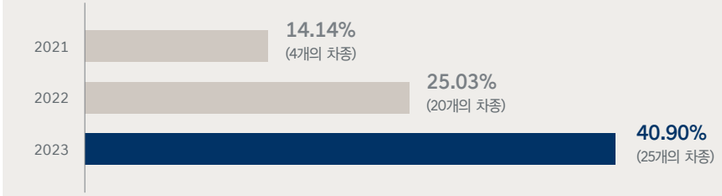


1) 2024년까지 수행된 현대차 LCA에서는 제외되었으며,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 예정

LCA 항목 구성



3개년 Full-LCA 수행 차종 누적 판매 비율 및 차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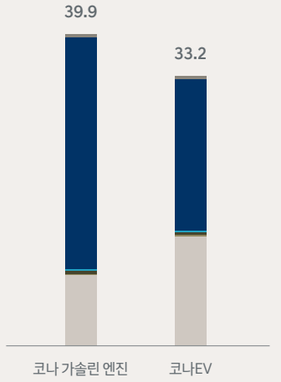


BUSINESS CASE

2023년 코나 가솔린 엔진 및 EV 모델 LCA 수행

현대자동차는 LCA를 통해서 차량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고 차량의 전반적인 환경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는 새로 출시된 모델인 코나, 그리고 기존에 출시되었던 차종 중 대표 모델인 아반떼에 대한 LCA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나의 가솔린 엔진과 EV 모델의 지구 온난화 영향도(Global Warming Potential, tCO_2-eq)를 비교해보면, EV 모델의 지구 온난화 영향도가 약 17%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EV가 운행 중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더라도 EV에 확실한 환경적 이점이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EV를 제조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되지 않던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어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영향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기 생산의 환경영향이 재생에너지의 도입으로 점차 감소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 부품이나 친환경 재활용 소재의 개발 적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위: tCO_2-eq/대)

전과정단계	코나 가솔린 엔진	코나EV
원소재 채취	4.9	10.2
부품 수송	0.02	0.03
제조	0.4	0.5
유통	0.04	0.05
운행	34.1	22.0
폐기	0.4	0.4
	39.9	**33.2**

원소재 채취 부품 수송 제조 유통 운행 폐기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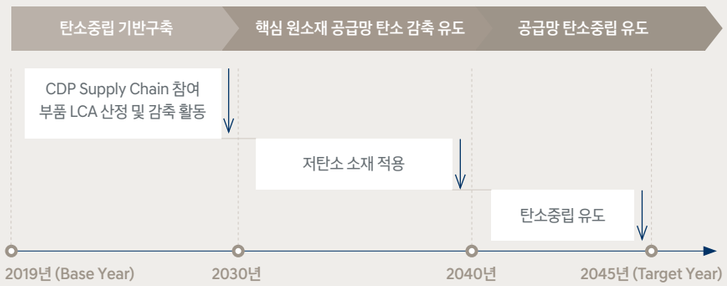
6 공급망 탄소 감축

협력사 탄소중립 추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에코디자인 및 저탄소 소재를 활용한 공급망 탄소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탄소중립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고, 2023년부터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사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협력사 생산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활동을 돕기 위해 부품 LCA 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탄소중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완성차 전과정 탄소배출량에서 공급망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사 탄소중립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탄소감축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탄소배출량과 감축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다배출 핵심 협력사를 중심으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과 탄소감축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대응 체계가 내재화된 이후에는 탄소다배출 협력사에 대해 3자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감축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사의 에너지 효율제고 및 탄소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설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탄소중립 로드맵



CDP Supply Chain 참여 현대자동차는 2023년 CDP Supply Chain에 가입하였습니다. CDP Supply Chain이란 CDP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공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협력사의 탄소 관련 정보(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이슈와 전략, 탄소배출량 등)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협력사의 원활한 CDP Supply Chain 참여를 위하여 현대자동차는 360여 개의 국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개요, 배출량 산정방법, 질의서 항목 안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Help Desk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사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탄소중립 인식제고와 탄소감축 방법론을 소개하여 한 차원 높은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품 LCA 산정지원 LCA 산정지원 프로그램은 원소재 채취부터 사업장에서의 부품제조 및 부품 수송 단계까지 협력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다배출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감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당사는 협력사의 부품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3년간(2023년~2025년, 3단계)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차량 LCA 단위의 탄소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탄소감축 지원 활동

활동명	활동 내용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대표자: 협력사 파트너십데이 개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 발표 • 임직원: 협력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설·운영 (글로벌상생협력센터)
CDP Supply Chain 참여	• 협력사 대상 교육 컨설팅 (배출량 산정, 질의서 안내 등) 운영 • 저평가사 대상 역량향상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부품 LCA 산정지원	•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제조 및 부품수송 단계까지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 탄소다배출 제조공정 파악을 통한 감축 활동 지원
협력사 탄소감축 관리 시스템 지원	• 탄소배출량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공 (2023년 7월) • 탄소다배출사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지원
협력사 탄소저감 설비 구매지원 사업	• 중견/중소기업 대상 고효율 장비교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유도

저탄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화물이 생산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퍼스트마일' 단계에서부터 물류창고에서 각 거점으로 이동하는 '미들마일' 및 '라스트마일' 단계까지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마일 단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수소전기 트레일러를 투입하고, 미들마일 및 라스트마일 단계에서는 전기 트럭을 투입하는 등 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운송 서비스 생태계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물류·운송 분야의 전동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현대글로비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30년까지 물류 현장에 수소 화물차 1만 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및 물류·운송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활동

협력사 탄소정보 공개	목표	• 협력사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를 통해 당사 공급망 탄소감축 전략 구체화 및 지원방안 수립
	교육 및 지원 현황	• CDP Supply Chain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탄소중립 개요 및 배출량 산정, 질의서 항목 안내 등) 진행 • 교육영상 게시, Help Desk 운영 및 저평가사 대상 역량향상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향후 활용 방안	• CDP Supply Chain을 이용한 협력사 사업장 탄소배출량(Scope 3, Category 1) 산정 시스템화 예정 • 향후 CDP Supply Chain 결과 구매 정책에 반영 검토 예정
물류·운송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포장 효율화 달성	• 접철식 플라스틱 박스[1] 개발을 통한 포장재 회수 과정에서의 에너지 저감 • 협력사와 협력을 통한 포장 효율화 추구 및 물류 에너지 효율화 확대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 연안해송 운송방식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화물차량 에코 드라이빙	• 물류사업 내 통합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화물차량 연비 개선 • 전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Digital Tachograph) 장착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비 개선 활동 모니터링

[1] 접철식 플라스틱 박스는 자동차 부품 포장재로 활용한 후 빈 용기로 회수할 때 최고 5분의 1 크기로 접어 부피를 줄임으로써 회수용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박스 양이 크게 증가

기후변화 대응

7 사회적 탄소 감축

탄소포집 및 활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 시점에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도기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배출된 CO_2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자 잠재력이 높은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CUS 기술을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CCUS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블루수소 생산현장 적용 고효율 CO_2 포집 실증 공정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업장의 LNG 보일러 연소가스 대상 탄소포집 플랜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의 상용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 기후공학 관련기술의 CO_2 제거 기술로 부각되는 CDR(Carbon Dioxide Removal) 분야에서 대기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및 활용을 위한 탄소중립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에 용존되어 있는 CO_2 제거를 통해 해양 산성화 방지 및 해양의 자연적인 탄소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동해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상쇄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조류 블루카본(Blue Carbon)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월 31일 울산광역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 숲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어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서 기능하는 곳을 의미하며, 우수한 생태계적 가치에 더해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km^2당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울산시 동구 주전동과 북구 당사동 2개 해역에 총 3.96 km^2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조류 종자 확산을 위한 수중저연승 시설을 조성하고, 모조주머니를 시설하여 단시간 내 대량의 해조류 포자 방출 유도하는 등 바다숲 조성 방안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역 특성에 적합한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종 다양성 향상을 위해 조식동물 구제 및 부착기질 개선 등 서식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산자원의 서식 기반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어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블루카본을 확충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바다숲 조성을 통해 확보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과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7월 출범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학계, NGO 등으로 이루어진 바다숲 블루카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해조류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블루카본 공식 흡수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성과를 도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방법론 등록 및 R&D 연구 지원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인 블루카본 크레딧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중 탄소 포집 및 활용 산학 연구

2023년 7월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기중 탄소 포집 및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자 국내 5개 대학과 함께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참여 대학들이 공동으로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소재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은 'DAC(Direct Air Capture, 공기중에서의 탄소포집) 분과'와 'CO_2 활용 분과' 등 두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AC 분과'는 CO_2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며, 'CO_2 활용 분과'는 포집된 CO_2를 메탄올, 메탄, 카본 물질 등으로 변환해 합성연료 및 배터리용 소재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기초 기술을 확보한 이후 차량 장착이 가능한 이동형 탄소 포집 장치를 비롯해 사업장과 빌딩 등에 활용이 가능한 대용량 고정형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산학 연구를 통해 대기 중의 탄소까지 적극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울산시-현대자동차-FIRA 동해본부 업무협약식
2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KICK OFF

기후변화 대응

기후 관련 전환 계획

탄소중립 추진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인류를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2021년 9월 IAA 모빌리티에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 Generation Platform),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핵심으로 전동화 역량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빌리티 전반 밸류체인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전동화 전환을 통해 고객의 차량 운행과정(Tank to Wheel)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제거 및 상쇄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배출과 관련하여 2035년까지 유럽 시장 내 100% 전동화, 2040년까지 주요 시장 100% 전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 패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REC,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2045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이행할 것입니다. 부품 및 원소재 등 공급망의 경우, 주요 협력사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 원소재 공급망 탄소 감축 등을 통해 2045년 탄소중립을 유도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잔여 탄소 배출을 처리하기 위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에 투자하고,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거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의 상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동화 추진 과정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수소발전 및 공정을 통해 수소사업과 탄소중립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후 관련 목표(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 현대자동차는 파리협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및 고효율 모터, 인버터 적용 등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해 2045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주요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동화 현대자동차는 탄소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유럽 시장 100% 전동화 및 2040년까지 주요시장의 모든 판매 차량 100%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 전동화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술 및 상품성 강화를 통해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국내 출시했으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를 북미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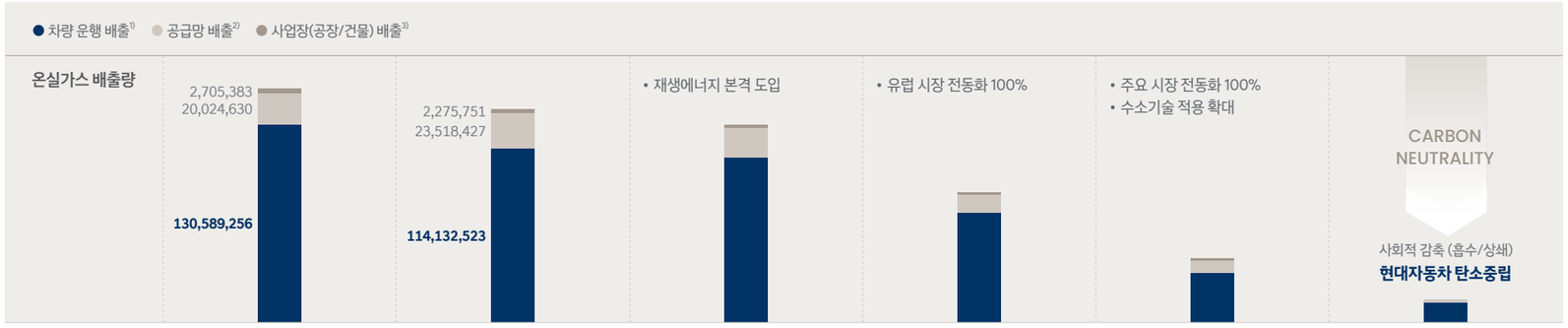
공급망 탄소중립 지원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 트렌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발맞추어 협력사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또한 유도 및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관리 협력사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성에 따라 그룹화된 협력사별로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탄소중립 교육과 인식 제고를 비롯한 공급망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원소재 업체의 경우, 소재 재활용과 신소재 활용 확대 등 자동차 설계 기술 연계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적 탄소 감축(잔여배출 처리) 현대자동차는 탄소배출 감축 외에도 탄소의 흡수와 제거, 자원 재활용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CCUS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폐차 단계에서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가드, 언더커버, 배터리 트레이 등 부품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오닉 6의 생산에 친환경 재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사업 시너지 창출 현대자동차는 2021년 '2040, The Completion of Hydrogen Energy Shift' 수소사업 비전을 발표하였고,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가 이동수단을 넘어 인류 생활과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소사업의 3대 방향성(확장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큰 축으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시스템 관련 사업과 기술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힐 것이며, 경쟁력 있는 가격에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2045 탄소중립 로드맵

(단위: tCO_2-eq)



구분	2019년(기준연도)	2023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사업장 감축	사업장 배출량3) (2,705,383 tCO_2-eq)	사업장 배출량 (2,275,751 tCO_2-eq)	45% 감축	60% 감축	75% 감축	100% 감축
			해외사업장 RE100 달성	주요공정 수소 도입	전체 사업장 RE90 달성	전체 사업장 RE100 달성 및 그린수소 사용
공급망 감축	공급망 배출량2) (20,024,630 tCO_2-eq)	공급망 배출량 (23,518,427 tCO_2-eq)	15% 감축	40% 감축	60% 감축	90% 감축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	저탄소 소재 적용	저탄소 소재 적용 확대	탄소중립 소재 적용
차량 운행 감축	차량 운행 배출1) (130,589,256 tCO_2-eq)	차량 운행 배출 (114,132,523 tCO_2-eq)	15% 감축	45% 감축	75% 감축	90% 감축
			전동화 차량 비중 30%	전동화 차량 비중 50% (유럽시장 판매 100% 전동화)	전동화 차량 비중 80% (주요 시장 판매 100% 전동화)	전동화 차량 비중 90% (신흥시장 전동화 가속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목표 산정 방법론(Science-based Target)'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며, 기준연도 배출량 100%를 대상으로 감축 목표 산정 ** 2030, 2035, 2040, 2045년 감축 비율은 기준연도인 2019년 대비 감축 비율 의미

1) 차량 운행 배출: 고객의 차량 운행 과정(=Tank to Wheel)의 탄소 배출량이며, 산정식에 사용되는 '대당 주행거리' 기준을 15만 km에서 20만 km로 변경되어 기준연도 배출량 변동
2) 공급망: 원소재 탄소배출량으로, 협력사와 협업하여 탄소배출 감축(탄소중립) 유도 목표
3) 사업장(공장/건물): Scope 1 + Scope 2 배출량 합계

기후변화 대응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 및 시점

기업이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성 및 정량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환 및 물리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시나리오의 원천은 주로 IEA, IPCC이며, 일부 정보의 경우 내부 분석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정의	기간 범위	출처	사업범위
전환	NZE (1.4°C)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부문의 넷제로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	~2050	IEA World Energy Outlook	현대자동차 자동차부문 전체
	APS (1.7°C)	각국 정부와 기업이 2023년 8월까지 약속한 기후 목표 달성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STEPS (2.4°C)	현재 각 부문 및 국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물리적	SSP1-2.6 (2°C 이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050	IPCC	현대자동차 자동차부문 32개 사업장
	SSP2-4.5 (2~3°C)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2도를 넘는 시나리오			
	SSP5-8.5 (4°C 이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4도를 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

전환 위험 분석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위험요인

주요 규제 지역에서 CO_2 배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진지역(국내, EU, 미국, 캐나다)과 신흥지역(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선진지역의 경우 2032년까지 약 2조 원의 누적 재무 영향이 예상되며, 신흥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8년까지 약 1,200억 원의 이상의 누적 패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응방안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상품본부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비 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규제 전망과 실적 예측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위험요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은 매각, 부족분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전망에 따라 기존 차량 대당 배출량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 기준 약 최소 660억 원에서 최대 2,190억 원의 배출부채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0% 무상할당 기준)

대응방안

현대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사업장 감축 등 다양한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구매를 최소화하여 기후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45 탄소중립 로드맵에 기반하여 2030년 기준 BAU 대비 배출권 구매비용은 최소 160억 원에서 최대 550억 원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U 탄소국경세(CBAM) 시행

위험요인

2026년부터 EU CBAM 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코공장(HMMC)의 경우 일부 부품의 탄소가격 지불(인증서 구매)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권 가격 전망에 따라 2030년 기준 연간 약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18억 원의 재무영향이 예상됩니다. CBAM 전환기 내 관련 제도 모니터링과 중장기 배출권 가격 전망을 고려하여 당사 재무 리스크 추정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응방안

CBAM 정책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CBAM 인증서 구매에 필요한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CBAM이 초래할 수 있는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위험요인

미국의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으로 인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는 경우 세액공제 3,750달러 혜택을 제공하며, 또한 배터리 부품 요건에 의해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 3,750달러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IRA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신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최대 7,500달러 현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대응방안

현대자동차는 IR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속도내고 있으며, 북미 지역 내 합작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시켜 향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환 기회 분석

전동화 전환 가속화

기회요인

전동화 전환은 현대자동차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간의 Price Parity가 달성되고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기차 수요가 증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매출은 2030년 기준 약 최소 41조 원에서 58조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방안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를 지속 증가시킬 예정이며, 2040년 내로 주요 시장의 모든 판매차량 100% 전동화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은 2030년 기준 약 최소 28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전환

기회요인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로 예상 전기 단가를 비교한 결과,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속 유지할 경우 2030년 기준 약 6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응방안

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및 PPA 계약 체결 등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반영할 시 2030년 기준 약 2,35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면 환경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테크(수소) R&D 투자

기회요인

수소는 기후테크의 중요한 영역으로 R&D 투자 증가함에 따라 수소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하여 수소 관련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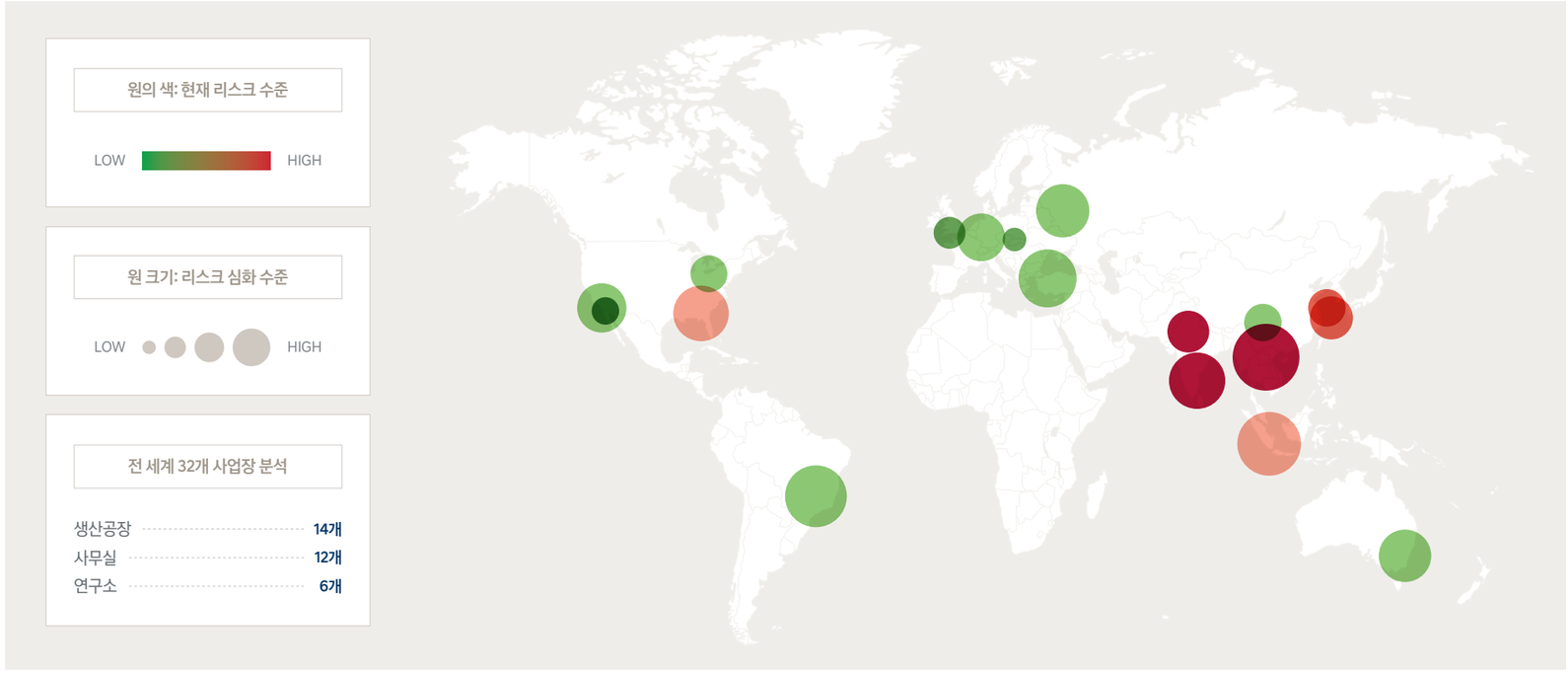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수소 에너지 자체 생산 기술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수소사회, 스마트 시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승·상용 수소전기차 라인업 구축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의 저장, 운송, 충전은 물론 생산까지 아우르는 수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저탄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 현대자동차는 물리적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후 모델링 기반의 기후 리스크 분석 전문 툴인 Jupiter Intelligence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재해의 경우 최대 90m 간격으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고해상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급성 위험(강풍, 침수, 산불, 우박/뇌우, 폭우)와 만성 위험(폭염, 가뭄, 한파)의 8가지 재해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했으며, 이 중 강풍, 침수, 산불, 폭염에 대해서는 정량적 재무영향을 도출했습니다. 강풍, 침수, 산불 등 급성 기후재해는 현대자동차의 건물, 설비, 재고 등 자산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판매제품의 생산중단을 초래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만성적 기후패턴 변화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현대자동차의 사업모형 중 '제품의 생산제조'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 세계 32개 사업장(14개 생산 법인, 12개 일반 사무실, 6개 연구소)에 대한 정량적 재무 영향 분석을 위해 2023년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및 재고자산과 사업장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자산과 매출에 미치는 총 누적 예상 피해 금액은 약 2.2조 원(저배출 시나리오)에서 3.8조 원(고배출 시나리오)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SP5-8.5 시나리오 2050년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지역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지역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 정도											
		폭염 (Heat)			강풍 (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SSP1-2.6												
	SSP5-8.5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3개국)	SSP1-2.6												
	SSP5-8.5												
오세아니아 (호주)	SSP1-2.6												
	SSP5-8.5												
아메리카 (미국 등 3개국)	SSP1-2.6												
	SSP1-8.5												
유럽 (독일 등 5개국)	SSP1-2.6												
	SSP5-8.5												

사업장 유형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지역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 정도											
		폭염 (Heat)			강풍 (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생산공장 (울산 공장 등 14개)	SSP1-2.6												
	SSP5-8.5												
사무실 (양재본사 등 12개)	SSP1-2.6												
	SSP5-8.5												
연구소 (남양연구소 등 6개)	SSP1-2.6												
	SSP5-8.5												

기후변화 대응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 및 조직별로 파악된 기후변화 이슈는 본사 기획재경본부로 전달되며, 기획재경본부는 각 이슈별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식별단계 식별단계에서는 상품위원회 및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로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하여 각 권역 및 조직별 이슈사항을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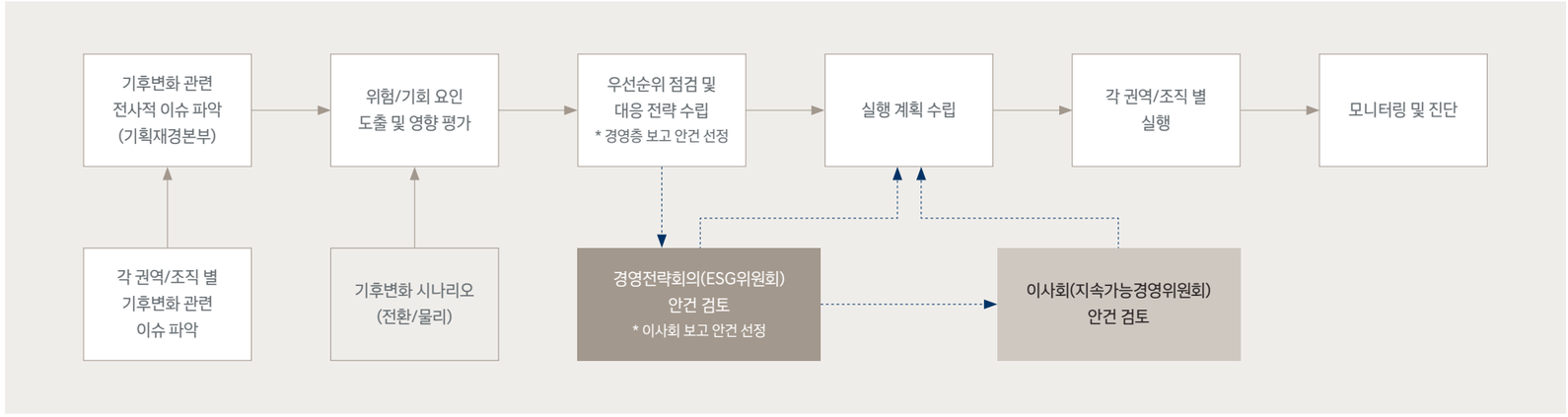
평가 및 보고단계 본사 기획재경본부가 식별단계에서 파악된 요인과 이슈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중대성에 따라 CEO에게 전달되거나 ESG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관리단계 의사결정된 기후변화 이슈는 해당 권역·조직의 실무분과별 KPI에 주체적으로 반영됩니다. 탄소중립추진팀과 유관조직이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및 평가 방법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TEEP(Social, Tehcnology,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구분별 동력요인(Driving Forces)을 식별했습니다. 이 중 영향도, 불확실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 동력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영향도는 회사의 사업 모델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조달, 생산, 판매)과 회사의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예산 책정, 투자 및 R&D, 사업 인수 및 매각, 인재 확보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동력 요인이 회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가능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핵심 요인이 현대자동차의 재무 및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설계하여 IEA의 NZE, APS, STEPS 시나리오 따라 각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인의 재무영향을 산출하고 영향의 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인이 시나리오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 회복력을 제고합니다.

기후변화 위험/기회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지표

Scope 1, Scope 2 배출량[1] (단위: tCO_2-eq)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Scope 1	724,013	719,949[2]	696,590
Scope 2 (지역 기반)	1,660,058	1,853,813	1,831,531
Scope 2 (시장 기반)[3]	-	1,684,120	1,579,161
Scope 1 +2 합계[4]	2,384,071	2,404,069	2,275,751
Scope 1 +2 합계 배출 집약도 (자동차 1대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0.616	0.601	0.531

Scope 3 배출량 (단위: tCO_2-eq)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스트림 배출량	공급망 (원소재 및 부품 구매)	18,359,619	19,852,763	23,518,427
	자본재 (비품 및 기자재 구매)[5]	139	326	134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 제외)[5][6]	149,556	145,177	189,51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7]	1,911	1,978	217,737
	임직원 출장[5]	7,069	21,370	26,994
	임직원 출퇴근 (통근용 버스)[5]	5,911	6,617	8,895
다운스트림 배출량	생산된 차량의 운송 (해운 및 육상)[5]	838,575	964,206	981,549
	판매된 차량의 사용 (Tank to Wheel)[8]	107,850,017	109,278,795	114,132,523
	판매된 차량의 폐기 (회수, 분해, 처리)[9]	810,794	2,133,743	2,323,327
	임대자산 (본사 및 임대 사옥)[5]	804	539	1,447
	투자[10]	728,902	704,970	556,331
Scope 3 합계		128,753,297	133,110,484	141,956,876

[1] 해외 사업장은 생산법인이 산정 대상이며, 2023년부터 산정 대상 사업장 추가(HMGICS, HTWO). 추가된 사업장을 제외한 2023년 Scope 1 + Scope 2 배출량 합계는 2,268,998tCO_2-eq

[2] HYMEX 산정 오류를 정정하여 2022년 데이터 수정

[3] Scope 2 배출량: 2022년부터 시장 기반(Market-Based) 방식의 배출량 산정 추가

[4] 2022년부터 Scope 1과 Scope 2(시장 기반) 배출량의 합계로 산정

[5] 본사가 위치한 국가 기준

[6] 사업장에서 소비한 연료의 업스트림 배출 (전기, 스팀 제외)

[7] 2023년부터 산정 범위 확대(해외 사업장 폐기물)로 인해 배출량 증가

[8] 차량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주유/충전되기 이전 단계(Well to Tank)의 배출은 제외된 수치. 산정식에 사용되는 '대당 주행거리' 기준이 15만 km에서 20만 km로 변경되어 데이터 수정

[9] 2022년부터 재활용 과정의 배출량을 추가 산정하여 폐기 단계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10] 현대자동차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들 중 6개사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대응

배출량 측정을 위한 접근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적용한 지침은 아래와 같으며, 통제력기준(Control Approach)의 운영통제력(Operational Control)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접근법

구분	지침
Scope 1, 2	• The 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d Edition) • Th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2 Guidance 탄소중립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Protocol and Accounting Tool • 기타 관할 당국 및 상장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Scope 3	•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 2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의 100년을 기준으로 한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하여 6가지 온실가스 종류(CO_2, CH_4, N_2O, HFCs, PFCs, SF_6)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

투입변수 및 가정

구분		투입 변수	
		활동 데이터	배출 계수
Scope 1	공정 연소	도시가스(LNG), 경유, 등유, 프로판 사용량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이동 연소	휘발유, 경유, LPG	이동연소(도로)의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 배출계수
Scope 2	외부 전기	2023년도 전력 사용량	국가고유 전력배출계수 적용
	외부 스팀	2023년도 스팀 사용량	2023년도 공급처 스팀배출계수 적용 및 국가 스팀배출계수
Scope 3	공급망 (원소재 및 부품 구매)	2023년 차종별 생산량	제조 단계 배출계수
	자본재 (비품 및 기자재 구매)	기자재 구매량	기자재 평균 배출계수(LCI DB)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 제외)	연료 사용량	생산기준 배출계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기준별 처리량	처리기준별 배출계수
	임직원 출장	국외 출장 (항공거리), 국내출장 (이동수단별 거리)	국외 출장 (항공 배출계수), 국내출장 (이동수단별 배출계수)
	임직원 출퇴근 (통근용 버스)	모든 통근차량의 연간 연료사용량 (통근차량 대수 × 평균속도 × 운행시간 × 근무일수 ÷ 평균연비)	수송(경유) 배출계수
	생산된 차량의 운송 (해운 및 육상)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송용 배출량 데이터	N/A
	판매된 차량의 사용 (Tank to Wheel)	2023년 차종별 판매량	차종별 사용단계 배출계수(gCO_2/km) × 200,000km
	판매된 차량의 폐기 (회수, 분해, 처리)	2023년 차종별 판매량	차종별 폐기단계 배출계수
	임대자산 (본사 및 임대 사옥)	건물 전체 사용량 × 임대비율	온실가스 배출계수
	투자	투자회사 배출량	지분율

자본 배치 전동화 전환을 위해 2032년까지 EV 공장 신설, 배터리 JV, 소재 확보 등 전략 투자, R&D 비용,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전동화' 관련 총 35.8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2023~2032년, 10개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자가발전 등 사업장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에도 2032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분	2023년-2032년	세부 사항
전동화 R&D 투자	35.8조 원	전동화 관련 제품 개발, 전동화 부품 선행 기술개발 등
Capex 투자		신공장 및 생산라인 증설, 전기 충전소 구축 등 시설투자
전략투자		협력사 및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 인수 등을 위한 전략투자
사업장 탄소중립 투자	7,000억 원	저탄소 제조공정, 태양광 자가발전투자

보상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COO 및 권역본부장, 공장장(생산법인장), 직원(유관조직)의 성과평가 항목(KPIs)에 기후변화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성과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및 연봉체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KPI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전환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목표 및 이행실적이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조직의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지표에 대한 달성률 및 이행평가를 통하여 연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성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센티브	KPIs	KPIs 설명
CEO	금전적 보상 (상여금 산정 시 반영)	탄소중립 & 에너지전환 이행	1) 탄소중립 목표 대비 이행률 2)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수준
COO 및 권역본부장		탄소중립	1) RE100 목표 달성률 2) Scope 3 데이터 관리 수준
공장장(생산법인장)			1) RE100 목표 달성률 2) 대당 배출량 3) 총 배출량
직원(유관조직)			각 유관조직 담당자별 달성 목표를 수립 후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산업 기반 지표

(부속지침 'Industry-based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S2' 내 Automobiles 산업 기반 지표 참조)

기후변화 대응

기후 관련 목표

목표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설정된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글로벌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검토 프로세스 현대자동차의 이사회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 수립, 환경 투자 등 사업전략 추진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안건에 대해 검토·승인합니다. 경영진은 대표이사(CEO)가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또는 ESG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확대 전략,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전사 주요 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이행 현황 점검, 개선 성과 검토,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그 밖의 환경경영 확산·전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성과를 매년 3분기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 승인의 건'을 통해 국내 사업장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 탄소상쇄 조기 대응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주요 이슈 점검 사항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관련 정보

목표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는 Scope 1, 2, 3(일부)입니다.

목표에 대한 설명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는 총 배출량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 시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 여부 현대자동차는 보고기간 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하여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효과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 분석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당기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및 진척도 모니터링 지표	단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온실가스 Scope 1 배출량	tCO_2-eq	724,013	719,949	696,590
온실가스 Scope 2 배출량	tCO_2-eq	1,660,058	1,684,120	1,579,162
재생에너지 전환비율(전기)	%	3.5	7.7	12.8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	tCO_2-eq	128,753,297	133,110,484	141,956,876
전기차 판매량	대수	141,622	210,352	268,785

순환경제 조성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하는 국가별 폐차 회수·처리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폐차 회수·처리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think] 차량 디자인·설계 단계부터 환경과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Reduce] 플라스틱 등 일회성 원부자재 투입을 줄이는 대신 재활용 소재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Recycle] 또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을 선형 구조에서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폐차 회수·처리·재활용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처리업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

재활용 소재 적용 체계 강화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이슈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매년 2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량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90% 이상이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원소재 단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위해서 재활용 소재 확대를 포함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폐기물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EU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폐기물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기존 폐차 규제(End-of-Life Vehicles Regulation)를 대폭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신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비율을 25%로 의무화하였으며 이 중 25%는 폐차에 기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과 동일하게 폐차 회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한국, 인도 등 타 국가들도 차량의 재활용 소재 적용을 의무화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제로화, 자연 자원 보존과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차량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 규제에 대응하여 대내외 차량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및 양산차 적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폐차 규제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 판매차종 중심으로 규제 대응 위한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고, 목표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기반 구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2045 탄소중립 로드맵 및 전략 방향성에 맞춰 재활용 플라스틱의 신차 적용 체계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재활용 생태계 활성화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의 폐차 플라스틱 배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차종과 부품을 선정하고 협력사와 소재사 등 밸류체인 내 기업들과 상생 및 대응력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차 순환경제 구축 핵심기술 내재화와 차량 폐부품 자원화 방안 실증사업을 위한 폐차 네트워크 시범운영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그 결과물로 폐차 내장부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외장부품에 양산적용을 추가하는 등 폐차 기반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부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활용 사업, 기술 개발 등의 활동에 대해 상호 협업관계 형성과 교류 증대를 통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고려한 설계 현대자동차는 신차의 디자인·설계·개발 단계부터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처리, 재활용을 고려하여 해체 및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Design for Recycling)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기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플라스틱·유리 등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비금속 소재의 경우 재활용 소재는 물론 바이오 소재 등과 같은 대체소재를 사용하여 차량의 재활용성과 재생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량의 재활용 가능률은 열에너지 미회수 시 85%이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열에너지 회수 포함 시 재활용 가능률은 95%입니다. 특히, 차량소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철, 비철 등 금속 소재는 대부분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천연소재 신차 적용 현대자동차는 매년 전기차 신모델 중심으로 재활용 및 천연소재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경우 팔걸이, 시트커버링에 재활용 PET 가공 원사가 적용하였으며, 이는 아이오닉 5 한 대에 최대 32개의 패트병이 재활용된 셈입니다. 시트, 헤드라이너, 카펫에 사용된 패브릭 소재는 사탕수수와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에 사용된 가죽은 동물성 기름이 아닌 아마기름을 이용해 염색되었습니다. 도어도 100% 재생가능한 페이퍼렛이 사용되었으며 도어와 크래시패드의 도색에는 유채꽃, 옥수수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된 바이오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별 재활용/천연소재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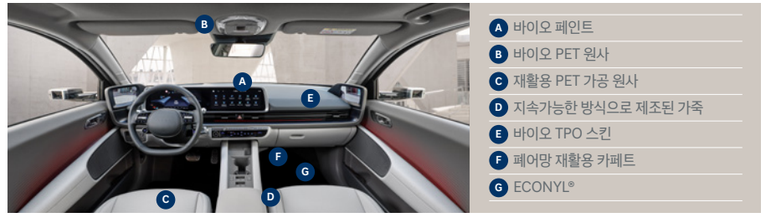
아이오닉 5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아마씨앗 추출 오일, 사탕수수/옥수수 추출 바이오 원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아이오닉 5 N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페이퍼렛 소재, 재활용 페인트,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활용한 알칸타라
아이오닉 6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 식물성 원료 기반 도료, 사탕수수/옥수수 추출 바이오 원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GV60	옥수수·사탕수수 유래 바이오 폴리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Electrified GV70	울(Wool) 30% 함유 천연원단, 재활용 PET 가공 원사
Electrified G80	천연염료, 재활용 PET 가공 원사, 자투리 나무 조각 재활용 포지드 우드

아이오닉 6에도 재활용 PET 가공 원사, 바이오 원사, 바이오 TPO 스킨 등의 재생가능한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GV60, Electrified GV70, Electrified G80의 헤드라이너, 필라트림, 선바이저, 패키지트레이 등에도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버려진 페어망을 재활용한 재생소재(ECONYL®)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플로어 매트에 적용되었습니다. Electrified GV70의 경우 헤드레스트 앞면과 시트 사이드에 울(Wool)이 30% 함유된 천연원단을 사용하였으며, Electrified G80에는 자투리 나무조각으로 만든 포지드 우드(Forged Wood) 장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N에는 다양한 지속가능한 소재가 내장 곳곳에 적용되었습니다. 도어 트림과 콘솔 커버에 유채꽃,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오일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적용되었으며, 재생가능한 페이퍼렛 소재도 도어 가니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원료가 사용된 재활용 페인트를 도어 핸들과 도어 스위치 등에 적용되었으며 시트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활용한 알칸타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헤드라이너과 플로어 매트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재활용/천연소재 적용 사례



아이오닉 6 재활용/천연소재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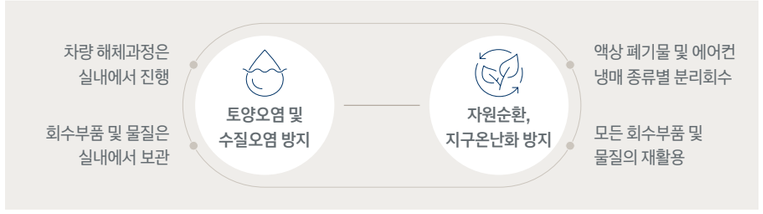
순환경제 조성

폐차 자원순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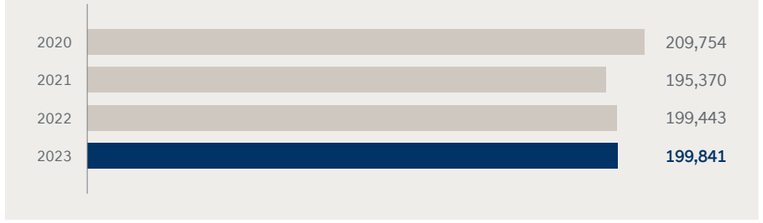
폐차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폐차를 희망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차량의 회수·해체·재활용 등 폐차 처리를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수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은 폐차장으로 운송되어 회수물질의 실내보관, 모든 회수부품 및 물질의 재활용 등의 원칙 하에 환경친화적으로 해체되어 재활용됩니다.

폐차 회수 및 재활용 현대자동차는 포장재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자동차 부문 도입 추진의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2011년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폐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 해체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하여,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유가 자원과 그렇지 않은 비유가 자원의 구분 및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재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기후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질인 폐냉매, 차량 파쇄 후 나오는 철 스크랩, 폐차잔재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폐차 처리업체와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차 시 회수한 자원량은 약 19.9만 톤이며, 폐차 재활용률은 열회수 제외 시 82.4%, 열회수 포함 시 91.0%를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폐차 회수, 재활용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활용율 높이기 위해 재활용업체들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차 처리 원칙



폐차 회수 자원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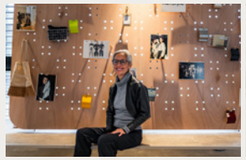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현대자동차는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넘어 폐기물을 기반으로 패션 소품,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폐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Re:Style

현대자동차의 리스타일은 2019년 디자이너 마리아 코르네호(Maria Cornejo)와 함께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카시트의 남은 가죽과 작물들이 마리아 코르네호의 시그니처 피스와 접목되어 혁신적인 15벌의 의상으로 재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스타일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패브릭 소재를 활용했던 2019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버려지는 차량의 유리, 카펫, 에어백 등의 다양한 폐소재들을 활용해 6명의 친환경 디자이너들의 철학이 담긴 컬렉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23년 초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제레미 스캇(Jeremy Scott)과 손잡고 아이오닉 6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가 함유된 원단)과 전동화 차량에 사용된 와이퍼, 후미등, 안전띠 등을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기하학적 형태로 형상화한 '파라메트릭 픽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미니백, 노트, 키링 등 다양한 소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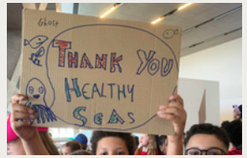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 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현대자동차는 환경부, 충청북도 청주시, 고등기술 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를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청주시와 함께 2023년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수소생산시설 설치에 나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시설이 가동되면 1일, 500kg의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후 증설을 통해 2027년에는 수소 하루 생산량을 1,000kg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지역사회 수소충전소에도 공급됨으로써 부생수소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청정수소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 향후 수소 버스, 수소 청소트럭 등 공익 목적의 모빌리티로 활용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람풍(Lampung)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에 기반한 재생소재 적용

현대자동차는 유럽 해양보존단체인 Healthy Seas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 활동인 에코 사이클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관련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리스 이타카(Ithaca)에서 대규모 해양 정화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고, 폐어망 18.5톤과 기타 해양 폐기물 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어망과 해양 폐기물은 에코닐(그물, 헝겊 등을 업사이클링하여 만들어진 나일론 소재)로 탈바꿈하여 패션 제품, 의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플로어 매트 등 다양한 곳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외에도 국내 울산에서도 에코 사이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울산 북구청, 울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 수협), 폐어망 업사이클 소셜벤처기업 넷스파, 비영리 해양복원단체 블루사이렌과 함께 하는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자항은 국내 최대 참가자미 집산지이며, 연간 약 130톤의 폐어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자항 일대에 110m^2 규모의 폐어망 집하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블루사이렌은 집하장 관리 및 폐어망 수거를, 넷스파는 수거된 폐어망의 재원료화를 담당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향후 재원료화 된 폐어망을 자동차 부품 소재로 양산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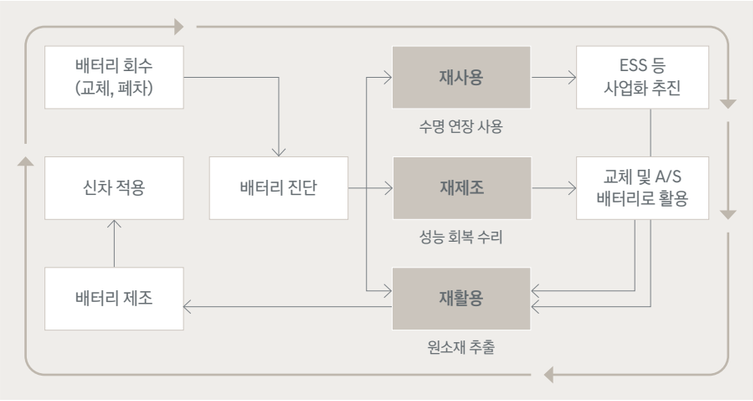
순환경제 조성

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그룹 배터리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하여 전기차 폐차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은 배터리 원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셀 제조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의 제작,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최종 폐기된 배터리의 소재 추출 및 추출된 소재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선순환 루프로 구성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현대자동차그룹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공식 TFT를 구성하였으며, 배터리 전후방 사업 점검 및 관련 역량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폐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폐배터리로부터 코발트,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는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육상·해상 운송을 통해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재활용 사업에 연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은 재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회수한 배터리를 선별하여 성능 회복 등 새롭게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 다시 활용처에 투입하는 재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제조한 배터리는 노후 전기차 및 수리용(A/S)으로 활용됩니다.

배터리 선순환 체계도



폐배터리 회수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전 세계 폐차장과 딜러 및 A/S 센터,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운반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송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회수된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전처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취급이 까다로운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폐배터리 전처리 기술을 보유한 (주)이알과 협업하여 운송이 용이하고 유가금속 확보가 가능한 블랙파우더 확보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규제를 충족하는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폐배터리의 회수/진단/전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용도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 재사용 전력용 ESS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실증 협력사인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에 각각 2MWh, 300kWh급의 ESS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1월 태양광 연계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부산에코델타스마트시티에 400kWh급 ESS를 신규 구축하였으며, 향후 P2P(Peer To Peer)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폐배터리 재사용 ESS 실증사업은 현대글로비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폐배터리 회수/진단/전처리 시스템과 재사용 사업까지의 단일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폐배터리 기반 ESS 사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배터리 재제조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중 잔존가치가 높은 최상위 품질의 폐배터리는 자체 분류 기준에 의해 재제조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와 협업하여 현대모비스의 국내 및 글로벌 A/S 부품 공급망을 활용하여 폐배터리 수거 체계 및 재제조 거점을 구축하고, 매입·수거한 폐배터리를 노후 차량 및 A/S용 배터리로 다시 제조하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원소재 재활용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순환체계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불가로 판단된 폐배터리는 파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원소재를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여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권역내에서의 배터리 원소재 공급 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U 배터리 규제 대응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8~10년 이후에는 전기차에서 쓰고 난 폐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자재의 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최근 EU를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전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성 및 안정성 입증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EU 배터리 규제를 2023년 8월 발효하여 2024년 2월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유럽에서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는 전생애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인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며, 전기차용 및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전기차용 및 산업용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실사와 배터리 관련 정보 디지털 공시(디지털 배터리 여권)도 의무화되며, 배터리 업체가 개별 혹은 단체로 모든 폐배터리를 수거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도 법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동 규제는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전후방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주어,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 받아 전기차를 생산하고, 폐배터리 회수 및 재사용·재제조·원소재 재활용을 추진하는 완성차 업체 역시 법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EU 배터리 규제와 유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재활용 소재 적용 의무화 규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EU 배터리 핵심 원자재 재활용 규제 시행에 대응하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차원에서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사와 협업하여 유럽 내 폐배터리 기반 도시광산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소유 폐배터리 확보를 위한 딜러 프로그램 개발, 회수 및 전처리 통합 거점 구축 등 밸류체인 전방위 영역을 선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또한, 유럽 도시광산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EU 배터리 핵심 원자재 재활용 소재 적용 의무화 규제 대응함과 동시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및 비용 절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소재 의무 적용 외에 탄소발자국 등을 포함한 배터리 관련 정보 디지털 공시 규정인 디지털 배터리 여권 및 실사 의무화 규정에 대응하여 배터리 업체와 협업하여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 관련해서는 글로벌 배터리연합체인 GBA(Global Battery Alliance)와 협업하여 탄소발자국을 포함한 배터리 정보의 디지털 공시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터리 업체와 협업하여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실사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 저감

기업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격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라는 환경 이슈 역시 지구와 지구 위의 모든 생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야기된 원자재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며, 엄격해지는 환경 당국의 규제 속에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COVID-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배출량이 커플링되어 증가하지 않도록 생산량 증가와 연동된 상승분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투입자원 관리

원자재 투입 효율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상황,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 사용 효율화 및 재활용 추진을 통해 원자재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원가 상승, 수급 불안, 자연자본 고갈 등의 대내외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부자재는 강판(철), 알루미늄, 페인트, 시너, 주물사 등 입니다. 강판(철)과 알루미늄이 주로 차체공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프레스공정에서 발생되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의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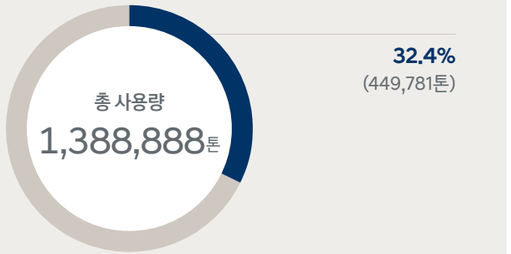
원자재 사용량 [1]

(단위: 톤, 톤/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철/알루미늄 사용량	1,195,358	1,297,894	1,388,888
대당 사용량	0.31	0.33	0.32
철/알루미늄 스크랩량	423,617	435,192	449,781

[1]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 원자재 실적이 반영되어 2021~2022년 원자재 수치가 기존 공시 수치 대비 수정/변경되었음.

2023년 스크랩량 비율



2023년에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량이 전체 원자재 사용량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공장별 철과 알루미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대당 철과 알루미늄 사용량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단일 생산공장별로 원자재 사용 절감을 위한 활동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공장의 경우 펜더의 두께를 조절하여 약 8%에 달하는 철 투입량을 감축하였습니다. 인도공장은 블랭크 피치 절감 등을 통해 총 161톤의 철을 절감했습니다.

용수 효율 및 재활용 강화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사 환경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별 용수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사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매년 제3자 기관(TÜV NORD, DNV 등)의 ISO 14001 인증 심사를 통해 용수 효율성 및 재활용과 수처리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공장 자체 관리 및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용수 효율성 관리 및 수질오염물질 저감의 기회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용수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 Tool을 토대로 사업장별 용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도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 미국생산법인, 북경기차, 인도네시아생산법인 등의 용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Extremely High) 파악되었고, 용수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수 효율 개선과 재활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3년 용수 재활용량은 2,631,445톤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재활용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3.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용수 사용량 목표는 2023년 생산계획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된 예상 용수 사용량 대비 4% 감축한 11,099,702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11,060,941톤을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대당 용수 사용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58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일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 제로(하루 물 사용량이 '0'에 가까운 상태)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 첸나이지역에 위치한 인도공장과 국내 아산공장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를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도장부스의 세정식 집진기 순환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송배관을 포함한 폐수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52,000톤의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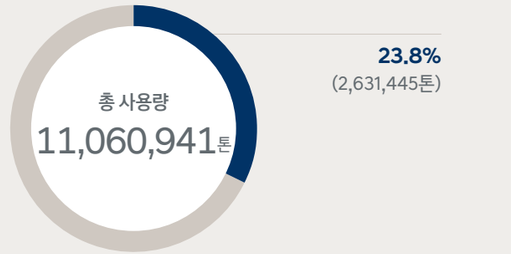
(단위: 톤, 톤/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사용량[2]	10,360,025	10,602,057	11,060,941
대당 사용량	2.66	2.69	2.58
재활용량	2,179,600	2,284,154	2,631,445
재활용 비율	21.0%	21.5%	23.8%

[1]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과 베트남생산법인(HMTV)의 용수 데이터를 포함해 재집계하여 2021~2022년 수치가 기존 공시 수치 대비 수정/변경되었음. 2023년 가동을 개시한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HTWO광저우법인 용수 데이터가 2023년 실적에 포함되었음.

[2] 도시(공업)용수, 표층류, 지하수, 해수담수 취수량의 합에서 방수량을 제외한 값임.

2023년 용수 재활용 비율



환경영향 저감

체코공장은 2023년 역삼투압(Reverse Osmosis, RO)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총 17,280톤의 용수를 절감하였으며, 2022년 대비 2029년 용수 사용량을 30%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코공장은 용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도장공장 역삼투압(RO) 시스템 내 버려지는 폐수의 재활용을 위한 나노 필터 도입 검토, 탈지(Degrease) 및 불순물(Skid) 정화 강화, 양극액 등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수 재활용 추진, 유량계 추가 설치 및 용수 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브라질공장 역시 RO 시스템 개선, 탄소 필터 시스템 작동 시 역류하는 용수 재활용, 화장실 세면대 수압 조절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용수 절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공장의 경우 2023년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에 맞추어 임직원 대상으로 물의 날을 알리며 물의 중요성, 물 절약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베트남공장은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 잠그기'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물 절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 관련해서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를 방류하기 전,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제하는 방류수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된 처리를 통해 대부분 법정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방류수에 대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방류하기 전 물리·화학적 처리뿐 아니라 3차 처리인 고도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생산공장별 BOD, TOC(COD), SS 등을 포함한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도장 및 세척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산염(T-N)과 인산염(T-P) 등의 수질오염 물질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검사는 일반적으로 매월 1회 국가공인 전문수질측정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출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확대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유형별, 처리방식별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량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사 환경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별 폐기물 관리를 점검 및 실사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매년 ISO 14001 심사를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3자 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공장 자체 관리 및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생산공장 자체 관리 및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금속류의 폐기물은 100%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 폐페인트, 폐신너, 포장재, 슬러지 폐기물까지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3년 총 폐기물 배출량(재활용 실적 제외)은 66,692톤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대당 폐기물도 0.0155톤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량은 울산공장 전기차 신공장 건설로 인한 재활용 건설 폐기물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 비율도 93.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폐기물 배출량 목표는 2023년 생산계획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된 예상 배출량 대비 5% 감축한 70,262 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66,692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일 생산공장별로도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매립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공장은 자체적인 폐기물 발생 최소화 연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 단위를 부피에서 중량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을 담는 드럼통을 압축해 폐기물 발생을 매년 420톤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인도공장은 코일 패킹 스크랩 등급 변경, 분리 및 재사용을 통해 스크랩 발생량을 감축하였습니다. 전주공장은 기존 소각 처리하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 폐주물사의 매립 처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과 브라질공장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높은 재활용 비율과 매립 최소화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과학 인증 기관 UL 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대외 인증에서 Platinum 등급(재활용률 100%)을 획득하였습니다. 브라질공장은 브라질 인증기관 PCN Do Brasil과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 연구소(INMETRO)로부터 폐기물 관리 책임기업 인증(Responsible Company Seal)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ILZB(Instituto Lixo Zero Brasil)로부터 폐기물 제로 인증(Zero Waste Institute)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공장의 경우 '순환경제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 (Circular Economy & Solution to Plastic Pollution)'이라는 주제로 환경위크(Environmental Week, 2023.06.20~23)를 개최하여 임직원들의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필요성을 고취하였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설비 투자도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공장 기준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 설비 투자를 위해 총 12.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 현대자동차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적 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사내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투자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대기방지시설에 446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방지시설과 악취분야(RTO 활성탄 교체) 개보수를 위해 약 66.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주공장은 신규 집진기 설치, 분진 차단막 및 백필터 충진재 교체 등을 위해 약 5.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체코공장과 인도공장은 폐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료 전환 및 최적화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은 매월 방류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후 장비 개선 등 설비 투자를 통해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수처리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량 [1] (단위: 톤, 톤/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배출량[2]	60,371	67,694	66,692
대당 배출량	0.0155	0.0172	0.0155
총 재활용량	505,770	561,670	957,463
재활용 비율	89.3%	89.2%	93.5%

[1]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과 베트남생산법인(HMTV)의 폐기물 데이터를 포함해 재집계하여 2021~2022년 수치가 기존 공시 수치 대비 수정/변경되었음. 2023년 가동을 개시한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HTWO광저우법인 폐기물 데이터가 2023년 실적에 포함되었음.

[2] 재활용량 제외한 폐기물 배출 실적임.

2023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영향 저감

유해물질 관리 강화

유해물질 관리 체계

유해물질 관리 기준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을 사용금지, 사용제한, 관리강화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과 이니셔티브, 국내외 법규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용금지'로 분류된 물질은 고위험 규제물질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으로 분류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에 포함된 용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강화'는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수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기준만으로 제품의 유해물질을 완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에도 동일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에 최종 납품되는 제품 내에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조사·분석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품 재질 정보 시스템인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을 도입하여 유해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차량부품 재질분석 시스템(MAMS, Material Analysis Management System)'을 연계하여 신차의 개발 및 설계 단계부터 수집된 부품에 대한 물질 정보를 파악하여 위해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고위험 물질 함유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차 개발단계에서 1차적으로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신규 규제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력사 대상 정기 점검조사 시, 부품 실물 및 재료 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양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물질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정보 관리 신규 고위험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대체물질 파악 및 적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환경설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부터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동향 및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협력사 자체 유해물질 규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내 유해물질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IMDS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IMDS 데이터의 정합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 및 이니셔티브 선제 대응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기준,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제한 규제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체물질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선도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폐차규제(ELVR: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및 화학물질규제(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개정·강화에 대응하여 고위험 물질에 대한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중추신경계 손상, 면역체계 교란 등을 야기하는 등 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금지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규제가 논의 중인 과불화 화합물(PFAS)에 대해서는 유럽 예상 규제시점인 2027년 이전 사용금지를 목표로 대체물질 및 규제 물질 사용 현황 파악, 대체물질 적용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정부에서 사업장 대상 PFAS 규제 시행을 발표한데 이어 배출량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료 성분 분석 등을 통해 PFAS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대 중금속 집중 관리 현대자동차는 2003년 7월, EU 폐차(ELV: End-Life Vehicle) 규제로 EU시장 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인체에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이하 4대 중금속)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브롬계 난연제와 같은 고위험 물질 사용 역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2002년 12월에 제정한 유해물질 자체 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유해화학물질 ZERO 추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화학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자체를 줄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장 시설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함께 대체품 개발에 힘쓴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약 90% 저감하였으며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Zero 사업장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 저감

BUSINESS CASE

사업장별 환경개선 활동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사업장별 정량적 환경 지표들에 대한 개선을 추진과 동시에 정성적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사업장별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활동들도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사업장의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사업장들의 환경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장별 환경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울산공장 단일공장으로 최대 공장인 울산공장은 단위 공장들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대 환경사고 사전 예방 및 환경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울산공장 내 오폐수 집수조, 절삭유 집중탱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악취 측정기 등 총 808개의 환경사고 고위험 설비를 대상으로 Io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설비들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대 환경사고 '0'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공장에서는 기업가치 상승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 합동 ESG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경영 결의와 플로깅(Plogging) 등 환경문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공장 자체 환경 홍보물을 발행하여 전 직원들에게 환경경영방침과 ESG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전달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최 환경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여 환경보존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높은 재활용 비율과 매립 최소화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과학 인증기관 UL 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대외 인증에서 가장 높은 Platinum 등급(재활용률 100%)을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ZWTL 인증은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확인하여 실질 재활용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아산공장은 자동차 프레스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재활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엔진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 및 폐알루미늄을 엔진 생산 원부재료로 전량 재활용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질 재활용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사업본부 국내사업본부는 하이테크센터 환경 법규 리스크 선제 대응 및 하이테크센터별 환경 업무 역량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환경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 중고차 센터 환경 관리 토탈 케어를 지원하며 하이테크센터의 환경 법규 준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리 업무 표준화 및 정형화된 업무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환경업무 실무 매뉴얼 가이드북, 환경업무 표준 타임테이블 캘린더, 환경 점검 비밀노트 등을 제작하여 각 하이테크센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미국생산법인(HMMA) 미국생산법인은 EV/HEV차종 양산 시작에 따라 양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고전압 폐배터리 회수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부서(생관/품관/안전 등) 간 협업을 통해 폐배터리를 분류 및 이송하고, 외부 재활용 업체를 통해 95%의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탄산리튬, 코발트 등 원소재를 추출하여 재사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프로세스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권역본부 (HMCSA) 브라질생산법인은 ESG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자동차 회사 최초로 폐기물 관리 책임 기업 인증(Responsible Company Certification), 폐기물 제로 인증(Zero Waste Institute), 사회적/환경적 기업 책임 인증(PROCERT)을 취득하였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제도(GHG Protocol)에서 Gold 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체코생산법인(HMMC) 체코생산법인은 공업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도장 공장 내 순수제조설비 RO(Reverse Osmosis)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RO 설비에서 사용된 깨끗한 폐수를 고압 세척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연간 공업용수 약 1,728만 리터와 약 91,238 유로를 절감하고, 오염수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인도네시아 국영전기공사(PLN)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RE100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 평가제도 PROPER에서 환경법규를 100%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BLUE등급을 획득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광저우생산법인(HTWO) 광저우생산법인은 중국 환경 법적 의무를 100% 이행하고, 6가지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통해 광저우시 생태환경국 주관 2023년 기업환경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녹색등급을 받았으며, 환경보호 성실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멕시코생산법인(HYMEX) 멕시코생산법인은 기존 설비 노후화와 트레일러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수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장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pH 측정기, 유량계 등 노후화된 수처리 장비를 교체하고, PLC, 유속 조절기 등 자동화 신규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근 상수도를 보호하고, 도장 부스 처리수 재활용을 통해 연간 약 $30,00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한 싱가포르 정부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와 협업하여 자연순환형 수소 생태계를 연구하며 수소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



3

1 울산공장 노사합동 환경경영(ESG) 워크숍
2 브라질생산법인 폐기물 관리 책임 기업 인증 취득
3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태양광 패널

생물다양성 보호

생물다양성은 인류와 동식물 등 지구상의 생명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이 인류의 식량 안전, 보건, 대기, 수질, 원자재 공급 등 자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사 'Colorful Life' 캠페인을 기반으로 자연생태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의 고위험종 보호, 육지와 해양 생태계 재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추가 손실을 막고 순증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

생물다양성 보호 체계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정 현대자동차는 2022년,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 동식물 관리, 자연서식지 보존, 산림·토양·수자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본 생물다양성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영향 평가 및 보전·복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생물다양성 복원 및 증진에 관한 공약, 생물다양성 정책 선언 및 제·개정, 생물다양성 평가 및 영향저감 활동 수립, 산림파괴방지 및 재조림 프로젝트 등은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또는 경영진(C-Level)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을 신축·증설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이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자, 국가별 관련 법·규제에 근거하여 대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동식물상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주요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산법인에서는 동식물상 분포와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생물종 및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도, 각 사업장별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비영리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생물종 및 개체 서식 현황 조사 방법 (사진 촬영, 지점 조사, 현장 탐방)

생물다양성 평가 - 동식물상 분포 조사 및 영향 분석

① 생물종 및 개체 선정 사업장의 운영방식, 운영규모, 인근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과 생태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생물종 및 개체를 선정합니다. 특히, 멸종위기동물, 보호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및 국제협약에서 보전·보호가 지정된 생물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조사 지역(범위) 설정 사업면적 장축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경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을 조사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동식물상의 이동경로, 행동반경, 식생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확장하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③ 조사 방법(수단) 정의 탐문조사, 문헌조사, 청문조사 등 지역 생태계 지리와 생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동식물상의 활동 지역, 시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육안 관찰, 현장 탐방, 사진 촬영, 음향 탐지, 지점조사, 트랩 설치 등을 통해 생물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합니다.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 생물종 확인 방법, 법적보호종, 고유종, 관찰 및 확인된 개체수 등 특징 정보로 관리합니다.

④ 영향 예측 및 분석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대기·수질·토양 오염, 소음 및 진동 발생 등이 생물종과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합니다. 영향 예측 시 사업장 신축·증설·운영 등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생물종과 개체수에 예상되는 변화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형태로 서술합니다. 특히, 사업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생물종 및 개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영향을 예측하며, 인위적 간섭에 민감한 생물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⑤ 저감방안 수립 생물종 및 개체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측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상 생물종과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저감방안을 수립합니다. 중대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변경, 사업운영 일정 조정, 대안 방안을 마련하며, 환경 오염을 제거 및 최소화하도록 저감장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주요 서식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될 경우, 대체 서식지 및 식생대를 조성하거나, 생태통로 등 인공적 공간을 마련합니다.

전사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2022년 UN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생물다양성 추가 손실을 막고 2030년부터 순증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목표를 기반으로 EU 등 주요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추가 손실 방지를 넘어 순증가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전략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EU는 산림벌채를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며 산림벌채금지법(EU DR: Deforesta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24년 12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는 농업, 임업, 축산업의 토지사용이 산림손실을 초래했다고 점을 감안해서 산림벌채금지법 기반으로 향후 산림벌채와 연관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EU 역내 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우선 적용 품목으로 팜오일, 소, 커피, 나무, 코코아, 고무, 대두 등 7개 농산물과 가죽, 가구, 종이, 고무타이어 등 관련 파생상품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림벌채와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여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EU 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향후 EU는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사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ESG기획팀과 전사 리스크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BRM (Business Risks Management)실이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산림벌채 금지법의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된 가죽과 고무의 경우 차량 내 시트, 타이어 부품 등에 적용되고 있어 향후 산림벌채 연관된 고무 및 가죽 원소재 사용 시 해당 원소재의 유럽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관련 부품 조달 지연, 중단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리스크 식별 측면과 리스크 사전 예방 측면 등 2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EU 산림벌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측면에서는 가죽, 고무 소재 사용 부품 협력사 대상으로 입찰 시 원산지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 정보를 기반으로 고위험 국가 소싱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가죽의 경우 LWG(Leather Working Group)에 가입한 가죽 원단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인조가죽 적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무의 경우 고무타이어업체와 협업하여 산림벌채에 무관한 천연고무 확보/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EU가 고위험 국가로 평가한 국가들 소싱에 대해서는 실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가죽 및 고무 부품에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전사 Colorful Life 캠페인 시행

환경공헌활동 'Colorful Life' 현대자동차는 전사 CSV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사업장에 CSV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을 사업장 환경공헌활동의 메인 테마로 정하고 전사 생물다양성 보호 캠페인인 'Colorful Life'를 론칭했습니다. 'Colorful Life'는 생물(Life)의 다양성(Colorful)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이 우리 삶(Life)의 풍요로움(Colorful)과도 연관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테마로 하는 CSV 활동 사업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남양연구소, 남부하이테크센터 - MBTI 연계 멸종위기종 전시 양재 사옥 사업장에서는 임직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동식물을 MBTI와 연계한 전시 행사와 에코브리티 박진희 배우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였습니다. 남양연구소는 연구소 내부, 남부하이테크센터는 사업장 인근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본사와 같은 MBTI 연계 멸종위기종 전시 플랫폼을 적용하여 'Colorful Life'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산공장 - 울산 보호 야생동물 리플릿 발간 울산공장은 멸종위기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태화강보전회와 협력해 울산시가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 57종을 소개하는 '울산광역시 보호야생생물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리플릿은 생물다양성센터 및 울산시 교육청에 배부되어 울산시민과 초등학생들 교육 목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 영인산 수목원 나무 식재 아산공장은 2019년부터 아산시 소재의 영인산과 1社 1山 결연을 맺고,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인산 '현대차 숲 만들기'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탄소저감 우수 수종인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 멸종위기종 식물 보전사업 전주공장은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식물보전센터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광릉요강꽃(멸종위기종 I급)'과 '날개하늘나리(멸종위기종 II급)' 보전을 위해, '생물종 관찰 카메라, 보호휀스' 등을 설치하고, '신규 서식지 조사, 종자 채집, 파종' 등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재 본사 Colorful Life 토크 콘서트 (박진희 배우)



양재 본사 Colorful Life 전시 (MBTI 연계 멸종위기동식물)

생물다양성 보호 접근방식 및 주요 활동

접근방식	추진 주요 활동
회피 (Avoid)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축·변경·증설을 추진하기 전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업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동식물상)을 포함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 자연자본 전체에 미칠 영향을 선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또는 제한·보류 결정함
저감 (Reduce)	• 축열식연소장치(RTO)·집진장치·무방류 시스템·수용성 도료 사용 등 사업장의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설비의 적극적 도입 추진 •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의 환경 부정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산성화·부영양화·광화학 산화물 생성 부문에 대한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LCA) 시행 전기차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LCA)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발자국을 최대 약 67%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2045년 전기차로 100% 전환 추진 • 차량 배출가스 감축 위해 GPF(Gasoline Particulate Filter), DFP(Diesel Particulate Filter) 등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적용
변경 (Transform)	• 민관협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 신기술 개발·확산 추진 - 현대자동차와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삼자 협약을 통하여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도입, 해당 지역의 식재사업 추진 - 브라질 TNC(The Nature Conservancy)와 상파울루 주립대학교 숲과학부와 함께 숲 복원 신기술(Green Field 등) 개발 위한 연구림 조성 및 신기술 확산 추진
복원 (Restore)	• 멸종위기에 처한 고위험종과 기후변화 위기종에 대한 복원 추진 - 동물 복원: 울산시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과 협업하여 태화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해 종 보존 및 복원 추진 - 식물 복원: 홍천지역의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백합나무 복원 사업에 이어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하여 덕유산에서 광릉요강꽃, 날개하늘나리 등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식물 복원사업 추진
재생 (Regenerate)	• 육지·해양·연못 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추진 - 육지 생태계: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을 통해 한국/남미/북미/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2025년까지 100만 그루 나무 식재하여 숲 재생 추진 → 육지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를 위한 서식지 확대 (육지생물 80% 숲에 서식) - 해양 생태계: Healthy Seas와 협업하여 2025년까지 유럽(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한국에서 해양 쓰레기(폐그물 등) 총 230톤 수거 활동 추진, 해양어종 회귀 등 해양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 - 연못 생태계: 인도공장이 위치한 체나이지역에 메말라가는 2개의 연못 재생 사업 추진,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인 연못 재생 통해 연못에 주로 서식하는 생물종 복원 및 개체수 증대 유도

구분	측정 지표	추진 목표	추진 실적	목표 달성 세부 전략
육지 생태계	• 재생 면적 • 숲 조성 위한 나무 식재 수	• 재생 면적: 2025년까지 총 650헥타르 육지 생태계(숲, 초지) 재생 • 나무 식재: 2025년까지 100만 그루 식재	• 재생 면적: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88헥타르 숲, 초지 등 육지생태계 재생 완료 (목표 대비 90% 달성, 2023년 309헥타르 재생 완료) • 나무 식재: 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8,582그루 식재 완료 (목표 대비 50% 달성, 2023년 268,319그루 식재 완료)	• 한국 중심에서 미국, 브라질, 체코 등 당사 생산공장이 위치한 주요 국가들에서도 아이오닉 프로젝트 전개 등 아이오닉 포레스트 글로벌 시장 확대 전개를 통해 목표 달성 추진
해양 생태계	• 폐어망 포함 해양 쓰레기 수거량	•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 230톤 수거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내 8개국과 한국, 미국에서 약 35회에 걸쳐 누적 106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완료 (목표 대비 46% 달성, 2023년 폐어망 중심으로 1.75톤 수거 완료)	• 유럽 8개국 외에 한국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추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 확대 통해 목표 달성 추진
연못 생태계	• 재생 연못 개수 및 면적	• 2023년까지 총 1.4헥타르 면적의 2개 연못 재생	• 2023년 총 1.4헥타르 면적의 2개 연못 재생 완료, 연못 생태계 재생과 함께 물 저장 잠재력 약 1,4000만 리터 물 확보 (목표 대비 100% 달성)	• 2022년 인도 하리아헤라, 팔라솔리, 타자거 지역의 3개 연못을 재생한데 이어, 2023년 첸나이지역 2개 연못 재생 완료 등 인도 지역별 연못 재생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BUSINESS CASE

울산공장 –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생물다양성 평가 개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전기차 신공장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인근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울산공장은 0.07km 반경 내 태화강이 위치해 있으며, 태화강 하류 일원은 철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 상류는 울산지역의 식수원이며 산업용수의 근원입니다. 울산공장은 단일공장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공장으로 냉각, 세척, 도장공정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통해 태화강 중심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와 출현 현황을 조사하고, 신공장 준공 시 태화강을 포함한 울산공장 인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평가 구역

생물다양성 평가구역은 사업지구(울산공장) 인근 2.2km 내외 지역으로, 태화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비롯해 울산공장 남측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대를 포함합니다.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평가구역의 식물상(식생) 그리고 동물상(조류와 법정보호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주변 지역의 동식물종 현황 및 개체수 분포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완화(유지-복원-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평가 방식

식물상 및 식생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식물상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식생은 직접 방형구를 설치하여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류 조사구역에 서식하는 조류의 활동반경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1km/30min 속도로 보행하며 쌍안경으로 현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조류를 동정, 기록하는 선조사법(Line Census Method)과 한 장소에 10분간 머무르며 현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종을 기록하는 정점조사법(Spot Census Method)을 병행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생물종 및 개체 서식 현황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식물생 및 식생은 수역에 가장 많이 분포(80%)하며, 동물상(조류)은 33종 5,453 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장조사 시 울산공장으로부터 38m 떨어진 지점에서 참매 1종이 발견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식별된 황조롱이, 소쩍새 등 법정보호종 7종이 주변 수계를 먹이활동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존 식생별 면적분포 현황

식생유형	조사지역	
	면적(㎡)	비율(%)
수역	1,899,253	80.20
물억새군락	153,026	6.46
물억새-갈대군락	52,402	2.21
단경초원	89,196	3.77
도로, 건물 및 나대지	98,431	4.16
기타	75,606	3.20
계	**2,367,914**	**100.0**

조류의 과(Family)별 출현 현황

과(Family)	종수	비율(%)
오리과(Anatidae)	12	36.36
갈매기과(Laridae)	3	9.09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2	6.06
까마귀과(Corvidae)	2	6.06
할미새과(Motacillidae)	2	6.06
백로과(Ardeidae)	2	6.06
수리과(Accipitridae)	2	6.06
기타 과(Family)	8	24.25
계	**33**	**100.0**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식물상 및 식생 전기차 공장 신설 부지는 자연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경수목 외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은 없으며, 주변 지역(도심) 특성상 식물상 및 식생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분진 등 광역적 오염원은 사업장 인근 목본이나 초본류의 잎에 집적되어 광합성 및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상동물상(조류) 이동 능력이 우수한 분류군 특성상 일부 공정 과정으로 인위적인 교란이 발생할 경우, 주변 수계(태화강) 및 하천변, 초지지역, 산림 등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회피하여 종 및 개체수의 소실 등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산먼지나 강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수계(태화강)로의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정보호종(고위험종) 현지조사 시 출현이 확인된 참매를 비롯하여 문헌조사 결과 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법적보호종은 6종입니다. 신공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보호종 6종의 먹이원이자 서식지인 태화강 하천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요구됩니다.

완화 조치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아래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추진

- 살수차량 운행, 세륜·세차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공사차량 속도 제한
- 토사 임시 적치 시 거적 및 비닐 도포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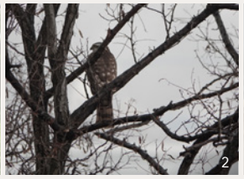
2) 야간조명 사용에 따른 영향 최소화

- 사용목적,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 옥외 조명 설치 최소화 (이격거리 지정)

3) 흰목물떼새(법정보호종) 보호 활동 강화

- 태화강 보전 사업 추진: 태화강은 흰목물떼새를 포함한 조류들의 서식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3월 태화강보전회와 태화강 환경보전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후원 기금으로 6,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태화강보전회의 정기적인 수질 조사, 생태계 현황 모니터링, 환경오염감시활동,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울산시 철새 보호 프로그램 참여: 울산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울산철새보호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흰목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정하고 흰목물떼새 보전 캠페인, 서식지 정화 및 보호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1 생물다양성 평가 현장조사
2 평가구역 내 조류 출현 현황 - 참매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3 법정보호종인 흰색물떼새




Social

* 현대자동차 친환경 CSV 프로젝트 '아이오닉 포레스트'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사회를 위한 올바른 변화를 함께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로 인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3.2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3.3	지속가능한 공급망
3.4	고객경험 혁신
3.5	공유가치 창출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현대자동차는 인권·노동과 관련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와의 협업 하에 인권경영 주요 과제를 선정,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매년 사업장 및 협력사 인권 실사를 시행하여 잠재적·실재적 인권 리스크를 발굴하고 적합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는 인력운영 및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시 채용 및 직원추천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자발적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합니다. 중장기 사업목표에 맞춘 성과평가와 공정한 보상,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업무환경 개선 및 다양성 증진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

인권경영 추진 방향

현대자동차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하여 글로벌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권경영 추진 체계는 총 5가지 항목(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각 항목별 현황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여 인권경영 주요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HR, ER, 법무, 구매 등 유관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부 관리

인권경영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해 ESG, HR, ER, 법무, 구매, 안전 등 다양한 유관 부서 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협력사 실사를 통해 식별된 각 사업장/지역 별 인권 리스크는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됩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인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센싱/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성

	내부 관리				
	거버넌스	교육	인권선언 (Policy Commitment)	인권실사 (Due Diligence)	구제절차 (Remediation)
	인권 주제별 관리체계 구축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글로벌 인권 원칙준수	잠재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예방	인권 피해 발생 시 즉각 조사
현황	• 인권 유관 조직 및 국내외 사업장 대상 KPI 부여 추진	• ESG 교육 콘텐츠에 인권 포함	• 인권헌장 제정 및 공개 (국/영문) • 다양성 정책 제정 및 공개 •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선언	• 사업장 및 협력사 실사 진행 (인권/윤리/환경/안전)	• 임직원 고충접수 채널 운영 (One Click HR 등)
계획	• 인권경영 협의체 구축 및 지속 운영 • 인권 KPI 확대 운영	• 인권원칙 기반 글로벌 정기 인권 교육	• 국내외 글로벌 사업장 대상 인권헌장 원칙 전파 (각국 현지어 번역 포함)	• 진단실사 결과 기반 개선조치 사항 지속 모니터링 • 인권영향평가 수행	•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데이터 공개 확대

인권경영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층: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ESG위원회 → 최고경영층 (C-Level) → 현대차 인권 관리 조직

실무

ESG	HR	ER	안전보건
윤리경영(법무)	구매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사업장

조직별 역할

부서	역할	부서	역할
ESG 기획팀	• 인권경영 전략 수립 및 개선과제 추진 • 국내외 사업장 인권 실사 수행 • 인권 관련 평가 대응 및 공시	법무	•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경영 활동
HR	• (국내/해외) 임직원 고충/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신고 조사 및 후속 조치 •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활동 수행 • 불합리한 채용 차별 예방 활동 수행	구매	• (국내/해외) 협력사 인권 실사 수행 및 지원 • 협력사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 협력사 고충 접수 및 관리
ER	• 국내외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개인정보 보호	• 임직원/협력사/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현대/제네시스 프라이버시센터 운영
안전보건	• 사내 안전 관리 및 임직원/협력사 재해 예방, 사고 처리	각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내 개별 사업장 임직원 인권 보호 활동

R&R 체계도

인권경영 체계 / 이해관계자	인권정책 제·개정/가이드	인권 교육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고충접수채널 운영 및 구제책 모니터링			목표 수립/인권 보호 활동
임직원	ESG/법무	HR (국내/해외)	ESG	HR (국내/해외)	ESG	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HR (국내/해외)	인권경영 주요 유관 부서
협력사		구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인권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인권헌장 원칙 준수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 관련 교육과정은 총 24개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경영 개념, 인권침해 사례, 인권관련 법제화 및 산업 동향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고려하여,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전사적 인식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팀장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외 법인장 및 주재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인권헌장 원칙에 기반한 정기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를 신설하여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더욱 제고할 예정입니다.

협력사 대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 '분쟁광물 관리 절차'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인권 리스크 관리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 내용에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근로시간 관리 등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인권경영 기본원칙도 포함되었습니다. 협력사 ESG 설명회에는 총 427개 협력사의 담당자 1,8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취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실태 고려,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약 70,000명(일반, 연구, 법무, 기술, 정비, 영업직 등 전 임직원)
-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피해 근로자 보호 방안, 괴롭힘 대응 조치 등
- **방식** 직군별 교육 방식 차등 운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인권 선언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인권헌장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정기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에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자격, 차별 방지에 대한 약속 등 인권경영 내재화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국내·외 생산·판매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인권침해 신고 처리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환경권 보장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인권 관련 최신 이슈 및 국제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시의적으로 반영하여 인권헌장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현대자동차는 직장 내 차별·괴롭힘·성희롱 관련 이슈 및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자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에 따라, 상호 간의 다름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거부하는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 본사, 연구소,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등 국내 사업장, 유럽, 북미, 중남미, 인도, 중국 등 해외 권역본부 및 산하법인, 연구소 등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90% 이상을 포괄합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정교화/고도화할 예정이며, 출고센터 및 자회사 등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전 생산법인 100% 커버리지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임직원 구성 현황, 사업운영 방식 및 지역,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력, 공급망으로부터 조달 받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직원, 지역사회, 여성 및 아동, 이주/계약 노동자, 협력업체를 주요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신규 사업 관계(합병, 인수, 신규계약 등)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ESG 체크리스트 검토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설계 현대자동차는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와 평가 대상에 잠재되어 있거나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인권헌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의 매뉴얼, 동종사 Best Practice 등을 참고하여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인권 관련 접수·처리된 고충 유형 발굴, 임직원으로부터 의견 청취,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당사만의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권 관련 교육 실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국내)

교육 대상자 수: 약 70,000명

교육 참여율: 약 98.45%

협력사 ESG 온라인 교육

참여 협력사 수: 427개사 (1,830명)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1. **지표 설계** —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국내외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1] 등을 종합·분석하여 차별화된 지표 설계
2. **서면진단** —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잠재 인권 리스크 또는 부정적 영향 요인 파악
3. **현장실사** — 서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리스크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4. **결과 분석** — 서면진단/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리스크 정의, 사업장 지역별 리스크 특성 등 시사점 도출
5. **개선조치** — 각 사업장은 리스크 유형별 최적 개선방안 수립, 실질적 리스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행 현황 점검

[1]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 가이드라인, CHRB, Drive Sustainability 등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수행하기 전, 국가별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외 기관 및 언론의 조사자료, 산업 이니셔티브의 문헌자료, 사업장 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청취 등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는 사업장별, 계층별 진단·실사 지표를 차등하여 적용하거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국내는 협력업체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과 단체교섭권 측면에서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이주/계약 노동자 및 여성/아동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현대자동차는 당사 사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에 따라, 설문 형식으로 서면진단을 시행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 시에는 각 사업장의 원활한 답변 작성을 위해 진단 기준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을 통해 파악된 잠재 리스크는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합니다.

2023년에는 총 28개 항목에 따라 서면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장 내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면진단 지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지표

1. 거버넌스 및 인권정책	
1-1	인권정책
1-2	인권경영 책임
2. 인권존중과 인권실사의 내재화	
2-1-1	인권관리자 인센티브 및 성과관리
2-1-2	정책의 배포 및 소통
2-1-3	지역주민 인권 보호
2-1-4	사업 파트너 인권경영 유도
2-1-5	교육
2-2-1	인권 리스크 및 영향 식별
2-2-2	인권 리스크 조치 및 효과 추적
3. 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3-1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 채널
3-2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 절차
3-3	외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메커니즘
3-4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설계/이행/개선 참여
3-5	부정적 영향의 구제
3-6	고충처리 제도 관련 데이터 관리 및 효과성 평가

4. 기업 인권 관행	
4-1-1	임금
4-1-2	아동노동 금지
4-1-3	강제노동 금지
4-1-4	근로 계약
4-1-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4-1-6	여성의 권리
4-1-7	근로시간
4-1-8	복리후생
4-1-9	책임감 있는 광물조달
4-1-10	징계
4-2-1	직무상 비차별
4-2-2	고용상 비차별
4-2-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 잠재 위험 ○ 낮은 위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준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환경권 보장
국내							
임직원	○	●	○	○	●	○	○
협력업체	○	●	●	●	●	○	○
지역사회	○	○	○	○	○	●	●
여성	○	●	○	○	○	●	○
해외							
임직원	○	●	○	●	●	○	○
이주/계약 노동자	●	●	●	●	●	●	○
협력업체	●	●	●	●	●	○	○
지역사회	○	○	○	○	○	●	●
여성	●	●	●	○	○	●	○
아동	●	○	○	○	○	●	○

인권 리스크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서면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 지역, 운영형태, 근로자 구성, 지역사회 영향 등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잠재 인권 리스크가 확인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현장실사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장 실사는 HR·안전·조직문화 등을 담당하는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법률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문서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장치·환경설비 등의 근로환경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순회도 진행합니다. 특히 임직원 고충 청취 및 인권 리스크 식별을 위해 각 사업장별 임직원 및 담당자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실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더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 리스크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단위: %)

구분		결과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1]	100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17
	개선조치 및 개선활동 이행 비율	100
협력사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100
	리스크 발견 사업장 비율[2]	8.1
	개선 조치 적용한 비율	100

[1] 인권 리스크 평가 수행 사업장 수 /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사업장
* 국내: 현장근로자 존재 사업장, 해외: 본사 지분 90%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2] 리스크 발견 사업장 비율 = 리스크가 식별된 1차 협력사 수 118개 ÷ 서면평가를 받은 1차 협력사 수 1,454개

사업장 인권실사 협력사 인권실사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국내외 전체 사업장의 지표 준수율은 약 80%였으며, 작년 대비 고도화된 평가 지표를 활용함에 따라 지역별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은 소수자 보호 등 차별금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신고하거나 대응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중국 지역은 국가 단위 법·제도, 사회적 관습,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경영 이행 과도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사업장 및 합작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58개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이 중 해외는 북미·중남미·유럽·인도·중국 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사업장입니다. 실사를 통해 지역별 인권경영 추진 현황과 잠재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개선 조치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영역별 결과 분석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정책·시스템 측면에서 국내를 포함한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견된 사항들은 각 사업장 단위의 실질적인 인권 침해 이슈라기보다는 본사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전파·교육이 선행되면 충족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리스크가 식별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의 경미한 리스크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글로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헌장 원칙을 배포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한 깊이 있는 인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리스크 개선조치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각 사업장은 개선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추진시기, 추진방식,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각 사업장이 개선과제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규정·제도 개선 또는 대규모의 투자 및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사 단위 과제로 상정하여 중장기 관점의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고도화 계획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 리스크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사업운영 영향력이 높은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단·실사 지표를 고도화할 것이며, 진단·실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 리스크가 확산·전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평가 지표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여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서면진단 및 일부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리스크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지역의 생산법인 위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기적인 인권 실사를 통해 사업장 내 실질적인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유럽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성별·민족·연령·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 리스크 발생 시 임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를 통해 법인별 인권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인권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및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북미

연방법 및 주(州) 행정법 상 인권보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민족·인종·성적 지향성 등 소수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임직원 전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동 관련이슈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이 규제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를 통해 인권 전담 조직 지정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채널 확대 등의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미흡하지만 사내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차원에서 산전후휴가 보장 및 사내 탁아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차별 금지와 평등한 권리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내 다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업의 성희롱예방의무를 도입한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내 규정 정비(징계포함) 및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심리 상담, 조직 진단 등을 위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리스크 조치사항



인권 선언

국내외 전 사업장·임직원 대상
글로벌 인권헌장 원칙 전파



구제 절차

해외사업장 고충처리 시행세칙 내
이의제기 절차, 신고인 보호 조치,
보복 금지, 익명 보장 관련 항목 보완하여
문서 개정 검토

인권 관련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교육 대상자 설문)

교육명	주요 피드백
윤리경영 신임팀장과정	• 실제 사례 기반, 윤리경영 이해도 향상 - 케이스 스터디를 활용한 조별 토론 (57.4%) - 윤리경영 이해도 제고 및 리마인드 (26.2%)
윤리경영 해외과정	• 긍정 의견 (70%), 개선필요 의견 (19%) - 긍정: 인권/윤리경영 이해도 제고, 윤리적 민감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개선필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구제 절차

인권 고충처리 현대자동차는 차별, 괴롭힘, 성희롱,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뿐 아니라,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안을 접수-처리-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은 우편, 핫라인,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여 제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충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 제보로 인한 보복·신분노출·인사상 불이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진행하며, 필요시 고충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제도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합니다.

현대자동차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본원칙 31' 등을 참고하여, 고충 접수, 조사, 처리,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고충처리 절차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2023년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 총 접수 건 59건
- 처리 완료 건 59건
- 고충 처리율 100%

* One Click HR을 통해 접수된 건 한정(국내)

고충처리 절차



전략적 인사관리

인재채용 및 운영

인재채용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지원자 관점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공채와 수시채용의 장점을 흡수하여 예측가능한 상시채용을 도입하였습니다. 경력채용의 경우 월간 채용, 신입채용은 분기별 채용을 진행하여 지원자들이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학생은 물론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가 요구하는 역량, 자격, 기술 등 전문성을 사전에 정의하고,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현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중심의 우수 인재를 적시에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채용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담당 HR부서와 현업부서 등 채용 관련 의사결정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이후에는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점검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이슈가 발견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 선발의 공정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지원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내부 채용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재 확보 전략 현대자동차는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신사업 및 신기술 분야 인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재 소싱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싱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전략에 맞는 선제적 인재풀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외부 우수인재와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Tech 기업으로서의 채용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현업부서 인력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내의 우수인력 중심으로 적시에 충원이 가능하고 임직원에게는 새로운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은 경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부서와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와 인터뷰 등 평가 절차를 통해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정착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이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제도 현대자동차는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를 위해, 일반직/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 기반의 성과 평가와 상시 피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소속 조직의 목표에 따라 연간 주요 수행업무 및 목표를 관리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연중 성과관리를 실시합니다. 리더와 구성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 연말 평가에 활용합니다.

360° 다면평가 현대자동차는 리더 대상의 '리더십 다면진단(Leadership Surround View)'과 직원 대상의 '동료 피드백(Peer Surround View)'을 통해 건전한 피드백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더십 다면진단'은 매년 1회, 리더십에 대한 360도(본인/상사/구성원/동료) 피드백을 통해 리더의 객관화된 자기인식과 리더십 개발을 지원합니다. '동료 피드백'은 상/하반기 각 2개월 정도 상시 운영하며, 협업 동료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성장 및 조직의 협업문화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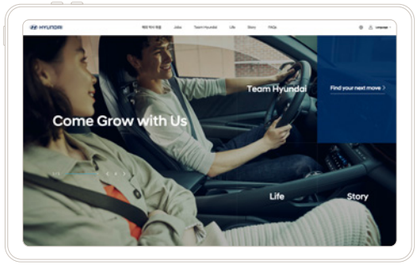
상시 피드백(View-T)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의견 교류 및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피드백 제도(View-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업무 계획 및 진행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리더는 구성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 조직 기여 등 업무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드백합니다. 상시피드백 제도를 통해 리더와 팀원 간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 사항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리더의 공정한 성과관리와 구성원의 동기부여, 성장/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성과보상 체계 현대자동차는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변동급(성과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의 인상폭은 대내외 경제여건, 시장상황,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조정합니다. 기본급 설정 및 그 인상에 있어 임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기반 보상 모든 임직원의 변동급여는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됩니다. 성과평가 기반의 변동급 외에도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 보상 모든 임직원의 변동급여는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됩니다. 성과평가 기반의 변동급 외에도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업무몰입도 제고, 사업목적과 개인의 가치를 일치시키고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지급한 회사출연 우리사주는 980,120주이며, 모집한 개인출연 우리사주는 318,318주로 총 1,298,438주입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지급한 총 3,937,894주(지분율 1.86%)입니다. 당사 전체 인력의 약 90%인 정규 직원은 모두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 매입제도의 대상입니다.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

인재육성 및 전문역량 확보

현대자동차는 미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제도와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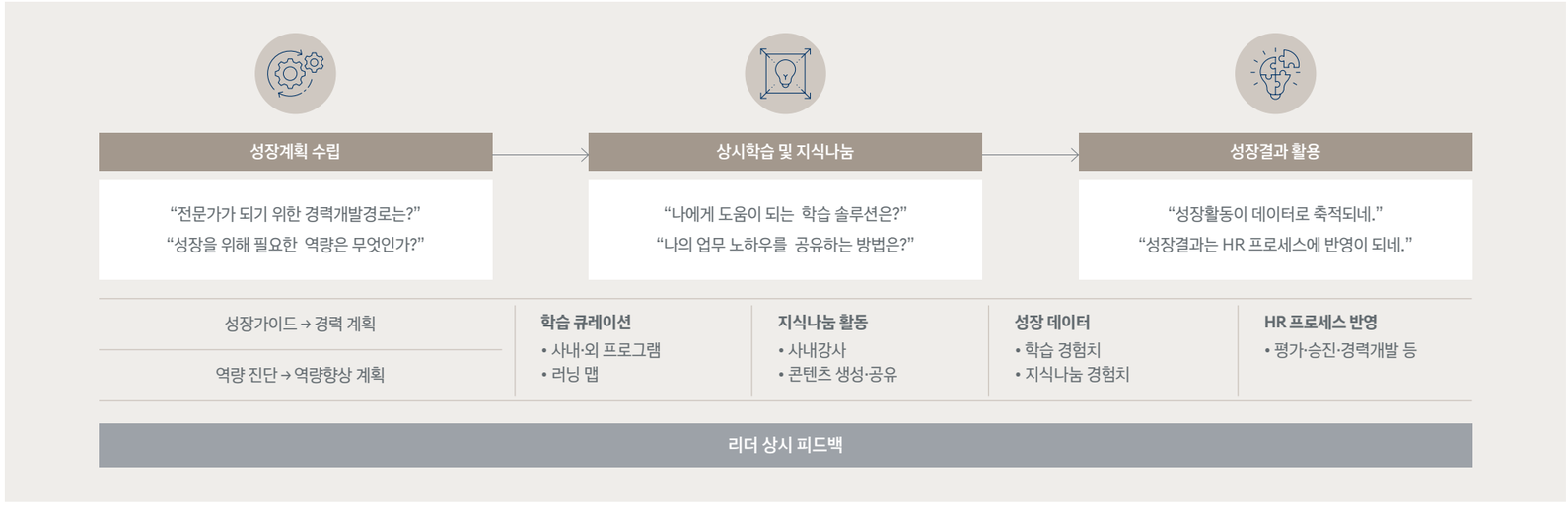
신성장제도는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성장가이드와 역량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력개발 및 역량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과 지식나눔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성장 플랫폼과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재를 해외 거점에 파견하여 글로벌 현장조직을 리드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닝라운지(Learning Lounge)는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임직원이 미래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학습 솔루션을 추천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약 1만 2천 건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여 임직원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러닝랩(Learning Lab)은 임직원 간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공통된 주제를 습득하는 연구회입니다.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학습 내용, 시간, 장소, 참여자를 결정하여 역량 강화와 성장문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치 측위 고도화 기술 탐색, 빅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러닝라운지·러닝랩 제공 교육 (단위: 개)

	제공 교육, 강의 및 러닝랩
회사 관련	경영/전략 (389), 상품/자동차 기술 (969), 개발 프로세스 (28), 조직 및 기업문화 (704)
리더십 관련	상시학습 (1,142), 정규학습 (888)
직무 관련	품질/생산 관련 (1,982), 연구개발 (2,506), 전략기술/ICT (580), 사업 관련 (2,062)
법정교육	준법/보안 (169), 화재/안전 등 기타 (624)
사외교육	오프라인 강의 (463), 이러닝 등 온라인 (260)

신성장제도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우수 전문 기관과 함께 '파견형 공동연구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R&D 미래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완성차 및 선행기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전파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내재화와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성과

신기술 개발	현업문제 해결	특허 및 논문	연구성과 전파	참여율
31건	25건	37건	41건	100%

고객 중심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고객 중심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경험 관점의 판매, 고객응대, 서비스 부문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전동차, 고급차), 고객 응대 스킬 강화(CS, CRM) 교육을 통해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승용/RV 부문에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승용 30년 연속, RV 20년 연속 수상은 물론, 최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형 및 신설된 전기차 부문에서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명, %)

	참여자 수	참여율
카마스터 정규 과정	1,821	99.5%
구독형 스트리밍	4,526	100.0%
합계	**6,347**	**99.9%**

* 국내 기준

리더십 및 직무역량 교육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철학 구현에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고 리더 대상 고객 중심 마인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체계, 구성원의 혁신적 마인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등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등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석사휴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업무 관련 전공이나 MBA를 포함한 전일제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근속 3년 이상의 직원에게 최대 2년간의 휴직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더십 및 직무역량 온·오프라인 교육 (단위: 개, %)

	제공 과정 수 (온·오프라인)	학습시간 비중
리더십	750	7.2%
직무	22,698	68.4%
조직문화	469	5.4%
온보딩	284	14.3%
기타	361	4.7%
합계	**24,562**	**100%**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해 인권·안전·환경·품질 분야의 ESG 교육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업무별 담당자 특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마인드셋 구축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단위: 개)

	인권	안전	환경	품질	합계
운영 교육 개수	24	1,304	930	845	**3,103**

* 러닝라운지 내 키워드 검색 시 조회되는 교육 개수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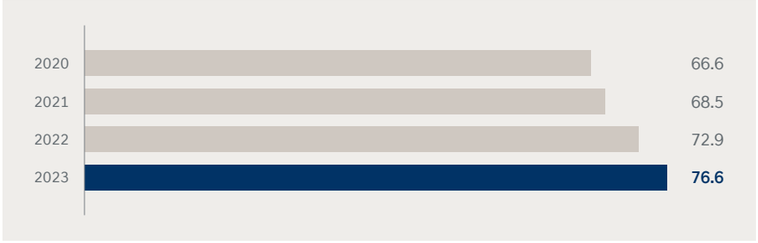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높은 몰입도가 기업의 성과와 인재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지표는 '개인'의 긍정 경험을 중점으로 '일' 만족, '조직' 만족, '회사' 만족 영역에 대하여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체 임직원의 80.6%가 조직문화 진단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점수를 경영층의 KPI에도 5%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리더십과 직원 참여를 결합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변화혁신 담당자를 정하고, 담당자는 리더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현대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언제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 업무에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3,458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총 18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혁신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장소가 아닌 일에 몰입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H-Work Station' 거점 오피스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반영합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단위: 점)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국내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협의체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매년 임금교섭(보충교섭) 및 노사협의회(부문별, 사업부/지역별 협의 포함)를 통해 임금 및 별도 근로조건 개선 사항을 성실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간부사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중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미래변화대응TFT 및 고용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 변화에 대한 사전 노사 공감대 형성 및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성숙된 노사관계 안정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신뢰도 향상 및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5명의 전문가로 5기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 내 변화가 가속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기 자문위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사 간 의견 대립 시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체코, 브라질, 인도 법인입니다. 중국지역 해외법인은 노동자 대표조직인 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현지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정기적 혹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 간 합리적이면서도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미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법인, 브라질법인, 인도법인 등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인한 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교섭방식은 상이하며, 특히 브라질법인은 산별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별도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인 자체적으로 근로자 협의체 운영 혹은 직원대표 선임을 통해 복리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임금성 제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및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사 차원에서는 2년마다 해외생산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자부심 제고를 위한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해외법인은 개별적으로 직원-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고충 상담실 운영, 현장 순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다양성 증진

현대자동차 다양성 및 포용 정책

다양성 정책 수립 현대자동차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현대자동차의 다양성 및 포용성과 관리 요소를 다룬 '현대자동차 다양성 및 포용 정책' 문서를 제정, 공개하였습니다.

Employee Resource Groups 현대자동차는 공통적인 다양성 배경을 지닌 임직원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별, 문화, 연령, 출신지역을 비롯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임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mployee Resource Groups: ER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 또는 팀 차원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다양성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러닝랩	(전 임직원 대상) 관심사·업무 형태가 비슷한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발적 학습,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조직 시너지 제고
팀 다이나믹스 과정	팀 구성원의 버크만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팀 시너지 강화 관점에서 그라운드 룰 수립
코칭 리더십 교육	구성원 개별 강점 기반의 실 구성원 다양성 이해 및 강점 발현을 위한 코칭 리더십 기본 스킬 교육
주재원 부임 과정	부임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를 위해 GlobeSmart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 ERG 활동

명칭	대상	주요활동
Women @ Hyundai	여성 임직원	• 여성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포용적 환경 조성 • 여성 임직원 관점에서 커리어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지원 활동
Hyundai @ Soul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직원	•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 현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법 논의 • 현대 경영진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HANA (Hyundai Asian Network Alliance)	아시아계 임직원	• 아시아 문화 특성 및 관점을 활용한 전략 개발, 기술 및 네트워크 활용 기회 고민 • 현대 기업 홍보 및 지역사회 행사 지원
Amigos Unidos	히스패닉/라틴계 임직원	• 라틴계 커뮤니티의 문화적 지능을 활용한 경영 혁신 아이디어 제안 • 라틴계 임직원 관점에서 현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Young Leaders	밀레니얼 세대 임직원	• 밀레니얼 세대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해결책, 개선점 고민 • 소속 임직원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기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Equality	LGBTQ+ 임직원	• 성소수자(LGBTQ+) 임직원 대상 교육, 경력 개발, 네트워킹 및 직장 협업 기회 제공 • LGBTQ+ 커뮤니티 내 현대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Hyundai CARES	장애인 임직원	• 장애인의 직장생활 개선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는 임직원, 노화로 인한 장애가 있는 중장년 임직원 등 지원
Stars & Stripes	보훈대상자	• 현대자동차 직원, 배우자, 가족 및 미군 참전용사 지지자들이 모이는 포럼 운영 •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 제공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목표 달성 및 이행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와 소통 기반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은 최소 분기 1회 안전보건 체계 운영 및 목표 대비 이행 현황, 실행계획 및 주요성과를 점검·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대표이사 겸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였으며, 전사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총괄 아래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사 또는 사업장 단위별 관리자와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공유·논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부상·질병·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며, 사후조사 절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사업장 담당자, 공정 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안전보건 관리 성과목표(KPIs)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이행 현황에 따라 성과를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 수행, 안전보건 활동 이행실적 평가, 활동 분석 기반 개선조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법·규제, 시장 현황,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사업장

국내외 전체 생산법인

100%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2023년 9월, 현대자동차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노사 대표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임직원의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노사 공동 선언문은 사업장 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적극적인 투자 및 전문 인력 보강 등 안전관리 지원 활동 강화, 스마트 모션센서 등 신기술 장비 도입으로 직원 안전 확보, 협력사 안전 활동 지원으로 상생 안전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동 TFT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리더 세미나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외 동향을 확인하고 안전 리더십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리더 세미나(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참여하여 안전방침을 전파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내외 안전 관련 담당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장 안전의식 개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3년 안전리더 세미나 실시 결과

일시	세미나 내용	이수자 수
상반기	•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및 안전동향 • 우수 개선사례 및 선진 안전기술 공유	50명
하반기	• 경영책임자(CSO) 안전방침 전파 • 나와 내 동료를 위한 안전 리더십	61명

안전비전전략 로드맵 마련 현대자동차는 2022년 12월,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문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경영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글로벌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안전경영체계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심층진단을 통해 선정한 개선과제(안전문화, 노사관계, 안전교육, 안전예산, 위험성평가)를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중 위험성평가를 최우선 개선분야로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현대자동차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비전전략 방향

안전문화 정착	• 안전 최우선 핵심가치 실현, 선진기업으로서 공정한 안전문화 (Just Safety Culture)로 변모 등 현대자동차 고유의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 고도화	• 법·규제 요구수준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글로벌 BEST 도약	• 글로벌 안전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 Headquarter 조직 중심의 미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제도(Safety Career) 등 선진사례 시범 도입 적극 추진
현장중심 위험성 평가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Self-regulation) 정착 및 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노사협력 강화	• 노사의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Safety Merit System) 도입 및 노사협력 강화
공생협력	•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우수협력업체 발굴제도 등) 강화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점검

고위험요인(SIF) 중심의 사고관리 현대자동차는 고위험요인(SIF) 중점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을 선정하고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하는 중대재해예방 밀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율과 선행지표인 안전보건경영 체계 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활동 실행력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정과 행위를 측정합니다. 재해율은 2022년 대비 약 16%p 증가하였으며, 직원들의 질환성 재해건수의 증가(2022년 107건, 2023년 171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H-SAT)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도구인 'H-SAT(Hyundai- Safety Assessment Too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사업장 관리자의 성과지표(KPIs)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와 현장 사고예방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는 안전, 보건, 소방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경영체계 유지, 리더의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등의 세부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534건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보완점 및 현장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하반기 개선이행 평가를 통해 100%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H-SAT) 항목

	안전	보건	소방
관리체계 평가 항목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등	비상대비 대응 체계 등
현장점검 항목	로봇 방호장치 등	국소배기설비 등	화재 취약지 등

안전관리 KPI 운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매년 안전관리 KPI를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각 조직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각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경영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큰 틀에서 선행지표(예방활동)와 후행지표(결과)로 구성되며, 선행지표로는 안전환경보건(SHE) 종합평가, 중대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리더십 활동, 대고객 행사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후행지표로는 중대재해 발생여부, 재해율, 부재율 등의 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주요 평가지표	
국내	전 조직(66개)	• 재해율/부재율 목표달성율 •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달성율 • 대고객 행사 안전관리	• SHE 종합평가, 위험성평가 • 안전문화 조성 및 법규 준수 등
해외	생산법인(7개)	• 재해율 목표달성율 •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달성율	• 안전리더십 활동, SHE 종합평가 • 사업장 우수 재해예방 활동 등

안전보건 활동 추진

안전보건 관리 활동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진단, 소음·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 및 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고위험설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위험성평가단 운영을 통해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검진과 치료 등 사후조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활동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운영, 금연 클린 공장 홍보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홍보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활동 종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위험 및 장해 예방 조치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비상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안내 등을 식별가능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작업환경 안전조치
작업환경 내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
기계·기구·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취하며, 잠재적 위험이 없도록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원재료, 가스, 증기, 고온,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보건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비보호구를 비치·관리하는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추락·붕괴·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고, 소방장비 등의 기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유해물질 관리
취급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목록화 및 비치하며,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조치합니다.

건강증진 활동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호흡기·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 예방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며, 진단·교육·협의 등 밀착관리로 재해예방을 강화합니다.

재해 조사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재해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개선 목표에 반영합니다.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비상상황 종합 훈련 현대자동차는 비상조치훈련 계획에 따라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합니다. 비상상황 종합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종합 훈련은 위험성 평가 결과 주요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비상상황별 행동요령 이행, 개인별 분반 및 임무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종합 훈련 담당자는 훈련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며,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훈련 수준 및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

구분	활동내용
모바일 정기 안전점검	• 작업공정 및 운영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점검 도입
스마트 모션센서 설치	• 안전관리 사각지대 중심 해당 센서를 설치하여 중대재해 예방
인체감지 센서 설치	• 지게차 등 운반기계 조작 시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성 저감 위한 인체감지 센서 등 설치
안전관리 규정서 개발	• 휴무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비정형 공사작업 관리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규정서 개발
고위험 설비 점검	• 협력사 납품 차량, 프레스공장 크레인, 이동식 간이 리프트 등 고위험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중대재해 대응 강화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책임자인 CSO의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강건화하고 있습니다.

원료 부문은 안전보건관계법령 중 현대자동차에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17개 법령(환경, 소방, 위험물, 가스, 원자력 등)에 대해 인력, 예산, 점검, 개선, 교육 등의 안전보건체계가 준수되는지 반기 1회 주기로 점검하고 보고하며, 점검 보고에 대한 CSO 의견을 사업장에 전파하고, 현장 작동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제조물 부문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생산(차체·도장·조립 및 완성차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뿐 아니라 리콜, 캠페인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VOC(Voice Of Customer)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엄격한 품질체계 관리로 일관되고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부문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1~3종 시설로 구분하여 각 건축물별 안전계획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계획서는 현대자동차 12대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등 법정검사 뿐 아니라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등 취약점을 지속 발굴하여 18대 자체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대고객 행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 기준(집객 규모별)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안전협의체 운영, 현장 안전점검'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안전관리



* 사고조사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상기 단계에 따라 확인하며, 누락시키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함
** '6하 원칙'을 기초로 한 사고 조사 진행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큰 원인부터 작은 원인(Top Down 방식)으로 확인함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안전문화진단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2023년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현대차 안전문화 지표(H-SCI)를 자체 개발하여 현장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안전문화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총 9개 요인(6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행동, 안전동기, 안전리더십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 지표(H-SCI)를 활용하여 2년 주기로 안전문화 수준의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전문화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의식 함양 활동 CSO안전메시지, 사업부장 안전카드 뉴스,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안전 연극, 자녀 안전포스터 공모전, 상/하반기 안전 강조 주간 운영(안전다방, LOTO(Log out Tag out) 체험부스, TBM/안전조회 공모전 실시) 등을 통해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의 날, 심폐소생술 부스 운영, 안전 신문고 조직 포상 확대 등을 통한 현장 참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협업하여 통근/구내버스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부착하여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안전관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울산공장 전체 직원 대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수료생의 70.9%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생산법인 전체 대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교육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현대자동차는 안전교육 플랫폼이라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보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콘텐츠'는 총 9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사고예방,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영상별 단편영화, 예능, 토크쇼 등 다양한 콘셉트를 적용하여 흥미 있고 유익한 안전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보건 교육 운영 현황

구분		교육실시 (회)	교육이수 (명)
정기교육	사무직	105	2,628
	생산직	45	1,787
	통합[1]	6,034	19,5017
	계	6,184	199,432
특별교육		444	2,238
신규교육 및 기타		3,989	174,683
온라인/모바일 정기교육		18,236	434,280
합계		**28,853**	**810,633**

[1] 모바일 교육 건수

현장 체험형 VR 교육 도입 임직원이 VR 기기를 착용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위험요소를 체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VR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협력사의 재해예방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 정보등록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평가, 안전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 170개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 특별교육(5회), 사내 협력사 안전감독자 교육(3회)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협력사 산업재해 예방 노력 현대자동차 각 사업장은 사업운영 방식, 협력사 유형,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장 및 공정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은 2021년 주요 협력사(30개)와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의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및 완성차-협력사 상생 안전점검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2023년 모든 협력사의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및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협력사 안전점검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차 부품협력사(192사)의 안전점검을 진행하였고, 통합구매 고위험군(알루미늄 용탕, 화학물질 납품사) 협력사(19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2차 협력사의 안전장치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험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LOTO(Log out Tag out), 안전센서 및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팀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실무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아카데미(2회), 안전세미나(1회)를 실시하였고, 현대자동차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협력사에 전파하는 등 협력사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해 모든 협력사와 동종 산업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내 작업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맞춤형 복리후생 지원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대자동차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군은 의무 근무시간을 제외한 선택가능 시간대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국내)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그 외 시기에는 의무 근무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퇴직자 지원 제도

퇴직연금 제도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 대상 직원들이 퇴직 후 삶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준비금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교육을 실시하여 퇴직 후 임직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미래설계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과 직군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설계 과정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4,40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말	2023년 말
보험상품	5,985,348	5,995,760
기타	2,572	1,968
합계	**5,987,920**	**5,997,728**

출산·육아·가족돌봄·임직원건강 지원 제도

구분	제도	주요내용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직원의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 단축 제공 • 시업 후 2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시업 후 1시간 + 종업 전 1시간 중 선택 가능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의 보호 휴가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임직원 건강을 위하여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일수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 지원
	주중 출산휴가 지원	• 본인/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임신 6개월~출산 12개월 내에 회사 지정 호텔 숙식 제공 (최대 2박)
육아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무급 휴직 제공 (30일 이상 휴직 시 최대 1년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통상임금의 80% 및 월 150만 원 상한 기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 사용 가능 (첫 해는 2회 분할, 두 번째 해는 1회 분할 가능) • 육아휴직과 대체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총 2년 사용한 직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사용 가능 • 시업 후 2시간 또는 4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4시간, 시업 후 2시간 + 종업 전 2시간 사용 가능
	수유시간 제공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직원에 대하여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 제공
	사내 어린이집 운영	•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국내사업본부 등 총 6곳 운영
임직원 건강	직장 스트레스 관리	• 톡톡센터(심리상담센터), 임직원 마음챙김 그룹 클래스 운영 (자녀 양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직장 내 갈등 완화 등 심리상담·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주재원/GEP 임직원 및 동반 가족 대상 인터내셔날 SOS 서비스 운영 (스트레스 관리 지원)
	스포츠·건강 이니셔티브	•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내 임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짐나지움)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가족 돌봄	가족돌봄 휴직	•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 지원

2023년 퇴직자 미래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대상	매니저 이하 (조합원)	
과정명	미래설계 57-60	상담
연령	만 57~60세	만 57~60세
수료인원	2,617명	947명
형태 구분	강의 및 체험 등	상담
내용	• 변화인식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기 점검 • 미래설계 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1대 1 맞춤형 경력 상담 • 재취업, 귀농귀촌, 자기계발, 생애설계, 창업 등

대상	카마스터
과정명	미래설계 60과정
연령	만 60세
수료인원	127명
형태 구분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
내용	• 퇴직 이후 변화된 삶에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고용정책, 귀농·귀촌 노하우, 창업 성공사례, 퇴직 후 환경변화 대응, 재취업, 재무 관리, 진로 설계)

대상	간부사원	
과정명	미래설계 기본과정	미래설계 전문교육
연령	만 59세	만 60세
수료인원	395명	320명
형태 구분	온라인 라이브 + 상담(온/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라이브 + 상담(온/오프라인 병행)
내용	•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준비사항 경력 경로(재취업, 사회공헌, 창업) 등 • 재무진단, 재무설계 • 경력/흥미 진단 및 탐색	• 개인의 희망경로(재취업/사회공헌, 창업, 귀농귀촌)에 따라 경력 분석 및 전직 실행계획 수립

현대자동차 복리후생 소개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바탕으로 투명구매실천센터,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글로벌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협력사·정부·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상으로 품질·기술·경영 전반의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공동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확대, 금융 및 세제 지원, 사업다각화 촉진 활동 등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상생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생산성, 기술개발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기반 강화

협력업체 고충처리

현대자동차 파트너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센터 협력사에게 윤리적 행동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파트너 시스템 내에 투명구매 실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과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제품·수량을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 시행 등 협력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역량 강화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협력사가 자체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시설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 경쟁력, 글로벌 역량, 리더십, 자동차 산업 전문가 양성, 직무 기본 교육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18개 트랙과 58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구매 실천센터 홈페이지 구성



- 협력사 행동규범
- 탄소중립 이행 가이드
- 하도급 4대 실천사항
- 보복금지 지침
-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 2·3차 협력사 소리함

현대자동차 투명구매 실천센터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품질·기술·경영의 전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아, 현대모비스와 함께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활동, 분야별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기술지도 프레스, 열처리, 용접, 도금, 단조 등 금속분야, 고무, 도장, 전기전자, IT 등 비금속분야 협력사의 부품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한 기술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품질불량 개선, 원재료 구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경영컨설팅 협력사가 R&D, 생산, 품질, 물류, 원가, 경영활동 분야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영컨설팅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협력사 대상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참여자		비고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	품질아카데미	3,143	맞춤교육 과정 13개 운영
	일반교육 등	2,610	경영일반교육 및 세미나 등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업종별 교육 등	75,184	580개 과정 운영
합계		**80,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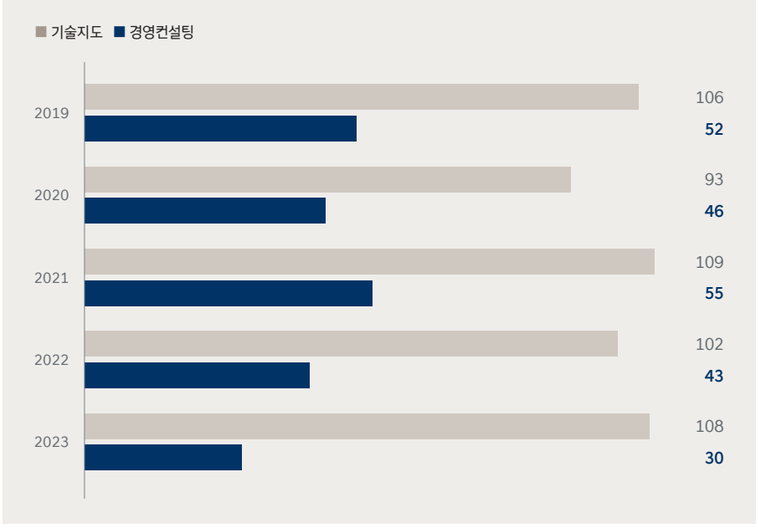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장지도 및 교육사업

현장지도	기술지도	생산현장 품질/기술 지도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부문별 노하우 전수
교육사업	품질아카데미	품질시스템 확립 위한 13과정 운영
	기술학교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8과정 운영
	품질기술 세미나	업종별 기술지도 우수사례 전파
	경영일반교육	생산성 혁신을 위한 교육 운영
	부품사 방문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획득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연 1회 200여 개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23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공정한 계약 체결, 하도급거래 등 법 위반 사전 예방·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지원 제도 운영 실적과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설문조사 및 실제 동반성장 제도 실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술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협력사 수 (단위: 개)



지속가능한 공급망

품질 경쟁력 제고

5스타 제도 협력사의 품질·기술·납입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협력사가 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스타 인증 협력사에게는 신차 개발 시 부품 공급 협력사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5스타 제도를 통해 품질·기술·납입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품질관리 비용 절감, 독자 수출능력 확보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스타 평가항목

품질 5스타	기술 5스타	납입 5스타
• 품질관리체제 • 입고 불량률 • 클레임비용 변제율 • 품질경영 실적 등	• 기술개발 인력, 투자 • 신기술 개발, 특허 • 부품 개발 업무체계 (기획/설계/평가) 등	• 생산라인 정지 건수, 시간, 변제금액(비율) • A/S 부품 납입률 • KD 부품 납입률

2·3차 협력사 품질평가 (SQ 마크 인증) 자동차 부품 품질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전문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 2·3차 협력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검사기준 운영, 설비보존 및 일상점검 활동, 작업표준 작성 및 보완 등 공정관리, 완제품 검사, 시정조치 및 지속적 현장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등을 기준으로 2·3차 협력사를 심사하여 우수 협력사에 SQ 마크 인증을 부여합니다.

내구신뢰성 개선 활동 현대자동차의 내구품질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여 협력사의 고질적 문제(고객 불편 현상, 클레임 및 리콜 등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내구신뢰성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내구품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간 기술협의회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개 1차 협력사와 내구품질 문제 개선을 위한 협업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1·2차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집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협력사가 품질교육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품질 기술, 관리 및 보증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협력사의 제품품질 관리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협력사)

구분	교육 내용	이수협력사	이수 인원	주기
1·2차 협력사	도장·고무·사출·프레스·절삭가공 등 분야별 품질 기술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전자제품 품질 보증, 설계품질 관리 등	3,260	6,646	상시

* 국내 모든 협력사 대상(100% 범위) 교육 시행

협력사 품질 회의 해외 공장에서는 현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력사 품질 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당사 납품품질 관련 우수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시행된 개선 조치에 대한 진행경과와 효과성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격월로 동반 진출 협력사 법인장 대상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 관련 동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협력사 품질회의

- 구분 협력사 품질 세미나
- 내용 품질 관련 동향 및 노하우 공유
- 참여 협력사 동반진출 협력사 100%
- 주기 격월 1회



기술 개발력 향상

협력사 R&D 기술 지원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R&D 기술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부족한 기술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R&D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품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과거사례 및 기능·설계개념 교육, R&D 부족 부문을 사전에 분석하여 핵심현안을 개선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R&D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개선, 맞춤형 기술, R&D 역량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력사 요청사항을 조사하여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종산업 협력사 간 협의체 및 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 소통·협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무상제공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협력사에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무상제공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특허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협력사의 주요 사업분야, 보유 및 개발 중인 기술, 특허권 보유 현황,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상담을 실시하며, 협력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특허권 이전 확정 및 특허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허권 이전 후, 해당 특허권을 적용한 R&D 고도화 및 제품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신기술전시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1·2차 협력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0억 원을 출연하여 900여 개 협력사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 관련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은 1·2차 협력사의 생산설비 현황을 고려하여 부분적 표준화, 데이터 관리,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수준, 수집된 정보 기반의 제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중간 수준, 모니터링부터 제어·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되는 고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 과정에 부품 협력사의 설계·평가 업무 담당 연구원(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연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부품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시험장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당사의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신차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는 부품 및 성능개발 효율성 증대, 조기 품질 확보, 협력사 기술인력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기술보호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협력사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하여, 중소 협력사가 기술 및 특허를 침해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출원 및 특허검색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기반 특허교육 실시, 협력사의 특허출원 비용 절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 기술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지속성장 기반 강화

납품대금 현금 지급 및 원자재가격 조정 2006년부터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어음(60일)으로 지급하며, 주 1회 단위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월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협력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변화로 인한 영향을 당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철판, 귀금속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국제가격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여 업체에 공급하는 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은 국제가격 등에 따라,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지속 성장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협력사와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차 협력사 309개, 2차 협력사 381개 등 총 690개 협력사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해외 OEM 업체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 협력사가 해외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물류 공동화,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해외수출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3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상생협력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하며,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대금지급 조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계약의 공정성,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협력사 대상으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거래조건 등과 같은 거래관계,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등의 협력관계, 비전 공유 및 추진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2·3차 협력사 품질기술 육성 2·3차 협력사에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2·3차 협력사의 품질·기술·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품질기술 육성'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2·3차 협력사 등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대금지급) 한도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2·3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1·2차 협력사는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등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

미래성장 상생펀드	• 374억 원 예치, 935억 원 지원 -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IBK기업은행)
미래성장 동반펀드	• 1,500억 원 예치, 2,250억 원 지원 -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현대커머셜)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 펀드	• 2,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1] -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업다각화 지원펀드	•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 내연기관 부품협력사의 전동화 확대에 따른 사업다각화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원자재가 연동제 지원펀드	•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가 연동제를 2·3차사에 확대하기 위해 1차 사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신한은행)
대출이자 지원펀드	• 1,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 -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1·2차 협력사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신한은행)

[1]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 공동 출연

상생협력 5스타 제도

목적	1차·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개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협력사 선정(입찰) 시 반영 (연 1회 평가)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활동 실적 (정량 평가: 50%)	**2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체감도 (정성 설문: 50%)**
• 대금지급 조건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 공정한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 상생협력 지원 (자금, 연구개발, 생산성 지원 등)	• 거래관계 (공정거래, 거래조건) • 협력관계 (자금, 연구개발, 생산성 지원 등) • 운영체계 (비전 공유, 추진체계 등)

기술 지도 (품질·기술지원단)

구성	업종별 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생산현장의 품질·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도 분야	품질/기술 중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지원하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대응력 향상

경영 컨설팅 (경영혁신지원단)

구성	분야별 경영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무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도 분야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기획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

협력사 행동규범 제·개정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본 행동규범을 적용받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현대자동차의 리스크 개선 권고에 따라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감독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하여 공급망 실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협력사도 강제노동 사용을 금지하는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부서 신설 현대자동차는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령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본부 내 협력사지속경영안전추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완성차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 원부자재, 설비 등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력사 선정기준 내 지속가능성 반영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환경 사고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품질경영체제, 재무구조 및 경영능력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안전·보안 등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 협력사들도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제재 등 페널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규정을 강화하고, 강화된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 및 기본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협력사들에게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약 갱신 시점에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준 부품거래 기본 계약서에 협력사가 환경문제 및 인권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시켰으며, 견적요청서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협력사 등록 시 지속가능성 서류 구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평가 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평가보고서, 실태조사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윤리서약서,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품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지속가능성 향상에 관한 서약을 협력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 분포 현황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는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이 중 핵심부품 (수소연료전지부품, 배터리부품, 제어부품, 전동화부품 등)을 공급하거나 타협력사로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협력사, 그리고 거래규모가 큰 협력사들을 중점관리(핵심) 협력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1차 협력사는 1,454개(구매 비중 100%)로 국내 372개, 해외 1,082개입니다. 1차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55개(구매 비중 69%)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2차 협력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2차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24개입니다.

협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 확산·전파

동반성장 소식지 배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산업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협력사와 공유하고자 동반성장 소식지인 '상생협력 Letter'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격월 주기로 발간하여 대외문, 동반성장포털(http://winwin.hyundai.com), 협력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1차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분야 주요 배포내용

- 2월 지속가능성 규제 공급망 실사 의무
- 4월 EU 환경 규제화 동향
- 6월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컨설팅 및 CDP Supply Chain 평가 참여 안내
- 10월 부품 LCA(부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설명회 및 온라인 교육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사전 예방 및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사 대상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실무자 대상 각종 설명회를 실시하여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주요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와 주요 동향,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결과

- 총 운영시간 2,582시간
- 참여 협력사 수 427개사
- 교육인원 수 1,830명

협력사 행동규범 기본원칙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
- 투명경영 및 반부패
- 불공정 거래 방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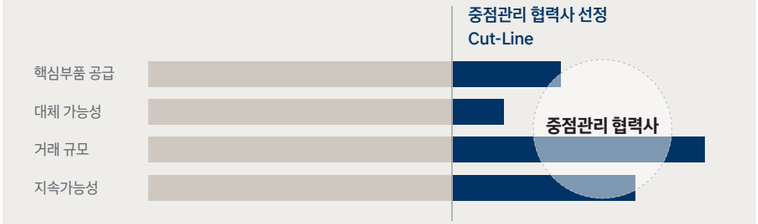
환경
-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생물다양성 등

노동·인권
- 결사의 자유 보장
- 아동·강제 노동 금지 등

안전·보건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비상상황 대응 등

경영시스템
- 투명경영 및 반부패
- 불공정 거래 방지 등

중점관리 협력사 선정 기준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체계

리스크 진단·실사 절차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관리는 서면진단-현장실사-고위험사 선정-개선 및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며,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에 따라 진단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령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제노동 리스크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통합적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 진단 지표 구성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환경·노동·안전 보건·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Vadis, 책임 있는 사업자 연합(RBA),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의 지표와 기준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만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지표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공급망 운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교도소, 직업 훈련 센터, 정부 산하 기관에서의 강제노동 등 미국 정부가 제시한 리스크 종류 및 지표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진단·실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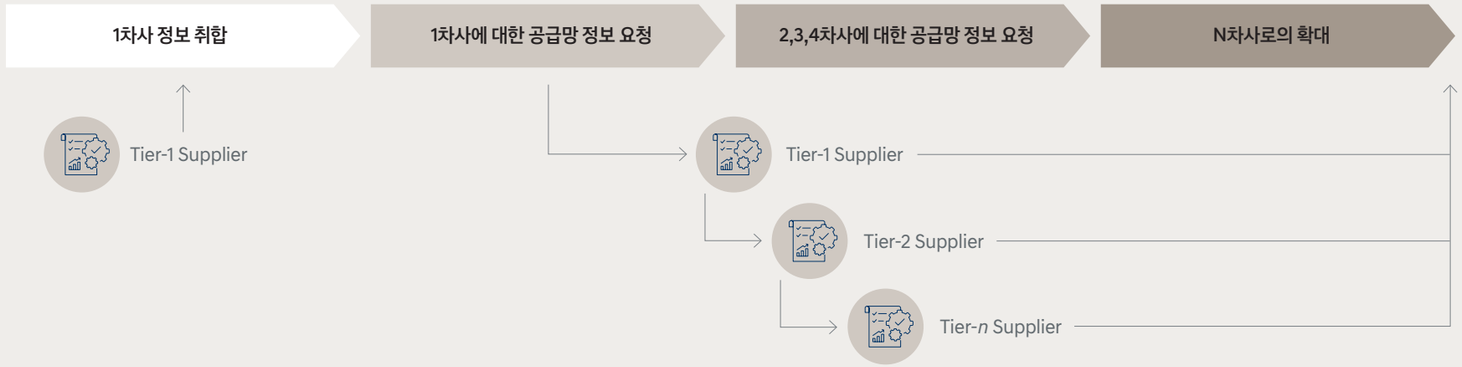
사전식별	• 예상되는 리스크를 협력사 소재 국가별, 산업별, 납품 제품별로 분석 • 외부 리스크 데이터 베이스 제공 업체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진행
서면진단	• 온라인 시스템(IT)에 접속하여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리스크 수준을 자가진단(Check-list) 및 근거문서 증빙
현장실사	•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력사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증빙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
개선조치	• 서면진단 또는 현장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험 요소는 즉각 개선조치 요청, 또는 개선계획 수립 권고
이행지원	• 협력사가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컨설팅, 가이드 등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사전식별(Risk Filter)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진단·실사를 수행하기 전, 공급망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사전식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현대자동차가 사전식별 과정을 통해 선정한 중점관리 1차 협력사는 55개이며, 중점관리 2차 협력사는 24개입니다.

협력사 글로벌 분포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는 전 세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업종·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 파악	협력사가 소재한 국가별, 업종별, 납입 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 각종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결과 분석	확인된 리스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개선방안 도출 및 진단지표 개정 등에 반영합니다.

2023년에는 강제노동 리스크를 중심으로, 외부업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1차 협력사에 대한 리스크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소재지 및 강제노동 방지 법령 위반 혐의 업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매핑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공급망 매핑 프로그램을 알루미늄, 배터리, 철제, 타이어, 배터리, 폴리실리콘 등 주요 부품군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차사부터 N차사에 이르는 연속적인 공급망 매핑 절차



서면진단(Written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은 국내외 모든 협력사가 접근가능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되며, 협력사가 자가진단방식으로 평가지표에 응답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력사 서면진단 결과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현장실사(On-site)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소재 국가, 업종, 납입 부품·원부자재, 서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및 평가에는 ESG 컨설팅 및 진단·실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 구매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는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폐기물 및 오염물질 적법처리,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기반 근로시간 관리 및 급여 지급, 위험성 평가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수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의 시스템 및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현장방문 시에는 근로현장에서 우려되는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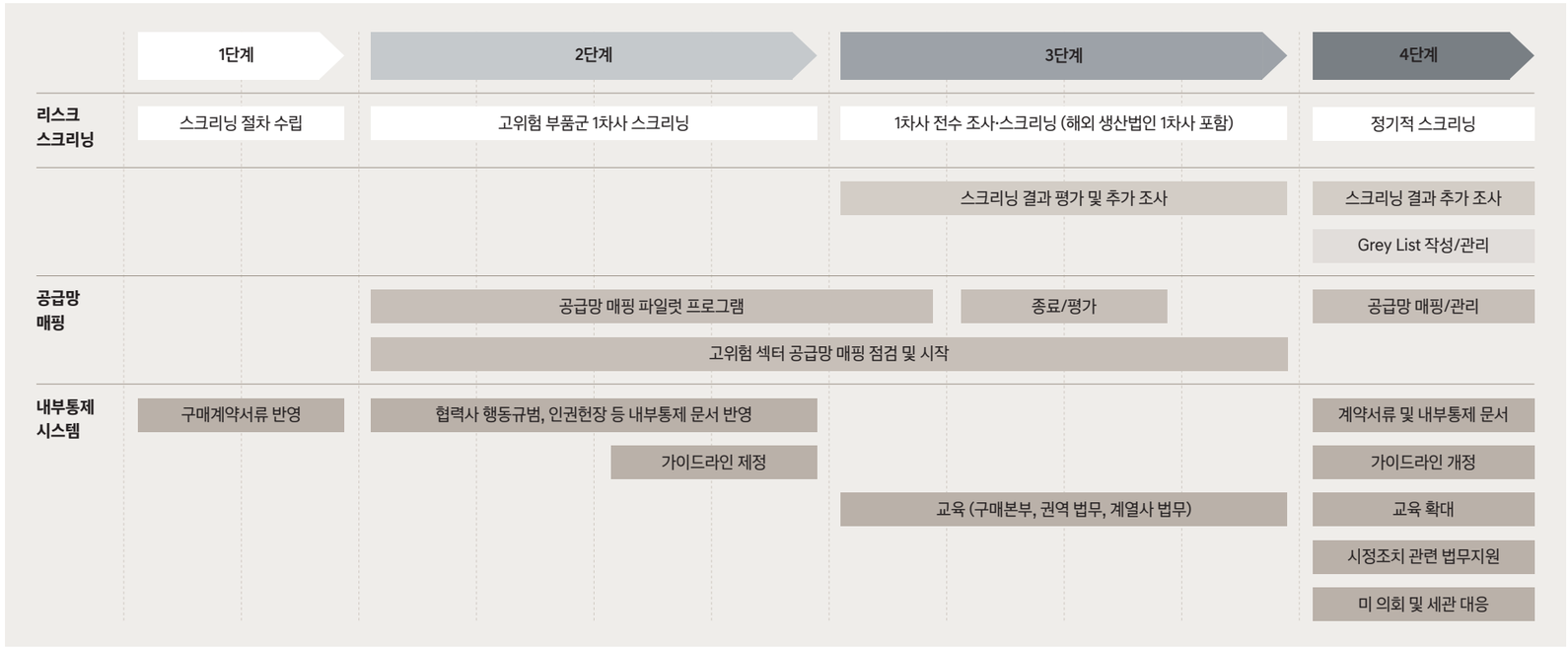
공급망 관리 전략 연계 진단·실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공급 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5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방향별 주요 성과지표(입고불량률, 신뢰성 시험역량, KD부품 납입률, 대금지급 조건, 에너지 사용량 등)를 수립하여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당사의 공급망 관리 전략에 참여·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략 연계 관리 지표'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사 수준을 진단·실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거래 대상사의 경우, ESG 평가 후 기준 점수(70점) 이하 획득 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시, 거래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기 거래 협력사의 경우에도 공급망 ESG 평가 내용을 구매정책과 연계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요 미흡 사항 현장실사(평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협력사에게 벤치마크 기업 평균 점수 및 최고점수와, 미비점 및 개선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완 필요사항
윤리	ESG 경영시스템 구축, 책임 있는 자재 구매
환경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노동·인권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사고관리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로드맵



공급망 관리 전략

5대 전략방향	성과 지표
품질 경쟁력	입고불량률, 클레임변제율, 품질경영, 제조공정 현장평가, 외주사 관리
기술 경쟁력	기초역량, 수행능력, 미래역량, 신뢰성 시험역량, S/W 검증역량
공급 안정성	원활한 부품공급(생산라인 정지 예방), A/S부품 납입률, KD부품 납입률
공정거래	대금지급 조건, 계약 공정성, 법/규제 준수, 상생협력 활동(동반성장 지원)
친환경 생산체계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 사용, 대기오염물질, 폐기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부패행위 금지	• 환경경영시스템	• 차별 금지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기업성명서 공시
• 불공정거래 방지	•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임금 및 복리후생	• 기계/기구/설비 안전	• 담당자 선임
• 위조부품 방지	• 수자원	• 근로시간	• 비상상황 대응	• 리스크 점검
• 수출제한 준수	• 대기오염물질	• 인도적 대우	• 사고 관리	• 교육 및 소통
• 정보보호	• 폐기물	• 결사의 자유	• 안전 진단	• 정보 관리
• 책임 있는 구매	• 화학물질	• 아동노동 금지	• 보건 관리	• 고충처리 제도
		• 강제노동 금지		• 거래업체 관리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확정 및 개선계획 수립 현장실사(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바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있으며, 이 외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추진시기, 추진방식, 예상 문제점 등을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와 더불어, 협력사의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66개 협력사(1차 협력사: 159개사, 2차 협력사 7개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목표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1차 협력사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1차 협력사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지속가능성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안전설비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탄소배출저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달성 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범위 확대

전체 1차사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기간
안전설비 구축	1차사·2차사	2023~2025년 (3년간)
보안시스템 구축	1차사·2차사	
탄소배출저감 지원	1차사	

* 지원 대상: 업체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1차사·2차사 중 선정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결과

(단위: 개사)

구분		업체 수	비고
ESG 리스크 서면진단	1차 협력사	1,454	구매 비중 100%
	중점관리 1차 협력사	55	1차 구매비중 중 69%
	중점관리 2차 협력사	24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발굴	1차 협력사	17	목표: 중점관리 협력사 서면진단율 100% 달성
	중점관리 1차 협력사	-	
	중점관리 2차 협력사	-	
ESG 리스크 현장실사	1차 협력사	282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17개 포함
	중점관리 1차 협력사	11	목표: 고위험 협력사 ESG현장실사율 100% 달성
	중점관리 2차 협력사	8	
고위험 협력사 개선조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협력사	17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고위험 협력사 없음
	합의된 개선계획이 수립된 협력사	17	
	개선계획 이행완료 협력사	17	

리스크 개선 지원 사례

공급망 노동·인권 관리 강화

북미 아동노동 이슈 등 공급망 인권 리스크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23년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전 공급망에 대한 인권 리스크 스크리닝 및 위험 협력사 식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내 출입증 발급 시 Fake ID 검수 절차를 추가하였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련 KPI 지정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강제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및 의무사항과 현대자동차의 이행 방안 및 협력사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을 명문화하고 유관 부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에는 간소화된 자가진단 평가를 진행했던 해외 공급망에 대해, 2023년부터 서면진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외 1,082개사가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국내 공급망 대비 취약 영역 및 소재 국가별 점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서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공급망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 실시

탄소중립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협력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CDP Supply Chain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탄소중립 전략 및 목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및 이행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탄소 관련 정보 공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3년 4월~6월에 탄소중립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CDP 응답 및 입력 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였으며, 협력사들은 7월까지 평가 참여를 완료하였습니다.

협력사 부품 LCA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관리 패러다임이 전생애 단계 및 완성차 및 부품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부품 제조의 원료 채취 및 가공·생산까지의 과정에 걸친 배출량을 산정하고자 협력사 부품 LCA(전과정평가)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 9월~12월에 탄소 다배출사 86개 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을 진행하여 부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을 도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상용 협력사 및 2차사 등 전 협력사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책임있는 광물 관리

분쟁광물 관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쟁광물과 관련된 책임 있는 정책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구매본부 협력사지속경영안전추진팀이 주관하여 분쟁광물 관련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협력사지속경영안전추진팀은 각 구매사업부 및 협력사의 책임광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기획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광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감독 및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CEO의 KPI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분쟁광물 관리 정책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협력사와 공동으로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노동 이슈 등을 관리하고자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코발트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설명회를 지원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 미국 Dodd-Frank 규제개혁법,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수립한 절차를 기반으로, 책임감 있는 광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공급사 정보 수집용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및 EMRT(Extended Mineral Reporting Template)를 통해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대상으로 공급망(광산-제련소-1차 협력사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광물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분야 리스크가 식별·인지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고위험지역에 위치하거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하며, 협력사가 RMAP 인증을 획득한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를 매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위험관리) 지역 선정 현대자동차는 아프리카 10개 국가(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등 분쟁지역을 위험관리 대상 지역(CAHRAs,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s)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불법 또는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분쟁광물과 코발트의 사용 여부를 협력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위험지역에서 소싱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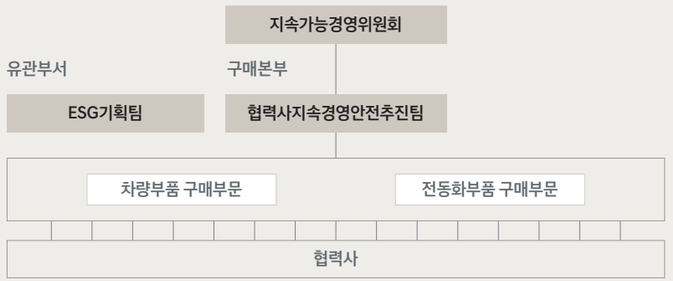
협력사 분쟁광물 현황 조사 및 리스크 확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사용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협력사 및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51개)에 대해 분쟁광물 및 코발트를 사용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사로부터 CMRT·EMRT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는 등 모든 조사대상 협력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CMRT·EMRT 자료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RMAP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 시행 및 인증 제련소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인증 제련소에서 분쟁광물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미인증 제련소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련 리스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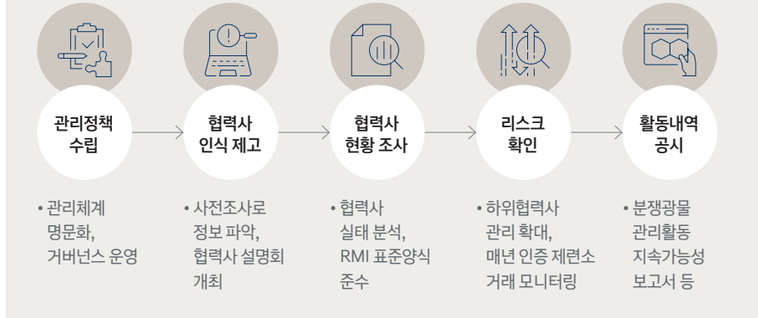
분쟁광물 활동내역 공개 현대자동차는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별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매년 분쟁광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 분쟁광물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는 2022년 3월, 협력사의 분쟁광물 현황 조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일정 확정을 시작으로, 주요 전기차종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이 분쟁광물이나 코발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1·2차 협력사,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 당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배경, 주요국 분쟁광물 규제 동향, 당사 분쟁광물 관리방침, CMRT·EMRT 소개 및 조사 계획, RMAP 인증 제련소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거버넌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분쟁광물 관리 사례

콩고민주공화국 광산 및 제련시설 방문

2024년 4월, 현대자동차는 광물 공급망의 환경, 안전 등 지속가능경영 대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재한 코발트 및 구리 광산과 제련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광물 생산 및 무역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 주관 하에 대규모 광산 2곳 및 내부 제련시설, 건조시설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아동노동 및 미허가 채굴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장 안전 정책 운영, 아동 및 여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렌코어가 운영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광산 직원 및 가족 대상 무상 의료지원 제공 및 HIV·에이즈 백신 보급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광물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을 실현하고, 운전자와 승객·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품질안전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판매 후에도 조기감지-조기개선-조기조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품질안전 신고센터 운영, 안전정보 분석, 안전시험 조사장 설립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만족 극대화와 신뢰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품책임

제품품질 관리

품질관리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신차개발 선행 품질관리, 양산차량 품질관리, 고객불만 대응 및 품질보증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품질 리스크, 품질 불량 사례, 소비자 불만 등은 전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기술연구소 파이롯트센터에서는 양산에 앞서 시험차량으로 차체 강성과 기능 등 품질을 측정 및 검증하고 있으며, 글로벌품질센터를 개소하여 선행 양산차량의 품질을 고객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고객의 다양한 품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사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생산사업장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차 설계, 부품 개발, 공정 운영, 선행 양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생산사업장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전환에 맞추어 인증을 전환·갱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 현대자동차는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 및 적용하여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특화 품질관리 표준 전 세계적인 전동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별 특화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제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확인, 발생 사례 분석, 개선활동 등을 통해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 선행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디자인, 설계 등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품 협력사 사전 검증 및 생산공정 품질에 대한 점검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품질 리스크와 관련 생산공정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도면을 기반으로 부품의 기능과 구조·신뢰성·내구성을 점검하고, 협력사 공정 검사 및 생산공정 자체 검사 등을 통해 최종 품질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차량에 대한 자체 검증뿐만 아니라, 고객 및 품질 관련 전문기관의 시승주행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활동을 수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품질점검회의를 통해 신차 양상 이전 최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최고경영층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산 품질 리스크 사전 예방 통계적 공정 관리, 정기검사, 출하 합격률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품질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품질 개선을 위한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 공정 관리, 품질예방 활동 평가, 품질 검사장비 유효성 검증, 부품 신뢰성 시험 등 차량 생산과정에서 품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차량 품질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선행, 제조, 시장품질 각 분야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들은 기초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실습 및 체험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외부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품질검증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동화 전환에 따른 신기술 검증, 고객 관점 품질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임직원)

품질 관련 교육	지원 대상	주기	이수자 수
함께 예방하는 고객안전사고	품질 관련 조직 임직원	상시	14,956명
안전품질 내재화 교육	품질본부 임원 및 임직원	분기별 1회	1,099명 (품질본부 이수율 92.8%)
품질 아카데미	품질본부 일반직	연 20회 (집합과정)	484명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현황



품질관리 프로세스



고객경험 혁신

품질 보증 및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는 물론, 판매 이후 고객 안전과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현대자동차는 승용·SUV·상용(트럭, 버스) 등 차량 종류별 평균 수명주기·내구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별도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생산한 배출가스 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촉매장치, 전기제어장치, 기타 배출가스 부품을 보증하는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현대자동차는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리콜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리콜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결함사항, 시정조치, 무상서비스 등 보상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판매보증 충당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루 기본점검 블루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본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용 8년간 8회, 상용 3년간 7회)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울 경우, 현장 응급조치, 간단한 정비, 지정 정비업체 입고를 도와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증기간 내 차량을 대상으로 출고 후 6년까지 무상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품질 VoC 대응 현대자동차는 전사 고객불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기반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본부, 연구개발본부 등이 참여하는 VoC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여 품질 개선 안건을 다각화하고, 긴급 VoC에 대응하는 등 고객 의견에 기반한 품질 개선에 주력합니다. VoC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각 서비스 거점에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차량 판매 후 고객 사용기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클레임 건수를 연계한 품질지수를 CEO의 KPI 중 5%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설비, 물류 등 공장 내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는 물론 외부 정보까지 수집·분석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덜어내 제품 생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023년 4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를 완공하여 완성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HMGICS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인 E-FOREST 구축에 활용됩니다.

주요 품질 VoC 대응 사례

EV 5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 진행 결정

2023년 7월,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제품의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결함에 대한 고객 불만에 대응하여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ICCU 내 일시적인 과전류로 인한 일부 소자 손상으로 인한 보조배터리 방전, ICCU 소프트웨어 전압 변환기능이 고장나는 경우 주행 중 단계적 속도제한 및 지속 주행 시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KATRI(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와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합동 평가를 통해 안전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ICCU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이후에도 동일 현상으로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당사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 3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GV70 EV, G80 EV 5개 차종 약 11.3만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기간

구분	차종	보증기간
하이브리드	그랜저, 쏘나타, 아이오닉, 아반떼, 투싼, 코나 Hybrid, 아이오닉 Plug-in	10년 / 20만 km
전기차	코나 Electric, 아이오닉 Electric,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10년 / 16만 km

* 승용, SUV 차량 기준

자발적 리콜 현황 (단위: 만 대,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리콜 차량 수	623	272	389	548
리콜 비용	305,200	1,442,300	320,900	485,173

판매보증 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기 초	5,447,307	8,514,173	9,048,185	10,399,527
해당기간 발생	1,963,782	2,551,716	3,133,544	3,442,626

2023년 VoC 접수 현황



구분	건수	비율
1 문의	13,823,464	96.6%
2 불만	123,442	3.1%
3 제안	5,142	0.1%
4 칭찬	5,155	0.1%

2023년 VoC 유형별 분류



구분	건수	비율
1 서비스	590,617	15%
2 판매	363,505	9%
3 품질	283,046	7%
4 멤버십	184,863	5%
5 업무 지원	633,185	16%

구분	건수	비율
6 예약	717,452	18%
7 인증 중고차	955,948	24%
8 긴급출동	12,022	0%
9 CCS	185,484	5%
10 기타	31,081	1%

고객경험 혁신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현대자동차는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장 접수, 본사 접수,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 및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국 하이테크센터 직원들이 고객 상담, 보상 품의 및 지급까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품질, 제도, 응대 과실을 포함하여 피해의 원인이 당사의 귀책인 경우, 직접(차량 수리비용) 및 간접 손실(대물, 상해 등 확대 피해) 등 확인 가능한 손실액 전체에 대해 서비스, 현물, 현금성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사 고객케어 관리 부문의 업무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고객불만으로 인한 소송, 장기 미출고, 장기 미해결 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솔루션팀에서는 각 센터별 장기 미결 현황 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 담당자와 종결 지원을 진행합니다. 화재, 차량사고와 같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 자료 작성 및 소송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법무팀, 연구소 및 품질본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품질문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품질 개선 부문과 협업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충돌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각국의 교통사고 데이터 그리고 국내 A/S망, 품질 부문에서 제공받는 여러 정보를 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복합충돌 에어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실차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27종, 170세트의 인체 모형(더미, Dumm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의 규모로,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미세한 상해도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어 승객 안전 성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1개 차종을 새롭게 개발할 때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 확보에 약 4천 시간의 평가와 시험, 그리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NCAP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주요 지역별 대표적인 차량 안전 평가 기관으로부터 안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 코나가 유럽의 'Euro NCAP'와 호주 'ANCAP'의 신차 안전도 평가(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어린이 탑승자 안전 등에서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NHTSA'의 평가에서 현대자동차 투싼 HEV,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70, GV80 등 18개 차량이 별 5개를 획득하였으며 국내 'KNCAP' 평가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코나 EV와 제네시스 GV60이 최고 안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 NCAP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지역명	비율[1]	5-star (1등급)
한국	100%	그랜저, 코나 EV, GV60
유럽	100%	코나
미국	85.7%	투싼HEV, 아이오닉 5,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크루즈, 싼타페, GV70, GV80, G80 등 총 18개
호주	100%	코나

[1] 비율: 별 5개 등급(최우수 등급)으로 NCAP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차량 모델의 수를 NCAP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총 차량 모델 수로 나눈 값



현대자동차그룹 충돌시험장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

규모

시험동	충돌장
40,000㎡	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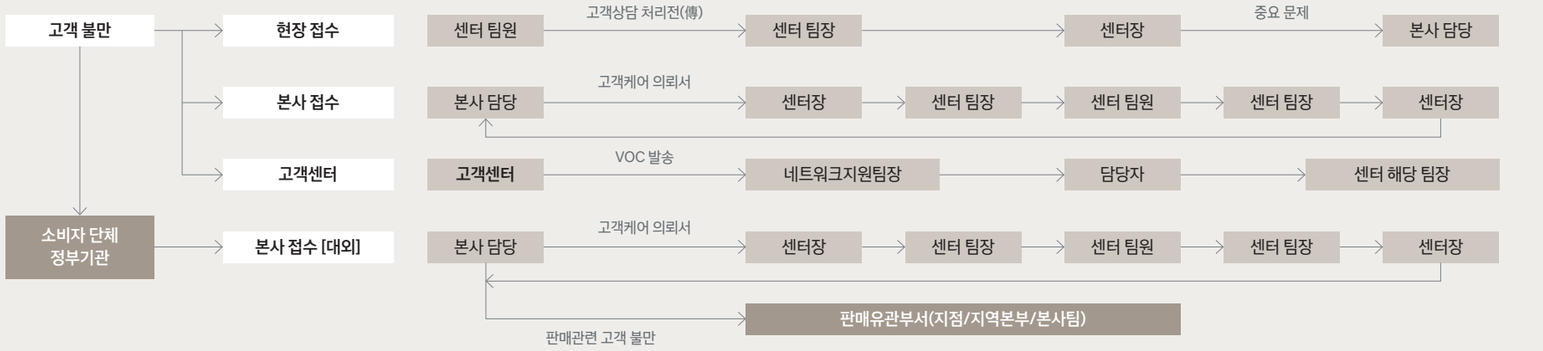
충돌시험 횟수

연간 650회

성능

최고 속도	최대 중량
100km/h	5톤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절차



고객경험 혁신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 운영 현대자동차는 차량 구매와 정비 과정에서의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개별 고객 응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객 접점별 핵심 응대요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균일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권역 및 판매법인은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별 시장 특성 및 고객의 기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객 응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역량 강화 차량 판매, 서비스 등 고객접점 채널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CS 학습환경을 통해 임직원은 차량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고객상담 스킬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는 'CS Way'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객 응대 솔루션을 현장에 전파하여, 고객 응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트렌드와 블루핸즈 CS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응대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고객 응대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소통채널 'H-ear'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수시로 청취하고 고객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오픈형 고객소통 채널인 'H-ear'(https://hear.hyundai.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ear'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차량의 상품성·신기술·친환경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정비 서비스, 판매 채널, 시장 및 트렌드, 기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서비스의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 현대자동차는 차량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하여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Connected Car Service)인 '블루링크(Bluelin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링크에 가입한 고객은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경로 탐색, 간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마이현대' 현대자동차 멤버십부터 차량 관리, 카 라이프 등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통합 고객 서비스 앱 '마이현대(my Hyundai)'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마이현대' 앱 접속 시 홈 화면에서 본인의 차량과 차종·색상이 동일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계약 정보, 고장 정보, 관련 리콜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 예약과 결제, 블루멤버스 포인트 사용, 각종 쿠폰 혜택,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방문세차, 손세차, 대리운전, 차량이동(탁송), 전기차 픽업앤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거점 구축 현대자동차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거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약 1,200개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를 구축하여 고객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동차 보유 고객을 위해 전기차 전담 블루핸즈 500여 개, 수소전기차 전담 블루핸즈도 70여 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수/이수 대상
H-Map(내방고객 응대 스킬)	504
설명의 기술	239
9회말 2아웃 역전의 승부수	141
신의 한 수	82
이미지메이킹 교육	55
지점 고객 응대 역량 강화 교육	14
이노가이드 CS교육	274
CS Way	198
응대의 정석	125
고수의 설명법	78
제네시스 응대의 품격	116
고수의 상담법	96
불만고객응대	96
블랙컨슈머 응대 스킬	135
홀인원 불만고객응대	25
하이테크센터 트립	42
컨시어지/드라이버 CS기본과정	16
CS 인사이트 포럼	37
응대불만 VOC 사례연구	22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스킬	48
신임 지점장 CS Way	신임 지점장 전원

전기차 구매상담 가이드 'EV GUIDE' 발간

현대자동차는 고객 경험 제고를 위해 2023년 전기차 구매상담 가이드인 'EV GUIDE'를 발간하였습니다. 매년 현대·제네시스 판매 전시장 내 고객 서비스 환경 및 품질을 점검하고 VOC를 상세 분석하여 고객 경험 개선 방향성을 도출, 이행합니다. 2023년에는 고객 상담 시 전기차 차량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경쟁사 대비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 응대력 제고를 위한 카마스터용과 고객 구매여정에 맞춘 설명을 종합한 고객용으로 구분된 'EV GUIDE'를 제작하여 전체 판매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카마스터용 'EV GUIDE'는 충전 안내, EV 특화 기능, 상담 포인트, 보조금 안내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고객용 'EV GUIDE MAP'은 비교·탐색, 구매·계약, 이용·보유 과정별 안내사항 및 상품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활동 시 전기차 주요 구매 요인인 가격, 인프라,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여 전기차 차량 설명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서비스 브랜드

블루핸즈	•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루멤버스	• 현대자동차 오너 대상 서비스 -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오너를 위한 고객 서비스로 차량관리는 물론, 다양한 블루멤버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즐겁고 편리한 CAR-LIFE 지원
블루링크	•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 최신 I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주요 서비스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및 정비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 고객이 희망하는 곳을 방문하여 22~44km 주행 가능한 7kWh를 무상 충전
홈투홈 서비스	•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차량을 인수,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
대여차 서비스	• 보증수리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운행불가 기간 동안 차량 대여

고객경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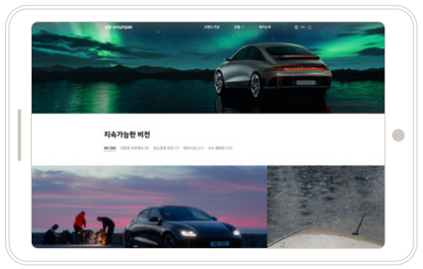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브랜드

브랜드 관리

브랜드 관리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글로벌 포털인 '현대 브랜드 홈(Hyundai Brand Home)'을 통해 브랜드 전략·아키텍쳐·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은 전사가 일관되게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의 방향성을 안내하고, 브랜드 아키텍쳐는 차량·기술·서비스 등의 브랜드 및 상표체계와 사용방식을 정의하며, 브랜드 이미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여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전략, 체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브랜드 및 상표 이미지 등의 적용·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수하는 글로벌 브랜드 모니터링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브랜드별 가격, 성능, 품질, 친환경성 분야로 구성된 지표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구매의향,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브랜드 추적 조사(BTS, Brand Tracking Stud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당사 브랜드의 신뢰성, 경쟁력, 서비스, 경제성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진정성 요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표는 친환경 차량(HEV, PHEV, EV) 브랜드(아이오닉, 넥쏘)에 대한 고객의 구매의향, 인지도, 선호도, 속성정보(혁신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 브랜드 차량의 시장가치를 평가받는 등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 결과는 판매지역별 브랜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도출하는 등 마케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브랜드 저널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결과 분석 브랜드 추적 조사를 통해 고객이 당사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 사유, 구매 이전·과정·이후 등 고객경험 단계별 불만족 원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부정적 경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파악하여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콘텐츠 관리 방안 및 판매채널 운영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항목

가격	• 경쟁사 대비 당사 차량 가격에 대한 고객의 수용성(Price Perception 조사 기반)
성능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내구성, 첨단 기술력 등의 점수 분석
품질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보증 수준, A/S 품질, 신뢰성 등의 점수 분석
브랜드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브랜드 평판, 진정성, 전통, 인지도 등의 점수 분석
지속가능성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항목, 모빌리티 비전, 혁신성, 전도유망 등의 점수 분석 등의 점수 분석 • 친환경 차종이 Aided Awareness, Brand Perception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분석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 기준 (환경성 표시·광고 자가진단표)

진실성	표시·광고가 사실인가요?
표현의 명확성	표시·광고 내용이 정확하고 명료하며,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현되고 있나요?
대상의 구체성	표시·광고 대상이 기업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상당성	실제로 개선된 환경성에 대해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하고 있나요?
자발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정보의 완전성	환경성 표시광고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기업 홈페이지, 웹링크, QR코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손쉽게 접근 가능한가요?
관련성	환경성 주장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환경성 개선의 관한 것인가요?
실증 가능성	환경성 표시광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확보하였나요?

* 출처: 환경부 '그린워싱 예방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윤리적 마케팅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올바른 제품·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광고 및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및 마케팅 윤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제품·서비스 정보의 오기 및 누락, 제품·서비스 효용의 과장 및 축소, 경쟁기업·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 광고 및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 실시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성 경영활동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표시·광고물에 대한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점검은 2024년 1월 현재 온·오프라인에 게시 중인 국내 모든 컨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친환경 제품 광고 및 공식 홈페이지, SNS 게시물, 브랜드 캠페인, 보도자료 등 대해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부문 팀장 및 실무자 대상 그린워싱 예방 교육 및 뉴스레터 발송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그린워싱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제품 환경·안전 정보 라벨링 현대자동차는 차량 제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용하는 물의 양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나 승객감지 시스템, 카시트 탈부착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정보의 허위, 과장, 축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라벨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국가별 제품 정보 라벨링

한국	제품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량 총 중량, 제작연도, 타이어 등 자기인증 정보	**유럽**	제품	차량 ID, 각종 단품 인증 E-마크 (램프, 안전벨트, 경적기, 미러, 글라스 등)
	환경	연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정보		환경	디젤엔진 스모크,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 냉매 관련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등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임시 스페어타이어 속도 브레이크액, ISOFIX CRS 앵커 정보
중국	제품	차량 ID, VIN(W/screen), 도난방지 정보	**북미**	제품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정보
	환경	연비 정보		환경	VECI(배출가스 인증정보 기재), 냉매 정보
	안전	CCC, CRS 경고 에어백 정보		안전	타이어 공기압, 안전 인증, 에어백 경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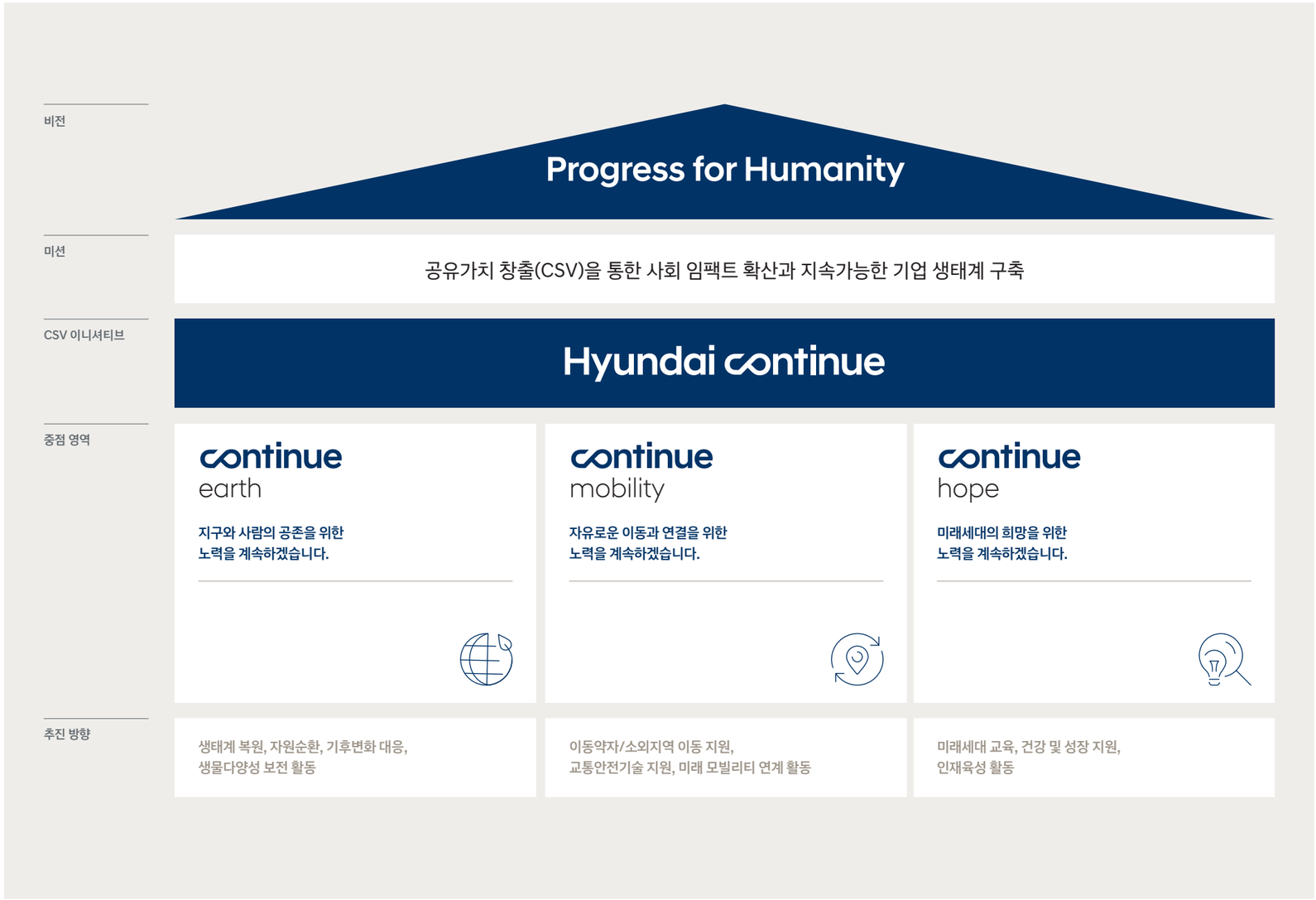
공유가치 창출

CSV 이니셔티브

CSV 추진체계

CSV 전략 추진 현대자동차는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를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Hyundai Continue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SV 전략체계



공유가치 창출

국내외 CSV 활동

친환경 (Earth)

폐기물 수거 및 업사이클링

해양 생태계 보존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유럽, 한국, 미국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사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기물 중 하나인 유실 어망들을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폐그물들은 섬유 생산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에코닐은 유럽 내 판매되는 아이오닉 5 및 아이오닉 6 차량의 플로어 매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사업을 개시하여 어업 활동 중 버려지는 폐어망을 수거하기 위한 집하장을 구축했으며, 이를 재원료화 하는 소셜 벤처 넷스파(Netspa) 등과 협력하여 자동차 부품 소재로 양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2023 주요 성과 유럽 내 8개국과 한국, 미국에서 14회에 걸쳐 약 1.75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미래세대 해양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정자항에 폐어망 집하장을 조성하고 폐어망을 재원료화 하기 위한 수거망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수거한 폐어망을 재활용하여 자동차 부품 소재로 양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폐어망을 수거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수송망 친환경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

인도네시아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2년 8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내 20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아동친화공간(RPTRA, Child Friendly Integrated Public Space)에서 협력 파트너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플라스틱페이(Plasticpay)와 함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되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브카시(Bekasi)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 순환경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프로젝트 론칭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3 주요 성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총 71개의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 2월까지 누적 22,666명의 아이들과 함께 아동 주도형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4년까지 운영 수거함을 총 100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폐기물 수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홍천'에 국제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와 탄소 흡수율이 높은 백합나무 총 7,50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5 특장차량을 통해 임도 주행이 가능한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스마트 산림경영을 위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 모니터링 및 식재지 3D 맵핑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드론은 V2L 기능을 통해 충전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체코, 베트남, 브라질, 독일, 튀르키예, 인도에서도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북미에서는 임직원 자원봉사 연계 활동과 아이오닉 5 및 아이오닉 6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오닉 포레스트 체코는 베스키디 산맥의 초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씨앗과 묘목을 심고 희귀 나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브라질은 대서양림을 복원함과 동시에 상파울루 농업대학과 협업하여 브라질 공장 인근에서 열대우림 복원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파트너와 함께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3 주요 성과 아이오닉 5 특장차량을 통해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스마트 산림경영을 위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 브라질, 인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한 해 동안 26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을 포함해 한국, 브라질 미국, 독일 등의 지역에 50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 확대 운영을 통해 드론 씨드볼 식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국내외 CSV 활동

모빌리티 (Mobility)

엑스블 멕스 착용로봇 재활 지원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재활 지원을 통해 이동약자의 신체적 한계 극복 및 이동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은 보행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하지근육 재건 및 관절운동을 돕는 의료용 착용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보행 보조를 위한 동력원인 배터리 인증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현대자동차는 서울아산병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보행장애 환자 대상 보행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총 2대의 의료용 착용로봇을 기증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향후 약 2년간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과도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여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재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인류의 더 나은 삶의 목표로 하며, 착용로봇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하여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성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는 서울아산병원, 국립재활원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2024년까지 착용로봇을 활용한 보행재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셔클(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이동약자 지원

현대자동차는 2023년 7월 안산시, 경기교통공사, 경원여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이동약자의 이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부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활용한 이동케어 똑버스 2대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똑타' 애플리케이션 및 전화호출, 주요 시설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탑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똑타는 현대차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셔클'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수요 및 교통상황을 반영해 차량이 배차되어 원하는 장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똑버스는 휠체어가 장착된 대형 승합차(쏠라티 7인승)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활동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까지 총 3년간 대부도 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케어 똑버스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국내외 CSV 활동

미래세대 (Hope)

Hyundai Hope on Wheels & Help for Kids

Hyundai Hope on Wheels

'Hyundai Hope on Wheels'는 미국판매법인이 딜러와 함께 설립한 비영리재단이자 프로그램으로, 소아 종양학 연구 지원 및 소아암 인식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시작, 현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소아암 관련 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암으로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혁신적인 소아암 연구·치료 및 사회복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주요 성과 Hyundai Hope on Wheels는 25주년을 기념하여 소아암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67개 병원 및 의료기관에 2천 5백만 달러 기부를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며 환자와 의사, 그리고 현대차 딜러들과 약 60여회 핸드프린팅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9월 소아암 인식의 달을 맞이하여 워싱턴 D.C.에서 연구자, 후원자, 파트너사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약 270명과 함께 갈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Hyundai Hope on Wheels는 2024년에도 26주년을 기념해 2천 6백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으로, 이로써 누적 기부금액이 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아암이 완치된 환자들의 새로운 성장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5백만 달러 규모의 Survivorship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금은 환자들의 치료 기록 관리, 비대면 진료 및 중장기 케어 등 일상 회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Hyundai Help for Kids

현대자동차 호주판매법인은 2014년부터 딜러와 함께 질병 극복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Hyundai Help for Kid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린이 관련 비영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이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주요 성과 Hyundai Helps for Kids는 2014년부터 누적 1천 3백만 호주달러를 모금하였으며, 거점 병원 치료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 및 간병 보호자 임시휴가부터 질병 치료, 연구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1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Hyundai Help for Kids는 2024년에 10주년을 맞이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정부 관계자들 및 딜러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교육

미래 모빌리티 학교

현대자동차는 2016년 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모빌리티 산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클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및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 교재와 교구재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로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2023년부터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로 확장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주요 성과 2023년에는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30개교 및 해외 3개국 12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및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 교류를 지원하여 참여 교사 및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4년에는 태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미래 전략기술인 차량 전동화·자율주행·로보틱스 총 3개 과정에 대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화교육의 경우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고 실전 역량까지 갖춘 모빌리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로보틱스 심화교육 과정에서 해커톤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이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 주요 성과 2023년에는 로보틱스 심화과정 리뉴얼 및 SW(소프트웨어) 강의 추가 개설을 진행했고, 총 3,300명의 교육생이 H-모빌리티 클래스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4년에는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심화과정 리뉴얼을 통해 모빌리티 실습 경험을 제공함과 더불어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Governance

ESG 경영에 있어서 G(거버넌스)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자 기본입니다.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4.1	이사회 책임 경영
4.2	주주 친화 경영
4.3	윤리·준법 경영
4.4	리스크 경영

이사회 책임 경영

현대자동차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 정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책임 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 금융, 법률, 거버넌스,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사의 임기

2024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총 1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6년이며, 한국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에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3명(재선임 2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2명(재선임 2명)입니다.

이사의 선임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및 겸직 제한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한 엄격한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 및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타기업 겸직을 허용 받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2명의 외국 국적 이사(Jose Munoz, Eugene M. Ohr)와 2명의 여성 이사(이지윤, 최윤희)가 있습니다. Jose Munoz 이사는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Global COO)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실적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진 오 사외이사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자산 운용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선임되었습니다. 이지윤 사외이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능형 교통 및 자율 무인 시스템 안정성 보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자율주행기술과 UAM(Urban Air Mobility)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당사의 미래 핵심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교수는 법무 전문가로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노사관계 관련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성별	국적
사내이사	정의선[1)]	대표이사 회장	現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2010.03.12	남성	대한민국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담당사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동석	대표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2022.03.24	남성	대한민국
	호세 무뇨스	사내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2023.03.23	남성	미국·스페인
	이승조	사내이사 전무	現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2024.03.21	남성	대한민국
사외이사	윤치원	사외이사	前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		2019.03.22	남성	대한민국
	유진 오	사외이사	前 Capital International, Inc. 파트너		2019.03.22	남성	미국
	이상승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19.03.22	남성	대한민국
	심달훈	사외이사	現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지윤	사외이사	現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前 미 항법학회 이사	2021.03.24	여성	대한민국
	장승화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2023.03.23	남성	대한민국
	최윤희	사외이사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03.23	여성	대한민국

* 2024년 3월 21일 기준 1) 이사회 의장

이사회 역량구성표

역량 지표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	호세 무뇨스	이승조	이상승	윤치원	유진 오	심달훈	이지윤	최윤희	장승화
리더십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법률/정책			●		●	●			●		●	●
글로벌 역량	●	●		●	●		●	●	●	●		●
ESG	●	●	●		●	●	●	●			●	●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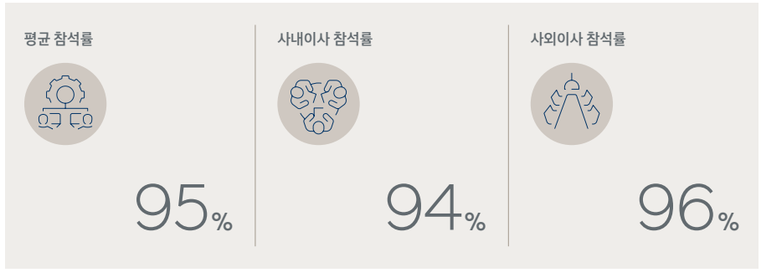
이사회 소집 및 개최

이사회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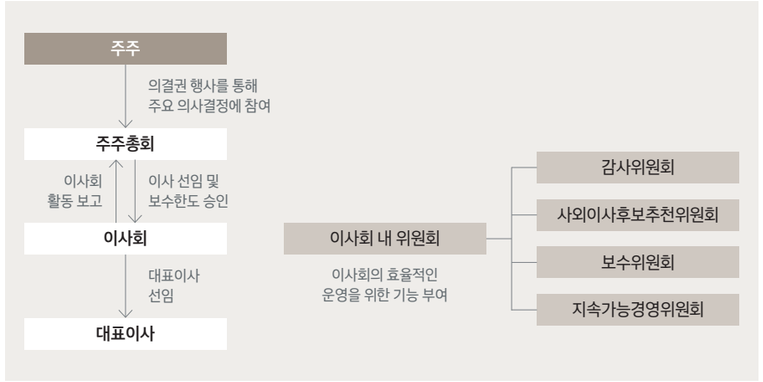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 시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하며,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2023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일자	내용	가결 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01.26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수정 가결	100%	100%
		제5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가결	100%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국내 인증중고차 사업 추진 계획, 해외 생산법인 증자 참여, HTWO광저우 합자법인 설립 계획	보고	-	
임시	02.22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전자투표제 실시 연장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현대캐피탈 캡티브 금융 중장기 사업 전략	보고	-	
임시	03.23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가결	100%	100%
		이사 경업 승인의 건(서강현 이사: 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커머셜, 장승화 이사: (주)LG, 최윤희 이사: 한진칼)	가결	100%	
2차 정기	04.25	타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92%
		해외 합작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Supernal 사업 추진 현황 및 투자 계획	보고	-	
임시	05.24	해외 합작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가결	100%	92%
3차 정기	07.26	제56기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선임의 건	가결	100%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글로벌 차량 안전현황, 안전보건 주요 현안 발생	보고	-	
임시	08.29	타법인과의 전략적 협업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 보호기준 제정의 건	가결	100%	
임시	08.30	해외 계열회사 주요 경영사항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4차 정기	10.26	제56기 3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배터리사 신공장 건설비용 대여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임시	12.19	이사 경업 승인의 건(서강현 이사: 현대제철)	가결	100%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임시	12.19	HMMR 지분매각 승인의 건	가결	100%	67%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및 활동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사외이사에 의한 자체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정기적으로 독립된 제3자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사회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산업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제3자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들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사회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계, 금융, 법무,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정기 방문 및 주요 부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치원 사외이사와 최윤희 사외이사는 각각 주주권익 보호 및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지윤 사외이사는 당사 경영진과의 미래기술 관련 면담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제56기 주주총회에서 AAM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교육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업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신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자동차산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전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고객의 가치 소비 가속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는 CEO 직속 조직으로 리스크 전담 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여, 공급망을 비롯해 완성차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내외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최윤희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임원 대상으로 준법자가점검,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내 준법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리

현대자동차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독 하에 주주권익의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관련 정책, 윤리규범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회사 윤리헌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리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글로벌 환경 이슈 및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 전략, RE100 로드맵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기후변화 이슈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 및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국내외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부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현대자동차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사회 교육 현황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여 이사
01.26	제네시스 디자인 방향성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04.25	현대차 리스크 대응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04.25	EV 중장기 사업 전략	
07.26	현대차 전략투자 현황	
10.26	ESG 정보공시 규제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10.26	중국 업체 대비 경쟁우위 확보 방안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보수 지급

이사 보수지급 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내이사는 내부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직무, 직급, 리더십, 회사 기여도, 인재육성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상여는 성과 인센티브를 기초로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 및 기여도 등을 기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별도 경영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기본연봉과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연봉은 당사의 경영진 보상 체계(Table)에 따라, 직위급과 직책급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책정되며, 경영진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3~4년 주기로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0~20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50%)과 주요 KPI(50%)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주요 KPI(40%)와 MBO(50%), 그리고 정책 관련 항목(10%)을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KPI 평가에는 대내외 ESG 평가결과 및 ESG 중점 개선과제 수행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분	CEO	일반 경영진
기본연봉	경영진 보상 체계에 따라 직위급 + 직책급 합산하여 개인별 책정	
성과 인센티브	회사재무/사업실적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조직성과/개인성과/정책지표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재무실적 (50%) + 회사 KPI (50%) = 성과 인센티브 등급	KPI (40%) + MBO (50%) + 정책 (10%) = 성과 인센티브 등급
	매출액 30% 손익 70%	재무지표 35% 사업전략지표 45% 지속경영지표 20% 공통지표(가감점)	S/A/B/C/D	부문별 주요 KPI 평가 결과* * ESG 포함	KPI 외 연간 성과목표 - 전략 목표 - 업무 목표 - 인재육성 목표 - 기타 등	Culture Survey 현장관리력 등	S/A/B/C/D

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CEO[1]	이사회[2]	사외이사	직원	CEO-직원 보수 비율
1인당 평균 보수액	3,894	1,464	115	117	33배

*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3년 사업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1] CEO: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기준
[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 포함 기준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명은 회계·재무 전문가의 선임을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윤치원, 이상승, 심달훈)은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오랜 기간 세무전문가로 재직한 심달훈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 감사 조직과는 다른 시각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법무, 금융, 회계·재무, 미래기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관련 주주총회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윤치원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전문분야	경영·금융	경제·거버넌스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비감사용역 승인 현대자동차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되고, 활동 중 확인된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내역

사업연도	계약일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제56기	2022.06.23	한-캐나다 APA 갱신 자문 업무	2022.08.05~타결시까지	150
	2023.12.20	한-스페인 상호합의 및 쌍방 APA 지원	2023.12.20~타결시까지	180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구성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이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윤치원	심달훈	이승조
전문분야	경영·금융	재무·회계·세무	재경·전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성명	유진 오	이상승	최윤희	정의선	장재훈
전문분야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거버넌스	법무	경영전반 총괄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투명경영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윤치원 사외이사는 UBS 자산관리부문(Wealth Management)에서 재직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의 주주환원가치 및 자본배분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ESG 경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 점검,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임직원 관련 윤리적 이슈 점검 등 내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전문분야	경영·금융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거버넌스	재무·회계·세무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장재훈
전문분야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법무	경영전반 총괄

2023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일자	내용	가결 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01.26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사회공헌 주요활동 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 증여 승인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8건): 2022년 하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사항 및 추진계획 등	보고	-	
임시	02.22	보고사항 (1건): 공급망 ESG 이슈	보고	-	100%
임시	03.2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100%	100%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3건): 2023년 ESG 추진 방향, 임원 성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이사회 제3자 평가결과	보고	-	
2차 정기	04.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승인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3건): 2023년 1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2023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3년 1분기 준법지원 활동 내역	보고	-	
임시	06.13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보고사항 (1건): 중장기 전동화 전략 및 재무 목표	보고	-	
3차 정기	07.26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7건): 2023년 상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년 상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등	보고	-	
임시	08.29	보고사항 (2건): 해외 계열회사 주요 경영사항, 한국경제인협회 회원 가입 관련 현황	보고	-	100%
4차 정기	10.24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88%
		계열회사와의 거래(브랜드사용료)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계동사옥 임대) 승인의 건	가결	100%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 승인의 건	가결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심의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5건): 2023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진행 현황, 수소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추진 현황 등	보고	-	

주주 친화 경영

현대자동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NDR 등의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식발행 현황

현대자동차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274,169,670주이며, 보통주 211,531,506주, 우선주 62,638,16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우선주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 수	발행주식 수	비고
보통주		450,000,000	211,531,506	의결권 있음
우선주	우선주	150,000,000	24,113,119	의결권 없음
	2 우선주		36,120,597	의결권 없음
	3 우선주		2,404,448	의결권 없음

* 2023년 말 기준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주주회의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1주 1의결권 부여)

현대자동차의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 소유 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및 위임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혹은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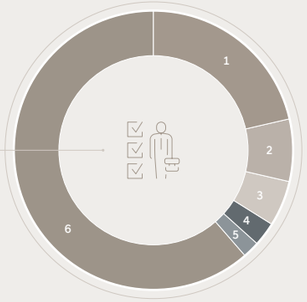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시 안건별 찬반 주식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개별 안건 상정

현대자동차는 이사의 선임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합계
211,531,506



주주명	종류	지분율 (%)	주식 수
1 현대모비스	보통주	21.64	45,782,023
2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7.13	15,075,239
3 정몽구	보통주	5.39	11,395,859
4 정의선	보통주	2.65	5,598,478
5 우리사주조합	보통주	1.86	3,937,894
6 기타	보통주	61.33	129,742,013

* 2023년 말 기준
** 정부기관 보유 지분 중 황금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 수는 최근 소유자 명세(2023년 말 기준) 등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2024. 03.)

부의 안건			가결 여부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이사 선임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심달훈)	원안대로 승인
	제2-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재훈)	원안대로 승인
	제2-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석)	원안대로 승인
	제2-2-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승조)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지윤)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달훈)	원안대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주주 친화 경영

주주와의 소통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설명회 정보 및 일정

현대자동차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분기, 상반기, 3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경영실적발표부터 모든 주주들의 IR 접근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는 웹캐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Non Deal Roadshow(NDR)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도 참여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목표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시

현대자동차의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DART, KIND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2건의 공정공시와 4건의 자율공시를 포함하여 총 210건의 공시를 제출하여 회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영문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영문공시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중장기 재무목표와 전략을 공시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과 기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당사의 ESG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업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공시를 통해 향후 연간 Free Cash Flow의 30~50% 수준을 주주환원으로 활용 추진, 중장기적 배당성향은 글로벌 경쟁사 수준 지향, 추후 경영환경 감안하여 현저한 수준의 배당 감소나 증가 시 사유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더욱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4월 25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의 가시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25% 이상의 배당성향(우선주 포함)을 달성하고,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향후 3년간 1%씩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신뢰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당 실시를 결정한 이사회 당일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결산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결산배당금을 공시하고 배당의 지급기준일은 그 이후인 2월말로 설정하여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주환원 현황

사업연도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배당성향	
			주당 배당금 (원)	총 배당금 (백만 원)	시가 배당률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3년	보통주	-	11,400	2,320,806	4.7%	25.1%	40.8%
	우선주	-	11,450	251,054	7.4%		
	2 우선주	-	11,500	399,821	7.3%		
	3 우선주	-	11,450	26,975	7.5%		
2022년	보통주	-	7,000	1,412,321	4.5%	24.9%	49.4%
	우선주	-	7,050	154,579	8.8%		
	2 우선주	-	7,100	246,846	8.8%		
	3 우선주	-	7,050	16,609	9.1%		
2021년	보통주	-	5,000	999,057	2.4%	26.3%	201.5%
	우선주	-	5,050	111,365	5.0%		
	2 우선주	-	5,100	178,275	4.9%		
	3 우선주	-	5,050	11,961	5.2%		

윤리·준법 경영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준법지원 온라인 시스템, 자가점검, 가이드라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확산

윤리경영 헌장

현대자동차는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리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5대 윤리경영 헌장은 임직원이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윤리경영 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천규범은 부패 및 뇌물, 차별, 정보 비밀 유지, 이해관계 상충, 독점 금지 및 반경쟁적 관행, 자금세탁 및 내부거래, 환경, 보건 및 안전,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뇌물금지 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은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부패 및 뇌물 관행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선기부 및 후원에 대한 내부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임직원 성과관리 및 승진 (윤리/준법) 현대자동차는 직원 역량평가에 직장 내 윤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에는 인재존중, 규범준수가 포함되며, 리더 대상 역량평가에는 원칙과 소신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직원 승진 심의 시 윤리/준법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승진 공통 심의항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징계제도 운영 (윤리/준법) 현대자동차 직장윤리규정 제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에 의거, 윤리규범 위반자는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리스크 감사·제보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내 준법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 업무를 지원하고 법 위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 정착 및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제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 금전·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등 윤리경영 위배 행위 제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최대 해고에 이르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직장윤리규정 내규에 임직원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내부신고자 및 관련 정보 비밀 유지, 불이익 처분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 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직장 윤리규정 3장 9조(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보자 보호조치

1. **비밀 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2. **신분 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3.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

실천규범 내재화

현대자동차는 정기적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및 사내방송을 통해 반부패, 공정거래, 사이버 보안 등 주요 윤리 이슈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 이행의 총괄 감독과 더불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실천규범 개정 관련 의결은 2021년 3월 확대 개편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천규범 이행실태 조사

현대자동차는 2023년 부패 및 뇌물수수, 차별 및 괴롭힘, 고객정보, 이해관계 상충, 자금세탁, 내부자거래 관련 총 10건에 대해 징계(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분	징계 건수
부패 또는 뇌물 수수	3
차별 및 괴롭힘	7
고객정보	-
이해관계 상충	-
자금세탁 또는 내부자거래	-

주요 제보 채널



사이버 감사실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



전화 제보

+82-2-3464-3500



팩스

+82-2-3464-8813



서신 접수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

윤리·준법 경영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현대자동차 준법경영

준법경영이란 회사가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범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준법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준법통제 규정·정책 준법통제기준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을 근거로 준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두어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반부패/뇌물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을 두어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조직 현대자동차는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역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속 부서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반부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 영역에 관해 부서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스스로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리스크를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정거래 유관부서인 구매,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약관규제, 하도급법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가점검 문항을 개발하여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

준법가이드라인 배포 현대자동차는 업무영역별 약 40여 종의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를 업데이트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최근 심결례 및 판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행동지침과 자가점검리스트, Q&A를 추가하여 임직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법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신규 입사자, 승진자, 보직자, 해외 주재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 직원 대상 카르텔(담합) 온라인 준법교육, 신임 팀장·책임 대상 정보교환, 하도급법 규제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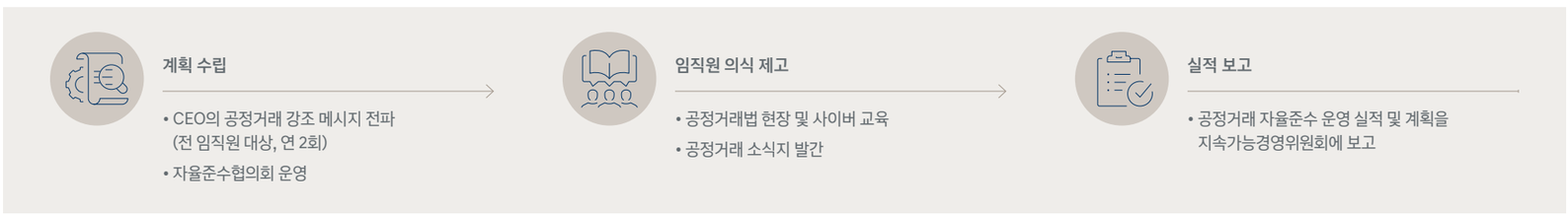
준법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 및 콘텐츠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준법 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0개, 영문 계약 20개)를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준법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 실천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준법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법적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설계 및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을 제작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정기 소식지 발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공정거래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부서특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매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국내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의 개념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격월로 부당한 공동행위, 영업비밀보호,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이슈를 소개하는 준법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연 3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현황

연도	교육 횟수 (회)	참여 인원 (명)
2020년[1]	3	8,456
2021년[1]	4	8,261
2022년	4	1,779
2023년[2]	12	4,404

[1] COVID-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진행
[2]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인원 및 뉴스레터 수령인원은 제외

반부패 및 공정거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윤리행동 지침서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반부패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등 부당업무처리 방지,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리스크 경영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같은 핵심 기술 내재화와 ESG 리스크 및 경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였으며 임직원 대상 핵심 리스크 지표와 연동된 성과 평가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들이 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전사 경영전략, 전기차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영역에서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사 ESG 리스크 대응과제 추진방안과 이행 현황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사업장 ESG 실사 체계 구축 등 7개 리스크 대응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도 지속가능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기획과 재경본부를 총괄하는 CFO가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전략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월 단위로 경영전략회의를 소집하여 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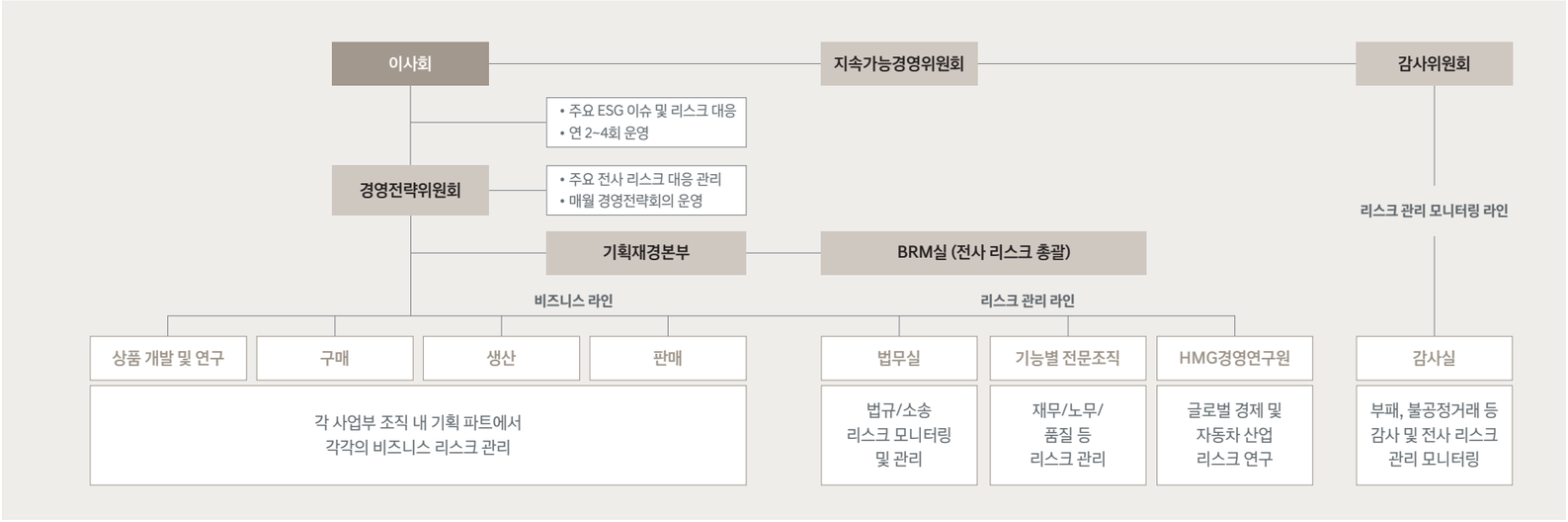
전담 조직 2023년 신설된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본부 내 선정된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직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은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효과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부별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 외에도 본부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별(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로 구성된 본부 내 기획팀에서 리스크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미주, 유럽, 인도 및 아시아, 중국 등 권역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내 기획담당 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별 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 관련 조직에는 법규 및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실, 재무·노무·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능별 전문조직, 거시·미시 시장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경영연구원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에서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부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직원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인된 리스크는 주·월·상시 리스크 점검회의를 기반으로 식별·점검하며, 보고 및 선제 대응하는 순서로 관리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의 경우, 판매생산 회의, PM(Product Management, 신차개발 총괄)·상품전략 회의 등 별도의 리스크 점검 회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리스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경영

리스크 대응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 강화, 제품 및 사업구조의 전동화 전환,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안전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는 자사의 경영 전략인 '2025 전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전기차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시장 경쟁 심화, SDV(Soft Defined Vehicle) 기반 혁신 가속화 등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도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포함한 전기차 경쟁 우위 확보, SDV 기반 제품 혁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EV 이용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솔루션 제공 및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미래 전략을 기반으로 전기차와 SDV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시장 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리스크 점검 체계

현대자동차는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현업 대응체계 및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재할 경우, 리스크 대응 내부 조직간의 R&R를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생가능성이 높고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대 리스크를 선별하여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매달(연간 12회) 점검하고 리스크로 인한 영향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활동 제약, 재무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리스크 사전 예방과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요 ESG 리스크와 당사 대응 과제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대응 과제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은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내부 리스크 점검 및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감사 체계 외에 배터리 핵심소재 구매 전략과 구매 프로세스 등 내부 리스크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에 대해 컨설팅 기관을 통한 외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지표 연동 보상 체계

CEO 등 C레벨의 경영진들의 KPI에 글로벌 손익 관리 등의 재무 리스크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 점유율, 신차 품질문제,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KPI 지표를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가 매년 시행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포함 보수 체계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특히 CFO의 경우 글로벌 손익 및 매출액, 현금 유동성 등 재무적 리스크 지표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과 같은 시장 리스크 지표, 전기차 판매 확대, 가격 경쟁력(원가 절감), 주가 및 ESG 평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들도 CFO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규제 준수, 미래사업 관련 인재 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차량 리콜 등 주요 리스크 지표들이 각 유관 본부의 KPI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부의 성과 평가는 KPI 기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평가결과는 본부장뿐 아니라 사업본부 임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각 본부의 팀장 및 팀원의 성과평가 목표 입력 시 KPI 지표는 임원의 목표와 연계되어 해당 본부 임직원의 성과 및 보상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승인시 리스크 점검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및 승인 단계별 리스크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본 성능 점검부터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각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점검 기준은 크게 연구소와 생산공장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측면에서는 '제품 기능 오작동 리스크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연구소 내 Proto 차량 제작 및 검수'와 '차량 양산 가상환경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되며, 생산공장 측면에서는 '실제 공장 내 양산 환경 조건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 '대량생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됩니다. 4가지 리스크 기준 점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교육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사업 현황, ESG 리스크, 다양성, 신사업 관련 리스크 등의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현대자동차 리스크 대응 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EV 중장기 사업 전략, 전략투자 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중국 업체 대비 경쟁우위 확보 방안, 제네시스 디자인 방향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전사 대응 전략인 '2025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 리스크 대응 방향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2025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전략에 대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롭게 부각하는 ESG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제(EU CSRD, ISSB) 등 새롭게 제정되는 ESG 관련 규제들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주요 리스크 동향을 다룬 'Weekly B.I. Briefing(리스크 동향 보고서)' 등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리스크 선호도 결정 프로세스 및 검토 결과

현대자동차는 기획재경본부 내 BRM실에서 리스크 규모(당사 비전과 목표, 미래 경영전략, 시장 내 입지, 재무적 능력을 포함한 리스크 부담 능력, 잠재적 손실 또는 이득 규모 등을 기반으로 결정) 및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리스크 선호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전략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전기차 확대 전략 등 미래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전사 전략을 결정하고 있으며, CEO Investor Day를 통해 전략 내용을 대외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명확한 이득 및 보상 기회를 제공하는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안전보건 리스크, 사이버 보안 리스크 등 임직원, 가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핵심시장인 미국 전기차 확대 전략과 이 법안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선호 여부가 평가되었으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전기차공장,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위반이나 과실, 법률 및 규정 위반, 사기, 뇌물수수, 부패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리스크 감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규제 리스크

자동차회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제품과 관련된 환경·안전·품질·인증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_2 배출규제 및 기업 평균 연비규제의 경우, 해당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2월, EU의회 의결을 통해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55% 감축, 2035년에는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_2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국의 CO_2 배출규제 또는 연비규제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판매실적에 기반해서 규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미달 가능성에 대비하여 판매물량 조정은 물론 누적 크레딧 사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2017년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현대자동차 중국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와 같이, 정치·정책과 연관된 리스크는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기차가 미래 이동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기반한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의 자급 자족적인 공급망 구축 등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들이 현대자동차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정치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PCO, Policy Coordination Office)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정치·정책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자국 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국 내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포함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국 내 현지 생산비중 증대와 더불어 현지 완결형 생산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회사의 생산 지연이 장기화된 사태와 같이 특정 부품의 수급불안이 전체 생산을 지연시키는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 소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6배 많은 전기차의 경우,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광물 수급 부족 등과 같이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광산 개발 증가로 인한 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 있는 광물 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략 소재와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 추진, 전략 소재에 대한 직접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소재 및 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여 2023년 구매, 연구소, 판매, 재경 등 전 부문이 참여하는 원자재협의체를 신설하여 원자재 관련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6대 원자재 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시황 변동 상시 모니터링과 손익 영향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자동차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거시 경제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품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와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물가급등을 초래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고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주요국의 경기부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율이 높고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들은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시경제 및 산업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문 조직(HMG 경영연구원)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와 연관성이 높은 경기선행지표를 기반으로 경기순환주기와 신차 중장기 수요를 예측·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유럽 경기침체 현실화, 중국 경기불안 심화 등의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생산·판매 조정, 새로운 대체시장 발굴, 신모델 출시 강화 등 전사 대응책을 수립하여 거시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리스크

2022년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국들의 화폐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리스크들에 대한 민감도,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시장 리스크(환·이자·가격),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파생상품 리스크 등이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리스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별 단기·중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차입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 리스크 관련해서는 원화 절상 및 절하 시나리오별로 환 리스크를 파악하여 환헤지 확대, 환손실 만회 방안 등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구분		주요 리스크 내용	리스크 노출도 평가		대응 조치
			발생 가능성[1]	크기[2]	
비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제품과 사업장 관련 규제(차량 CO_2 규제 등)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하	상	차량 CO_2 규제 또는 기업평균 연비규제 대응하여 단기·중장기 사업계획에 규제대응 물량 반영 등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 중심의 핵심 원자재 자급자족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 등으로 인한 판매·수출 제한 리스크	중	상	현지 생산비중 증대 및 자급자족적 현지 생산체계 구축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리스크	중	중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 예측력 강화,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 분석 등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조달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리스크, 수급 부족으로 생산 지연·중단 리스크	중	상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 내재화, 전략 소재 직접 구매 확대 등
	운영 리스크	제품·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 사업 운영과 연관된 리스크	중	하	각 본부별 기획부문에서 운영 리스크 파악/분석/대응
재무 리스크	환 리스크	USD, EUR, JPY 등 주요 외화 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 리스크	중	중	외환 유입 및 유출 일치 통해 리스크 제거, 원화 절상·절하 시나리오별 분석 통해 환 리스크 관리 등
	금리 리스크	미국 등 주요국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승	중	중	여유 유동성 보유법인 위주 차입 상환 등 재무건전성 제고 통한 금리상승 리스크 대응
	유동성 리스크	현금 유동성 부족 및 시장 리스크 과다노출 리스크	하	중	장단기 자금계획 정교화, 자금조달 체계 구축, 금융자산 듀레이션 관리 등

[1] 발생가능성((Likelihood) 평가 기준: 상(High) 50% 이상, 중(Medium) 25~50%, 하(Low) 25% 미만,

[2] 크기(Magnitude) 평가 기준:
- 양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이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수준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
- 질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전략 및 의사결정을 수반시키는지 여부

잠재 리스크

데이터 공유 관련 규제 강화로 디지털 서비스 경쟁 심화 전망

RISK CONTEXT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는 디지털 기기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은 자동차업체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발효된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데이터 관련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2022년 고객의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해 사용 권한이 IoT(Internet of Things) 제품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현재의 업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 데이터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될 시 현재 데이터 보유자인 제조사는 일정 조건 충족 시 B2C, B2B, B2G 간 데이터 제공 의무를 갖게 되며, 기업 간 데이터 접근·이용 관련 공정한 계약 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무 부여로 인해 차량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증가함과 동시에 향후 외부업체들과의 차량 데이터 공유로 인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 범위 확대로 인해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문제는 물론 데이터 공유과정에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안전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를 포함한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하였으며, 단기적으로 EU 데이터법에 대응하여 차량 주행 데이터에 대한 공개 가능한 데이터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외부와의 공유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이버 보안 및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보유 차량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 약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력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 개발자들과의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대자동차만의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데이터 가공·분석 및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분야에서의 자체 역량 확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제노동금지 규제 확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EU 이사회와 의회는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된 제품에 대한 EU 역내 유통과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인 강제노동금지법(AFLR, Anti-Forced Labor Regulation) 시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EU 의회는 법안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시행하였으며, 압도적 찬성(찬성: 555, 반대: 6명, 부재: 45명)으로 본 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부터 법규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기업이 소명할 때까지 EU 판매 및 수입 금지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판정될 경우 기업 자체 비용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강제노동방지법을 미준수할 경우, EU 역내 판매·수출 중단 리스크는 물론 강제노동 의심 또는 판정 부품의 수입 중단으로 인한 EU 현지공장 생산 지연 및 중단 리스크 등이 우려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준 EU에서 약 6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EU판매차량(현지 생산물량과 국내 수출물량)이 EU 강제노동금지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22년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일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일부 부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업체의 차량 수 천대의 통관 절차가 보류되었으며, 실제로 부품 조달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 강제노동금지법 외 기업 실사법(Corporate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 산림벌채금지법(Deforestation Regulation) 등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 내 강제노동과 산림파괴를 금지하는 EU 법규들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망 및 사업장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사전 식별을 위해 2023년에는 리스크 전담팀인 BRM실, 구매본부, 법무실 등이 협업하여 신뢰도 높은 글로벌 공급망 전문 인권 리스크 모니터링업체의 DB 등을 활용하여 강제노동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내 인권 위험도를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점검/평가를 위해 자사 사업장과 자회사 대상 강제노동, 산림벌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과 환경 침해 리스크 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ESG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멕시코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과 EU 법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체코생산법인 등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도 진행하였으며,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법규 위반, 관리 미흡 사항들에 대한 개선 조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국내외 1차와 2차 협력사 대상 서면진단 평가(에코바디스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구성)가 시행되었으며, 서면 평가 점수 기반 리스크 징후 보유 협력사를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조세 의무

조세 전략

현대자동차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경영의 선제조건이며,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 확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및 국가 재정에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공평 과세 원칙을 존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과세 당국이 제정한 조세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조세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핵심은 '엄격한 법규 준수'입니다. 당사는 투명한 조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세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사실관계 소명 및 증빙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 및 조세피난처 국가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창출된 가치를 낮은 세금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 세법 차이 및 조세 제정 의도를 파악하고 분쟁 소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서, 과세당국 간 과세권 경쟁으로 인한 이중과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 보고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대자동차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팀(개인정보보호팀)과 전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보안경영지원실장)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본부·사업부별 주관부서와 담당자, 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은 정책 및 가이드를 수립·배포하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및 점검합니다. 2023년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 데이터가 사용된 건수는 0건입니다. 또한, 전사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및 주요 서비스 운영부서가 연 1회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안전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관리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운영할 뿐 아니라, 전사 임직원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대상으로 수시·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침해 요소를 분석하여, 위협을 최소화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신구간 및 고객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고, 외부 침입에 의해 유출되더라도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과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설치, 백신 프로그램의 주기적 업데이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의 외부침입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및 외부기관 인증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내부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점검 및 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 카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 2020년부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IEC 27001)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유식별정보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른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체계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체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보안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 및 정보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왔으며, 2022년 1월 유럽에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임직원 대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연 1회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향상을 위해 보안정책에 대한 교육 및 보안 뉴스레터, 보안의날 캠페인, 악성메일 대응 훈련 등의 다양한 보안 예방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자산 취약성 분석

현대자동차는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구축·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역할

현대자동차는 정보보호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를 현대정보보호센터장으로 지정, 전사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PO)를 보안경영지원실장으로 지정하여 보안정책 수립,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점검·분석, 사고대응, 해외보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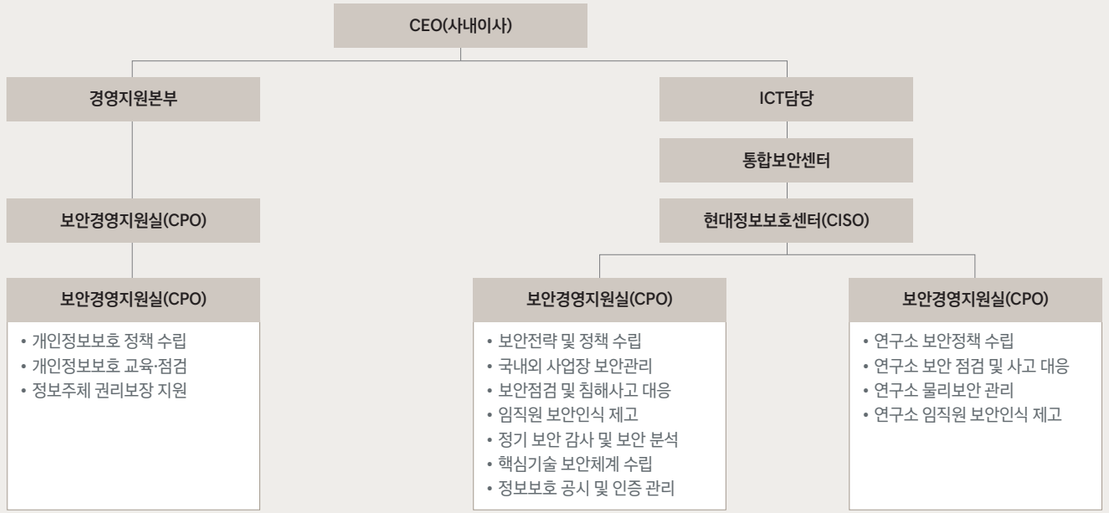
보안심의위원회

현대자동차는 경영층(IT 담당) 주관의 보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보안심의 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주요 유관 부문(HR, 감사, 법무, 연구소, 생산공장 보안 등) 임원들이 회사보안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연 2회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이버 보안 관련 활동

- 해외법인 보안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점검활동 강화
- 보안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자체 침투활동 통한 보안 위협대응 강화
-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에 따른 사고대응 절차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지침' 내 명시 및 연 1회 이상 점검
- 연 1회 이상 임직원 피싱메일 훈련 및 감염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 대상 보안 뉴스레터 배부 및 임직원 보안의날 시행

정보보호 조직 구성



ESG Factbook

5.1	지표 및 데이터
5.2	ESG 인증 및 특허 현황
5.3	GRI 인덱스
5.4	ESRS 인덱스
5.5	TCFD 인덱스
5.6	SASB 인덱스
5.7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5.8	제3자 검증의견서
5.9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5.10	보고서 개요

지표 및 데이터

판매/재무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글로벌 생산 현황	국내	대	1,620,231	1,732,638	1,914,433	승/상용
	인도	대	636,000	706,000	765,000	
	중국[1]	대	334,700	255,000	241,300	
	미국	대	291,500	332,900	369,000	
	체코	대	275,000	322,500	340,500	
	러시아[1]	대	234,150	42,846	-	
	브라질	대	187,300	209,045	204,300	
	튀르키예	대	162,140	208,100	242,100	
	베트남[1]	대	71,381	63,020	46,835	
	인도네시아	대	-	82,500	79,580	
	싱가포르	대	-	-	580	
	기타[2]	대	54,522	44,703	86,270	
	합계	**대**	**3,866,924**	**3,999,252**	**4,289,898**	
글로벌 판매 현황	국내	대	726,838	688,884	762,077	
	해외	대	3,163,888	3,254,038	3,454,821	
	합계	**대**	**3,890,726**	**3,942,922**	**4,216,898**	

[1] 중국/러시아: 승용 완성차 기준, 베트남: 현지조립 기준(승/상용)
[2] CKD 및 위탁상용 생산 실적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재무성과	재무상태표 (연결 기준)	자산총계	십억 원	233,946	255,742	282,463	
		부채총계	십억 원	151,331	164,846	180,654	
		자본총계	십억 원	82,616	90,897	101,809	
	재무상태표 (별도 기준)	자산총계	십억 원	79,758	83,412	85,065	
		부채총계	십억 원	27,083	27,657	24,277	
		자본총계	십억 원	52,675	55,756	60,787	
	손익계산서 (연결 기준)	매출액[3]	십억 원	116,448	142,151	162,664	
		영업이익[3]	십억 원	6,527	9,825	15,127	
		판매비와 관리비[3]	십억 원	15,200	18,447	18,357	
		당기순이익	십억 원	5,693	7,984	12,272	연결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포함
		EBITDA[3]	십억 원	11,082	14,873	20,073	블룸버그 기준[4]
	손익계산서 (별도 기준)	매출액	십억 원	55,605	65,308	78,034	
		영업이익	십억 원	662	2,829	6,671	
		판매비와 관리비	십억 원	8,404	9,342	9,600	
		당기순이익	십억 원	646	3,702	7,343	
		EBITDA	십억 원	3,766	6,222	9,935	블룸버그 기준[4]
	수익성지표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3]	%	5.6	6.9	9.3	
		순이익률[3]	%	4.9	5.6	7.5	
	수익성지표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	%	1.2	4.3	8.5	
		순이익률	%	1.2	5.7	9.4	

[3] 2023년 기말,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HMMR)이 처분 자산집단 및 중단영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교 공시 대상 기간의 금액 재작성
[4] 영업이익,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합

2023년 현대자동차 감사보고서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재무성과	경제적 가치 배분 (연결 기준)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301	1,830	2,999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3]	십억 원	305	523	558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3]	십억 원	9,614	10,638	12,078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3]	십억 원	67,579	80,682	93,205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3]	십억 원	2,267	2,979	4,627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3]	십억 원	66	89	178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합계	**십억 원**	**81,132**	**96,741**	**113,645**	
	경제적 가치 배분 (별도 기준)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301	1,830	2,999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87	190	116	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	십억 원	6,392	7,007	7,861	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	십억 원	37,011	44,184	52,031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	십억 원	344	474	2,332	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	십억 원	38	46	129	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합계	**십억 원**	**45,173**	**53,731**	**65,468**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비용계	백만 원	3,100,111	3,340,589	3,973,573	
		정부보조금	백만 원	(2,214)	(4,016)	(4,708)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	2.6	2.3	2.4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 x 100
	투자기여 (연결 기준)	총자본지출(CAPEX)	십억 원	3,767	3,879	6,455	본사 및 해외사업장 기준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십억 원	4,556	5,048	4,946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차액(자본지출-감가상각비)	십억 원	(789)	(1,169)	1,509	
		자사주매입	십억 원	305	193	0	
		합계(배당금+자사주)	**십억 원**	**1,606**	**2,023**	**2,999**	

[3] 2023년 기말,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HMMR)이 처분 자산집단 및 중단영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교 공시 대상 기간의 금액 재작성

Environmental (환경)[4]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환경	에너지 사용량	전기(비재생)	MWh	3,338,657	3,376,795	3,259,913	
		전기(재생)	MWh	120,171	280,498	473,166	
		LNG	MWh	3,562,760	3,525,029	3,383,641	멕시코생산법인(HYMEX)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여 2022년 사용량 수정
		디젤, 등유, 휘발유	MWh	154,015	131,268	131,697	
		스팀, 열	MWh	90,510	94,027	102,349	
		기타 연료	MWh	143,460	172,986	193,905	
		에너지 사용량 합계[5]	**MWh**	**7,409,573**	**7,580,603**	**7,544,671**	멕시코생산법인(HYMEX)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여 2022년 사용량 수정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		MWh/대	1.91	1.90	1.87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_2-eq	724,013	719,949	696,590	멕시코생산법인(HYMEX)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여 2022년 사용량 수정
		Scope 2	tCO_2-eq	1,660,058	1,684,120	1,579,161	2022-2023년 Scope 2 배출량은 시장 기반 기준
		Scope 3	tCO_2-eq	128,753,297	133,110,484	141,956,876	산정식에 사용되는 '대당 주행거리' 기준이 15만 km에서 20만 km로 변경되어 2021, 2022년 데이터 수정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합계[6]	**tCO_2-eq**	**2,384,071**	**2,404,069**	**2,275,751**	1) 2023년 배출 목표: 2,366,239 tCO_2-eq 2) 멕시코생산법인(HYMEX)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여 2022년 사용량 수정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집약도		tCO_2-eq/대	0.616	0.601	0.531	
	원자재	철 사용량	톤	1,054,056	1,151,624	1,231,958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의 원자재 데이터 반영 (기존 공시 대비 2021, 2022년 원자재 수치 수정/변경)
		철 스크랩	톤	395,597	393,419	410,665	
		알루미늄 사용량	톤	141,302	146,270	156,930	
		알루미늄 스크랩	톤	28,020	41,773	39,116	
	원자재 사용 집약도		톤/대	0.307	0.329	0.324	

[4] 환경 데이터의 보고 범위는 국내 전 사업장 및 해외 12개 생산법인이며, 모든 대당 집약도는 생산대수 기준
[5] 2023년부터 산정 대상 사업장이 추가(HMGICS, HTWO), 추가된 사업장을 제외한 2023년 에너지 사용량 합계는 7,528,714MWh
[6] 2023년부터 산정 대상 사업장이 추가(HMGICS, HTWO), 추가된 사업장을 제외한 2023년 온실가스 Scope 1+2 배출량 합계는 2,268,998 tCO_2-eq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환경	용수	용수 취수량	도시(공업)용수	톤	17,446,631	18,141,575	19,006,576	
			표층수	톤	853,648	943,151	1,096,116	
			지하수	톤	507,237	428,714	468,297	
			해수담수	톤	0	0	12,267	
		합계		**톤**	**18,807,516**	**19,513,440**	**20,583,256**	
		용수 사용량		톤	10,360,026	10,602,057	11,060,941	
		용수 방류량		톤	8,447,490	8,911,383	9,522,315	
		용수 재활용량		톤	2,179,600	2,284,154	2,631,445	
		용수 재활용 비율		%	21.0	21.5	23.8	
	용수 사용량 집약도			톤/대	2.66	2.69	2.58	
	사업장 유형별 공급원별 취수량	생산 공장	도시(공업)용수	톤	15,108,916	15,631,406	16,288,163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과 베트남생산법인(HMTV)의 용수 데이터를 포함하여 재집계 (기존 공시 대비 2021, 2022년 수치 수정/변경) 2023년 신규 가동에 들어간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HTWO광저우법인의 용수 데이터 추가
			표층수	톤	853,648	943,151	1,096,116	
			지하수	톤	507,237	412,811	428,270	
			해수담수	톤	0	0	12,267	
		소계		**톤**	**16,469,801**	**16,987,368**	**17,824,816**	
		연구소	도시(공업)용수	톤	1,671,650	1,759,529	1,992,256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1,671,650**	**1,759,529**	**1,992,256**	
		판매/ 서비스	도시(공업)용수	톤	228,094	238,879	225,189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21,286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228,094**	**238,879**	**246,475**	
		기타 (본사, 연수원)	도시(공업)용수	톤	437,971	511,761	500,968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15,903	18,741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437,971**	**527,664**	**519,709**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환경	지역별 공급원별 취수량	한국	도시(공업)용수	톤	12,276,460	12,870,446	14,175,433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11,546	20,711	44,002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12,288,006**	**12,891,157**	**14,219,435**	
		유럽	도시(공업)용수	톤	799,347	483,858	424,145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799,347**	**483,858**	**424,145**	
		미주	도시(공업)용수	톤	1,733,728	1,862,164	1,598,772	
			표층수	톤	0	0	12,683	
			지하수	톤	419,456	339,065	314,169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2,153,184**	**2,201,229**	**1,925,624**	
		중국	도시(공업)용수	톤	2,093,818	1,791,118	1,610,370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0	0	
		소계		**톤**	**2,093,818**	**1,791,118**	**1,610,370**	
		기타	도시(공업)용수	톤	543,278	1,133,989	1,197,856	
			표층수	톤	853,648	943,151	1,083,433	
			지하수	톤	76,235	68,938	110,126	
			해수담수	톤	0	0	12,267	
		소계		**톤**	**1,473,161**	**2,146,078**	**2,403,682**	
	VOCs[7] 및 THC[8] 배출량			톤	11,279	8,363	9,204	2023년부터 THC 추가 반영 (2022년까지 VOCs만 집계)
	VOCs 및 THC 배출량 집약도			kg/대	2.90	2.12	2.15	

[7]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8] THC(Total Hydrocarbon): 총 탄화수소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CO	톤	581	1,056	1,011	과거 실적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멕시코생산법인(HYMEX)과 베트남생산법인(HMTV)의 오염물질과 폐기물 실적을 포함하여 재집계 (기존 공시 대비 2021, 2022년 수치 수정/변경) 2023년 신규 가동에 들어간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HTWO광저우법인의 오염물질과 폐기물 데이터 추가
		SOx	톤	154	314	71	
		NOx	톤	391	730	508	
		먼지	톤	445	910	1,082	
	합계		**톤**	**1,571**	**3,010**	**2,672**	
	대기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403	0.763	0.60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TOC(COD)[9]	톤	370	449	437	
		BOD	톤	91	81	83	
		SS	톤	61	51	68	
	합계		**톤**	**522**	**581**	**588**	
	수질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134	0.147	0.137	
	폐기물 발생량[10]	일반 폐기물	톤	465,259	491,151	506,057	
		지정 폐기물	톤	32,228	38,316	40,863	
		건설 폐기물[10]	톤	68,654	99,898	477,235[11]	
	합계		**톤**	**566,141**	**629,364**	**1,024,155**	
	폐기물 집약도[12]		톤/대	0.0155	0.0172	0.0155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량	톤	505,770	561,670	957,463	
		재활용 비율	%	89.3	89.2	93.5	

[9] 국내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COD에서 TOC로 변경해서 실적 집계함.
[10] 일반 폐기물로 합산해서 공시하였던 건설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공시함.
[11] 2023년 울산공장의 전기차 신공장 건설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 폐기물이 전년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울산공장 건설 폐기물(425,345톤) 제외 시 2023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598,810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12] 총 폐기물에서 재활용량을 뺀 폐기물량의 대당 실적으로 기재함.
[13]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 특정 유해화학물질(NaOH, HCl 등) 사용량에서 사업장 소재 국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으로 지표 정의를 변경하였음.
[14] 전동화 차량 개발비와 사업장 환경개선 시설 투자비 포함 (단, 사업장 환경개선 투자비의 경우 국내 사업장만 포함)
[15] 2023년 녹색구매 실적 집계 체계 개선 및 녹색구매 확대 추진으로 실적 증가
[16] 친환경차 기준: EV, HEV, PHEV, FCEV / 2023년 아이오닉 6 매출 비율: 1.9%
[17] 2023년 신규 수행 차종: 코나, 코나HEV, 코나EV, 아반떼, 아반떼HEV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환경	폐기물 유형별 처리방식별 처리량	일반 폐기물	소각	톤	18,181	18,153	20,599	
			열회수	톤	12,692	11,862	14,079	
			열미회수	톤	5,489	6,291	6,520	
			매립	톤	13,306	18,504	17,657	
			재활용	톤	424,908	446,983	462,914	
			기타	톤	8,863	7,511	4,887	생분해 등
		지정 폐기물	소각	톤	11,986	13,358	13,822	
			열회수	톤	9,921	11,048	11,590	
			열미회수	톤	2,065	2,310	2,232	
			매립	톤	1,170	1,290	1,886	
			재활용	톤	13,502	16,811	19,246	
			기타	톤	5,570	6,857	5,909	생분해 등
		건설 폐기물	소각	톤	0	0	0	
			열회수	톤	0	0	0	
			열미회수	톤	0	0	0	
			매립	톤	1,292	2,018	1,929	
			재활용	톤	67,359	97,877	475,303	
			기타	톤	2	3	3	생분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13]			톤	8,218	10,003	7,780	
	환경투자 비용		환경비용 및 투자금액[14]	억 원	7,225	5,061	8,611	
	녹색구매 실적		**합계**	**억 원**	**63**	**12**	**5,653**[15]	2023년 녹색구매 실적 집계 체계 개선 및 녹색구매 확대 추진으로 실적 증가
	친환경차 매출 비율[16]		EV	%	5.8	8.5	9.9	관리회계 기준
			HEV	%	6.6	6.5	9.7	
			PHEV	%	1.4	1.7	1.6	
			FCEV	%	0.6	0.6	0.4	
			합계	**%**	**14.4**	**17.3**	**21.6**	
	Full-LCA 수행 차종[17] 판매 비율		**합계**	**%**	**14.14**	**25.03**	**40.90**	판매대수(선적) 기준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지역별 인력 현황 (국내/해외, 국가별)	국내	명	72,496	73,431	73,015	마지막 영업일, 직접 고용인원 수 기준
		해외	명	50,325	52,638	50,706	
		북미	명	15,953	18,229	19,389	
		유럽	명	9,480	10,010	7,655	
		중국	명	10,741	9,340	7,745	
		인도	명	9,725	9,976	10,935	
		기타	명	4,426	5,083	4,982	
		해외 비율	%	41.0	41.8	41.0	
		합계	**명**	**122,821**	**126,069**	**123,721**	
	직군별 인력 현황	임원	명	694	722	716	임원 직급 중 수석연구위원/연구위원 20명 제외
		연구위원	명	22	20	20	
		연구직	명	15,395	17,216	17,992	
		사무직	명	22,830	25,613	23,436	
		기술/생산/정비직	명	69,238	66,384	64,374	
		영업직	명	7,915	7,330	7,503	
		기타직	명	6,727	8,748	9,680	자문역, 별정직, 촉탁 등
		합계	**명**	**122,821**	**126,069**	**123,721**	
	국적별 인력 현황 (국내 기준)[18]	대한민국	명	71,191	73,325	72,913	관리직 16,833명 (총 관리직 대비 99.59%)
		미국	명	42	42	41	관리직 33명 (총 관리직 대비 0.2%)
		캐나다	명	12	8	14	관리직 12명 (총 관리직 대비 0.07%)
		중국	명	9	9	8	관리직 4명 (총 관리직 대비 0.02%)
		독일	명	12	11	7	관리직 6명 (총 관리직 대비 0.04%)

[18] 인원 수 기준 상위 5개 국적별 인원 수 (국내 임직원 기준)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지역별/성별 인력 현황	국내		명	72,496	73,431	73,015	
		남성		명	68,215	68,809	67,912	
		여성		명	4,281	4,622	5,103	
		해외		명	50,325	52,638	50,706	
		남성		명	43,504	45,045	42,797	
		여성		명	6,821	7,593	7,909	
		여성 임원	국내	명	15	17	21	
			북미	명	12	17	26	
			유럽	명	3	4	6	
			중국	명	7	5	5	
			인도	명	0	0	0	
			기타	명	2	3	1	
			합계	**명**	**39**	**46**	**59**	
		여성 임직원	국내	명	4,281	4,622	5,103	
			북미	명	2,740	3,431	3,871	
			유럽	명	1,476	1,563	1,327	
			중국	명	1,761	1,645	1,585	
			인도	명	242	288	336	
			기타	명	602	666	790	
			합계	**명**	**11,102**	**12,215**	**13,012**	
		총 여성 임직원 비율		%	9.0	9.6	10.5	여성 임직원 수 / 전체 임직원 수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직급별/직군별 여성 인력 현황	국내 관리자 수	명	16,779	17,088	16,903	관리자: 과장급 이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임원 포함 (자문역 제외)
		국내 여성 관리자 수	명	1,042	1,071	1,338	
		해외 관리자 수	명	7,303	6,625	8,434	
		해외 여성 관리자 수	명	947	1,084	1,399	
		총 관리자 수	명	24,082	23,713	25,337	
		총 여성 관리자 수	명	1,989	2,155	2,737	
		총 여성 관리자 비율	%	8.3	9.1	10.8	총 여성 관리자 수 / 총 관리자 수
		여성 하급 관리자 수	명	1,504	1,603	2,254	하급 관리자: G2레벨로 정의
		여성 하급 관리자 비율	%	8.3	9.2	11.8	
		수익 창출 부서[19] 여성 임직원 수	명	9,182	9,695	12,278	
		수익 창출 부서 여성 임직원 비율	%	7.9	8.3	10.2	
		STEM 직책[20] 여성 임직원 수	명	2,418	2,590	3,000	
		STEM 직책 여성 임직원 비율	%	4.1	4.4	5.3	
	장애인 고용 현황 (국내 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	명	2,101	1,920	1,701	12월 신고 인원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률	%	3.13	2.82	2.50	장애인 근로자 수 / 총 임직원 수 * 100
	연령별 인력 현황	30세 미만	명	23,689	26,249	26,979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63,327	65,028	62,792	
		50세 이상	명	35,805	34,792	33,950	
		합계	**명**	**122,821**	**126,069**	**123,721**	

[19] 수익 창출 부서 기준: CTO, AAM본부, SDV본부, 아시아대권역, GSO, 글로벌디자인본부, ICT본부, 품질본부, 제조부문/제조솔루션본부, TVD본부, 선행기술원, 국내생산담당, 구매본부, 제네시스사업본부, 브랜드마케팅본부,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국내사업본부, 글로벌사업관리본부, 상품본부,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20]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인원 기준: 연구개발본부, CTO, AAM본부, SDV본부, GSO, 글로벌디자인본부, ICT본부, 품질본부, 제조부문/제조솔루션본부, TVD본부, 선행기술원, 국내생산담당, 구매본부, 인도권역본부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국내 기준)	가입인원 수		명	47,538	45,751	44,095	
		가입 비율		%	66.3	63.1	59.9	
	파업발생[21]	총 파업발생 건수		건	0	0	1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일	0	0	1	
	교육현황 (국내 기준)	총 교육비용		억 원	417	636	806	
		인당 교육비용		만 원	60.3	88.0	110.4	총 교육비용 / 전체 직원 수
		인당 교육비용 (직급별)	최고 관리자	만 원	161.8	399.6	323.8	
			중간 관리자	만 원	98.3	314.5	92.7	
			신입 사원 및 비관리직	만 원	56.7	59.2	111.1	
		인당 교육비용 (성별)	남성	만 원	59.5	86.7	108.6	
			여성	만 원	72.9	107.6	134.5	
		인당 교육비용 (연령별)	30세 미만	만 원	134.0	77.9	106.1	
			30세 이상 50세 미만	만 원	72.5	150.4	179.3	
			50세 이상	만 원	41.5	29.9	38.8	
		인당 교육시간		시간	27.9	34.3	47.5	직원에게 제공한 총 교육시간 / 전체 직원 수
		인당 교육시간 (직급별)	최고 관리자	시간	29.3	32.4	33.5	직급별 총 교육시간 / 직급별 직원 수
			중간 관리자	시간	35.9	23.5	58.3	
			신입 사원 및 비관리직	시간	27.3	35.6	46.3	
		인당 교육시간 (성별)	남성	시간	27.5	33.2	45.6	
			여성	시간	34.4	50.9	72.0	
		인당 교육시간 (연령별)	30세 미만	시간	75.6	62.8	77.5	
			30세 이상 50세 미만	시간	30.7	38.8	52.8	
			50세 이상	시간	20.5	21.7	31.2	

[21] 2023년 한국 금속노조 주관 정치파업 1건 참여(울산공장 조합원 2만2천명, 4시간 파업). 단, 단체교섭 관련 파업 실적 없음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달성)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육아휴직 현황 (국내 기준)	육아휴직 사용(남자)		명	188	285	184	
		육아휴직 사용(여자)		명	162	234	203	
		복귀율(남자)		%	89.5	81.7	93.4	복직 예정자 중, 실제로 복직한 인원 비율
		복귀율(여자)		%	92.6	75.0	94.7	
		유지율(남자)		%	97.6	93.7	97.3	2023년 유지율: 2022년 복직인원 중 2023년 말 재직중인 인원 비율
		유지율(여자)		%	98.6	95.3	97.1	
	신규 채용 현황	총 채용인원 수		명	21,484	23,018	25,419	
		성별	남성	명	18,979	20,344	22,467	
			여성	명	2,505	2,674	2,952	
		연령대	30세 미만	명	13,883	13,939	16,551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5,603	6,624	5,900	
			50세 이상	명	1,998	2,455	2,968	
		국적 (국내 기준)	한국	명	7,490	8,110	10,741	신규 채용 현황 국적별 분류는 국내 데이터에 한하여 보고
			미국	명	9	4	9	
			캐나다	명	2	1	5	
			중국	명	3	1	1	
			독일	명	1	1	0	
			기타	명	2	5	0	2021년 프랑스 2명 2022년 영국 2명, 프랑스/대만/인도 각 1명
	내부충원 비율 (국내 기준)			%	99.0	92.0	96.4	사내공모 및 전보 포함, T/O 대비 배치 비율
	청년인턴 고용	총 고용인원 수		명	213	120	117	인턴 / 연구인턴 / 채용전환형 인턴 / 체험형 인턴
		정규직 전환율		%	53.1	30.0	41.0	채용 전환 인원 수: 48명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임직원	이직자 현황 (국내 기준)	성별	남성	%	5.72	5.26	5.30	
			여성	%	0.29	0.22	0.17	
		연령대	30세 미만	%	0.95	0.23	0.75	
			30세 이상 50세 미만	%	0.72	0.60	0.55	
			50세 이상	%	4.31	4.65	4.17	
		직급	최고 관리자	%	0.03	0.14	0.02	
			중간 관리자	%	0.11	0.15	0.22	
			비관리직	%	5.04	5.18	5.39	
		총 이직률		%	6.00	5.47	5.48	
		자발적 이직률[22]		%	0.70	0.94	0.82	
	이직자 현황 (해외 기준)	총 이직률		%	17.19	18.97	18.32	
		자발적 이직률		%	11.00	14.00	12.40	
	이직자 현황 (국내 + 해외)	총 이직률		%	10.6	11.4	10.9	
		자발적 이직률		%	5.0	6.8	5.7	
	성별 임금	남성 경영진	평균 기본급	원	292,430,000	329,929,105	327,562,500	
			평균 총급여	원	330,950,106	429,225,256	445,227,057	기본급 및 성과급 합계
		여성 경영진	평균 기본급	원	257,678,571	323,461,538	320,764,000	
			평균 총급여	원	325,828,057	417,714,941	452,255,582	기본급 및 성과급 합계
		남성 관리자	평균 기본급	원	73,253,066	77,864,821	80,445,169	
			평균 총급여	원	99,688,405	114,997,449	127,722,884	기본급 및 성과급 합계
		여성 관리자	평균 기본급	원	70,490,756	72,522,553	73,989,533	
			평균 총급여	원	95,522,021	108,073,603	119,054,509	기본급 및 성과급 합계
		남성 직원	평균 기본급	원	79,293,050	88,283,218	96,933,290	
		여성 직원	평균 기본급	원	79,408,784	89,364,988	101,966,967	
	조직문화 진단	직원 참여도		%	68.5	72.9	76.6	

[22]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혹은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임직원 본인의 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사회공헌	사회공헌 유형별 지출	현금 기부	백만 원	39,015	44,998	125,133	
		현물 기부	백만 원	2,123	2,925	4,546	
		임직원 봉사	백만 원	696	832	911	임직원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 환산[23]
		경영 비용	백만 원	6,124	10,466	14,929	
	사회공헌 영역별 지출	지역사회 투자	백만 원	37,054	39,506	113,358	
		단순 기부	백만 원	3,658	6,632	15,424	
		상업용	백만 원	6,549	12,251	15,826	
	사회공헌 권역별 지출	국내	백만 원	47,262	58,389	144,608	
		해외	USD	16,288,622	22,394,209	27,896,064	
	임직원 자원봉사 실적 (국내 기준)	봉사횟수	회	375	627	613	
		봉사인원	명	6,330	5,592	7,436	
		봉사시간	시간	14,034	15,016	19,005	
	기부금/ 출연금 유형별 지출	협회 및 비과세 단체	백만 원	6,251	5,180	6,009	산업 유관 협회·단체
		로비 및 이익 단체	백만 원	0	0	0	
		정치 기부금	백만 원	0	0	0	
		기타	백만 원	0	0	0	
		유형별 지출 합계	**백만 원**	**6,251**	**5,180**	**6,009**	
	주요 후원 단체별 지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백만 원	3,300	3,300	10,97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백만 원	2,243	2,178	2,453	
		한국자동차연구원	백만 원	322	332	230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백만원	200	200	20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백만원	100	100	100	

[23] 임직원 연간 봉사시간 x 임직원 평균 시급(평균연봉 / 연간근무일수 / 시간)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품질 및 안전	품질지수 (JDPower 설문조사 기준)	미국 내구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4위 (101점)	일반 3위 (148점)	일반6위 (170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현대)	순위 (점수)	일반 6위 (149점)	일반 12위 (185점)	일반10위 (188점)	
		미국 내구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4위 (102점)	고급 1위 (155점)	고급2위 (144점)	
		미국 신차품질지수 (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2위 (148점)	고급 1위 (156점)	고급5위 (176점)	
	품질관리 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사업장 비율	%	100	100	100	국내·외 전 사업장 ISO 9001 인증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 현대고객경험지수(HCXI)	점수	71.2	72.1	72.2	판매/정비 1:1 가중치 부여
		외부기관 평가 - 국가고객만족도(N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컴팩트RV, 대형RV, 전기차
		외부기관 평가 -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10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럭셔리세단E세그, 중형, 대형SUV, 전기차, 자동차AS 등10개 부문
		외부기관 평가 -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K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승용, RV, 경형, 전기차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 (HCXI)	점수 (순위)	70.1 (1위)	71.8 (1위)	72.5 (1위)	직영/블루핸즈 1:1 가중치 부여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86.3 (31개국)	87.7 (35개국)	90.6 (35개국)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 (NPS)	점수 (실시국가)	75.9 (31개국)	77.5 (35개국)	78.8 (35개국)	

지표 및 데이터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안전 보건	임직원 사망 사고자 수	명	1	1	2	
	협력사 사망 사고자 수	명	3	0	0	
	국내사업장 산업재해자 수	명	424	478	559	
	해외사업장 산업재해자 수	명	11	30	34	
	산업재해자 수 합계	명	435	508	593	업무 상 질병 171건, 업무 관련 사망사고 2건
	국내사업장 산업재해율	%	0.73	0.81	0.93	
	해외사업장 산업재해율	%	0.04	0.07	0.08	
	산업재해율 합계	%	0.49	0.55	0.58	
	임직원 LTIFR[24]	건수/백만 근로시간	1.76	1.94	1.89	국내(울산/아산/전주공장) 및 해외생산법인 기준 근로자가 6개월 내에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부상 건수 83건
	협력사 LTIFR[25]	건수/백만 근로시간	1.43	1.53	1.05	

[24] 근로손실재해율(LTIFR,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 = (사고성재해건수x1,000,000) ÷ 연 근로시간
[25] 2021년 전주공장 사내 협력사 근로자 수 조사 시 협력사의 전체 근로자수 기재로 과대 기입됨.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비고
준법 교육 현황	국내 교육 횟수		건	11	26	26	
	국내 참석자 수		명	21,567	8,651	1,793	
	해외 교육 횟수		건	9	0	0	파견 주재원 대상 상시 교육과정 운영
	해외 참석자 수		명	80	0	0	
법규/자발적 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	총 유출 건수	건	1[26]	0	0	
		위반에 영향 받는 고객 수	명	6	0	0	
	사이버 자산 피해 건수		건	0	0	0	
	표시/광고 위반 건수		건	0	0	0	
	근로자 관련 심각한 인권 위반으로 인한 벌금		원	-	-	0	2023년부터 신규 공시
	환경 관련 과태료 및 벌과금	환경 관련 위반 건 수	건	0	0	1[27]	2023년 미국판매/ 연구법인(HMA, HATCI) 제어기 변경 차량 환경 인증 신고 누락으로 과징금(US $ 3,109,050) 납부함.
		과태료 및 벌금	백만 원	0	0	4,023	
		환경 관련 충당부채 설정액	백만 원	0	0	0	

[26] 해당 건에 대한 공표는 2022년, 과태료 납부는 2023년에 완료
[27] 미국 판매 및 연구법인(판매차량 제어기 변경 인증 신고 누락)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지불한 1건 있었으며, 국내 환경부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재 재판(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이 진행 중인 건이 한 건 있음.

ESG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장별 인증 현황 (ISO Certification)

구분		인증 유효 기간	비고
ISO 14001 (환경경영)	국내 사업장(울산공장/아산공장/전주공장/남양연구소/본사/국내사업본부)	2023년 - 2026년	국내사업장 통합 인증
	미국생산법인(HMMA)	2021년 - 2024년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1년 - 2024년	
	인도생산법인(HMI)	2023년 - 2026년	
	중남미권역본부(HMCSA)	2021년 - 2024년	
	체코생산법인(HMMC)	2021년 - 2024년	
	튀르키예생산법인(HAOS)	2021년 - 2024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2년 - 2025년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2023년 - 2026년	
	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	2023년 - 2026년	
	베트남생산법인(HMTV)	2021년 - 2024년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국내 사업장	2023년 - 2026년 (전주공장) 2021년 - 2024년 (아산공장) 2021년 - 2024년 (남양연구소) 2022년 - 2025년 (울산공장)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ISO 27001 (정보보안경영)	국내 사업장	2021년 - 2024년	
ISO 9001 (품질경영)	국내·외 사업장	2021년 - 2024년	
ISO 50001 (에너지경영)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2년 - 2025년 (인화/양진공장) 2021년 - 2024년 (창주공장)	
	인도생산법인(HMI)	2021년 - 2024년	
	튀르키예생산법인(HAOS)	2021년 - 2024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3년 - 2026년	

특허 현황

지표명		단위	2021	2022	2023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특허보유 건수(누적)		건	32,477	35,772	37,788
신규특허 출원 (연도별)	총 신규특허 출원 수	건	6,637	7,729	6,853
	미래기술(자율주행,커넥티비티)	건	639	780	729
	환경기술[1](전동화,수소에너지,재활용,바이오 소재,CCUS[2])	건	1,503	2,194	1,702
	기타	건	4,495	4,755	4,422

[1] 친환경기술: 탄소중립 실현 위한 친환경 기술을 구분하여 집계
[2]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GRI 인덱스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2-1	조직의 세부정보	124	
2-2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에 포함된 기업	-	사업보고서 p.464-468
2-3	보고기간과 빈도, 그리고 연락처	124	
2-4	정보의 재기술	28, 36, 42, 43, 97, 98, 100	
2-5	외부 검증	117-123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4, 5, 69	
2-7	고용 유형별 임직원, 그리고 성별/지역별 현황	101-103	
2-8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1]	-	
2-9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81-85	
2-10	거버넌스 기구의 임명 및 선정	81	
2-1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81	
2-1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9, 21, 83, 85	
2-13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책임의 위임	9, 21, 85	
2-1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85	
2-15	이해충돌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장치	81, 84, 87	
2-16	중요 이슈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의 의사소통	82, 85	
2-1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식, 기술 및 경험 향상	83	
2-1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평가	83	
2-19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원진에 대한 보상 정책	84	
2-20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직원에 대한 보수 결정 프로세스	84	
2-21	연간 총 보상의 비율	84	
2-22	지속가능경영 전략 성명서	3	
2-23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19, 46, 50-51, 66, 88-89	
2-24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통합 및 이행 방법	19, 46, 50-51, 66-69, 88-89	
2-25	조직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20, 53-54, 59	
2-26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13, 54, 88-89	
2-27	법·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105	
2-28	가입 협회	104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식	12-13	
2-30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전체 근로자 수 및 비율	57, 102	
3-1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14	
3-2	중요 이슈 목록	15-17	
3-3	중요 이슈 관리	15-17, 21-41, 57-61, 66-69, 71-73	

[1] 미공시 사유: 기밀제한 / 피고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으나, 당사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회사규정상 어려움.

Topic Specific Standards - Economic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98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 및 기회	22-36	
201-3	확정급여제도와 기타 퇴직제도	62	
201-4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	98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103	
202-2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101	
20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104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효과	104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 파악된 중요한 위험	88-89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와 훈련	88-89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88-89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88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법	94	
207-2	조세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94	

GRI 인덱스

Topic Specific Standards - Environmental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301-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42, 98	
301-2	재생 원재료 사용 비율	42, 98	
301-3	재생 원료 사용 제품 및 포장재 비율	42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사용량	98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사용량	36	
302-3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	98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23-24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용수 활용	42-43, 99	
303-2	폐수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43, 100	
303-3	용수 취수량	99	
303-4	용수 방류량	99	
303-5	용수 사용량	20, 42, 99	
304-1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 중인 사업장	46-48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46-48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46-48	
304-4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하는 IUCN 적색목록 종과 국가보호종	48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6, 98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6, 98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36, 98	
305-4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36, 98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3-32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0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40-43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40-43	
306-3	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100	
306-4	폐기물 재활용 현황	43, 100	
306-5	매립 외 기타 폐기물 처리 현황 (에너지 회수 여부)	100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67-68	
308-2	공급망 내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69	

GRI 인덱스

Topic Specific Standards - Social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401-1	신규채용자 수 및 이직자 현황	103	
401-2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56-57, 62	
401-3	육아휴직 사용, 복귀, 유지	62, 103	
40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58	
403-2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조사	58-59	
403-3	안전보건 개선 활동	59, 62	
403-4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58-59	
403-5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58-61	
403-6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62	
403-7	사업운영과 직결된 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59-61	
403-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 대상 근로자	58-59	
403-9	임직원, 협력사 재해 및 부상발생 현황	58-59, 105	
403-10	임직원, 협력사 질병발생 현황	58-59, 105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02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5-56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을 받은 근로자 비율	54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81, 101-102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103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54, 88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52, 69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52, 69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52, 69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 수	-	침해 사례 없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12, 46-48, 76-79, 104	
414-2	공급망 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69	
415-1	국가별, 수령인 및 수혜자별 기부한 정치자금의 규모	104	정치자금 기부 사례 없음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73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72, 105	
417-1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75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105	위반 사례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105	위반 사례 없음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105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2. 일반 공시 (General Disclosur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2 BP-1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 보고 기간, 보고 범위 및 경계	124
ESRS 2 BP-2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된 추정·가정·외부자료, 정보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사항	28, 36, 42, 43, 97, 98, 100, 117-122
ESRS 2 GOV-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 영향·위험·기회 요인을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역할	9, 21, 81-85
ESRS 2 GOV-2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보고·심의·의결한 지속가능성 영향·위험·기회 요인	82, 85
ESRS 2 GOV-3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층의 성과평가지표(KPIs)에 포함된 지속가능성 주제	9, 17, 20, 37, 59
ESRS 2 GOV-4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및 실사를 관장하는 거버넌스, 진단 및 실사 방법과 절차	50-53, 67-69
ESRS 2 GOV-5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과정 및 결과로 인한 리스크, 해당 리스크의 개선 및 완화방안[1]	-
ESRS 2 SBM-1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사업전략, 사업모델, 가치사슬의 주요 특징	6-7, 25-26
ESRS 2 SBM-2	조직의 사업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와 방식	11-13
ESRS 2 SBM-3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사업전략 및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위험·기회	15-17
ESRS 2 IRO-1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14
ESRS 2 IRO-2	지속가능성보고서 내 ESRS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다루는 위치	110-112

[1] 국내외 전 사업장의 ESG 데이터 취합-검수-공시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2022년부터 IT 시스템 기반의 'ESG 플랫폼' 운영

ESRS E1. 기후변화 (Climate Change)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1-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32
ESRS E1-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정책	23-32
ESRS E1-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32, 37
ESRS E1-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24-26, 30-32, 38
ESRS E1-5	에너지원별 사용량, 매출액 기준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집약도)	98
ESRS E1-6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집약도)	36, 98
ESRS E1-7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 감축량, 외부 프로젝트로 획득한 배출권	16, 31
	제품·서비스 탄소 회피량	15, 27
ESRS E1-8	내부탄소가격 설정과 활용·적용 현황[2]	-
ESRS E1-9	중대한 물리·전환 위험으로 인한 재무영향,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2, 33-35

[2] 내부탄소가격은 배출권거래제(ETS) 가격과 연동하여 산정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전략·투자 추진, 저탄소 사업기회 발굴 및 포착 등에 활용

ESRS E2. 오염 (Pollution)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2-1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19, 43
ESRS E2-2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20, 43
ESRS E2-3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44
ESRS E2-4	토양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0
ESRS E2-5	(고위험성, 잠재적 우려) 유해물질 사용량, 유해물질 포함 제품·서비스 매출 비중	44
ESRS E2-6	환경오염 사고 등 위험요인의 재무영향, 환경오염 관리에 따른 기회요인의 재무영향	20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Water and Marine Resourc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3-1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조직의 정책	19, 42-43
ESRS E3-2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20, 42-43
ESRS E3-3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 관련 조직의 목표	43
ESRS E3-4	용수 취수량, 사용량, 방류량, 재사용 또는 재활용량과 원단위(집약도)	42, 99
ESRS E3-5	중대한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0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Biodiversity and Ecosystem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4-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장기 전환 로드맵[3]	-
ESRS E4-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직의 정책	19, 46
ESRS E4-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47
ESRS E4-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직의 목표[3]	47
ESRS E4-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영향을 받는 생물 종 및 개체, 보호 및 복원 활동	46-48
ESRS E4-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0

[3]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통해 중장기 지향점과 활동 및 성과목표 제시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현대자동차 산림파괴 예방 정책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Resource Use and Circular Economy)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5-1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19, 39, 41
ESRS E5-2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39-41
ESRS E5-3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목표	39-40
ESRS E5-4	(재활용 가능/불가능) 원재료 투입량, (재사용/재활용) 원재료 투입량	42, 98
ESRS E5-5	회수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생산량, 소각/매립/재활용 등 유형별 폐기물 처리량	40, 100
ESRS E5-6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0

ESRS S1. 직접 근로자 (Own Workforce)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1-1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관한 조직의 정책	51, 57
ESRS S1-2	영향에 대해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와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	57-58
ESRS S1-3	부정적 영향 개선 프로세스와 노동자가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54, 57, 88
ESRS S1-4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와 노동자 관련 중대한 위험 완화 및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접근 방식, 이러한 조치의 효과	51-62
ESRS S1-5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긍정적 영향 개선, 중대한 위험 및 기회 관리 관련 목표	51, 58
ESRS S1-6	기업 내 노동자 특성	101-102
ESRS S1-7	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특성	101
ESRS S1-8	단체교섭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의 사유와 조치	57, 102
	파업 건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 파업 해결을 위한 조치 및 협의 등	102
ESRS S1-9	성별 근로자의 평균 시급 차이, 남성 대비 여성 시급 비율	103
	가족돌봄휴가(출산 및 육아휴가 등) 대상자, 휴가 사용자, 휴가사용 복귀 후 유지율	103
ESRS S1-10	공정임금을 산정하는 방법론, 공정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비율[4]	55, 103
ESRS S1-11	정부 및 조직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62
ESRS S1-12	장애인 고용 비율, 성별 장애인 근로자 수	102
ESRS S1-13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근로자 비율	54
	근로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및 교육비용	102
ESRS S1-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자체, 제3자 검토, 제3자 인증)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58, 106
	부상 및 질병 발생 건수, 부상발생률, 질병발생률, 근로손실일수 등	105, 116
ESRS S1-15	일과 삶의 균형 지표	62, 103
ESRS S1-16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는 개인 대비 근로자 급여 중간값 비율	84
ESRS S1-17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조치 건 수	52-53, 59-61
	근로자의 노동·인권 관련 제보의 접수, 조사,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건 수	52-53, 59-61

[4] 국내외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률의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책정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S2. 가치사슬 노동자 (Workers in the Value Chain)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2-1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관한 조직의 정책	61, 66, 70
ESRS S2-2	근로자의 노동·인권 영향에 대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절차	66, 69-70
ESRS S2-3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노동·인권 관련 중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5]	63
ESRS S2-4	중대한 위험과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66-70
ESRS S2-5	중대한 위험과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	69

[5] 현대자동차그룹 투명구매실천센터를 통해,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운영

ESRS S3. 지역사회 영향 (Affected Communiti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3-1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인권 영향에 관한 조직의 정책	76
ESRS S3-2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절차	12
ESRS S3-3	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해당 제보사항에 대응하는 절차	12
ESRS S3-4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77-79
ESRS S3-5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	77-79

ESRS S4. 고객 및 소비자 (Consumers and End User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4-1	고객 및 소비자의 권리존중과 피해보상에 관한 조직의 정책	73-74
ESRS S4-2	조직의 제품·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객 및 소비자와 소통하는 절차	72-74
ESRS S4-3	고객 및 소비자가 제품·서비스 사용 고충, 피해,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72-73
ESRS S4-4	고객 및 소비자의 고충, 피해,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71-73
ESRS S4-5	고객 및 소비자의 고충, 피해,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6]	-

[6] 고객 및 소비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비역량 강화', '우수인력 확보', '정비규정 운영'의 3대 방향에 따른 활동 지속 추진

ESRS G1. 행동 강령 (Business Conduct)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G1-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윤리경영 선언,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과 역할	88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의 요구사항	88
ESRS G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상생결제시스템 등 대금지급 개선 활동	65, 89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실사, 협력사 선정 기준 내 진단·실사 결과 반영[7]	66-69
ESRS G1-3	비윤리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 조사 및 내부보고 체계	88-89
	불공정거래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 조사 및 내부보고 체계	88-89
ESRS G1-4	혐의가 확인된 비윤리행위 건 수, 사법기관 조사 건 수, 인사조치 받은 근로자 수	88
	혐의가 확인된 불공정거래 건 수, 사법기관 조사 건 수, 인사조치 받은 근로자 수	88
ESRS G1-5	정당, 캠프, 기타 정치적 단체별 후원금액, 후원목적 및 관련 활동[8]	104
ESRS G1-6	구매 협력사 대상 평균 결제일, 평균 결제일에 대한 조직의 방침	65

[7] 기술·품질·납입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협력사를 인증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며, ESG 및 안전·환경·보안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에 반영
[8]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에 따라 자선적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은 금지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TCFD 인덱스

Disclosure Focus Area	Title	Page	Note[1]
지배구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9, 21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 및 검토(1회/반기) CDP 연계 문항: C1.1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9, 21	경영전략회의 내 소회의체(CEO 주관)인 'ESG위원회' 운영 CDP 연계 문항: C1.2
전략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22, 33-35, 37	CDP 연계 문항: C1.1a, C2.2a, C2.3, C2.3a, C2.4, C2.4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22, 33-35	CDP 연계 문항: C2.3a, C2.4a, C3.3, C3.4, C3.5, C3.5a, C3.5b, C3.5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33-36	CDP 연계 문항: C3.1, C3.2, C3.2a, C3.2b
위험관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36	CDP 연계 문항: C2.1 C2.1a, C2.1b, C2.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23, 36	CDP 연계 문항: C2.1b, C2.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9, 36, 90	CDP 연계 문항: C2.1 C2.1a, C2.1b, C2.2
지표와 감축목표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6, 24-32, 98	에너지 사용량, 차량 생산·판매 현황, 차량 CO2 배출량, 매출액 등 CDP 연계 문항: C8.2, C8.2a, C8.2b, C8.2c, C8.2e, C11.3a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36, 98	CDP 연계 문항: C6.1, C6.3, C6.5, C7.1a, C7.2, C7.3b, C7.5, C7.6b, C7.7, C7.7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	24-26, 30, 32, 37-38	CDP 연계 문항: C1.3, C1.3a, C4.1, C4.1a, C4.1c

[1] CDP 2023 문항 기준

SASB 인덱스

<table>
<tr><th colspan="2"></th><th>Accounting Metric</th><th>Page</th><th>Note</th></tr>
<tr><td rowspan="3">제품안전</td><td>TR-AU-250a.1</td><td>NCAP(신차안전도평가) 5-star 획득 차종의 비율 (지역별)</td><td>73</td><td>한국: 100%, 미국: 85.7%
<table><tr><th>구분</th><th>비율</th><th>5-star 획득 차종</th></tr><tr><td>한국</td><td>100%</td><td>그랜저, 코나EV, GV60</td></tr><tr><td>미국</td><td>85.7%</td><td>투싼HEV, 아이오닉5,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크루즈, 싼타페, GV70, GV80, G80 등</td></tr></table></td></tr>
<tr><td>TR-AU-250a.2</td><td>안전 관련 결함 컴플레인의 수, 컴플레인 중 실제 조사받은 비율</td><td>71-72</td><td>국토교통부(한국),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고객 불만제기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잠재 문제 인지 즉시 자발적 리콜 시행(100%)</td></tr>
<tr><td>TR-AU-250a.3</td><td>리콜 차량 수</td><td>72</td><td>2023년 548만 대 (자발적 리콜)</td></tr>
<tr><td rowspan="2">노동관행</td><td>TR-AU-310a.1</td><td>노동조합 등 단체교섭 직원 비율</td><td>102</td><td>2023년: 59.9% (국내 기준)</td></tr>
<tr><td>TR-AU-310a.2</td><td>(1) 파업 등 1천명 이상의 근무 단절의 수, (2) 총 손실일수</td><td>102</td><td>2023년: 1천 명 이상 근무단절의 파업 1건 및 총 손실일수 1일 발생 (국내 및 해외 기준)</td></tr>
<tr><td rowspan="3">연비&사용단계배출</td><td>TR-AU-410a.1</td><td>판매비중 기준의 평균 승용차 연비 (지역별)</td><td>28</td><td>유럽 평균 탄소 배출량, 중국/미국 평균 연비실적
<table><tr><th colspan="2"></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 colspan="2">EU 평균 탄소 배출량 (단위: g/km)</td><td>94.7</td><td>107.1</td><td>106.0</td><td>106.9</td></tr><tr><td colspan="2">중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L/100km)</td><td>5.61</td><td>6.15</td><td>6.28</td><td>6.19</td></tr><tr><td rowspan="2">미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mpg)</td><td>승용</td><td>40.0</td><td>42.8</td><td>45.1</td><td>46.8</td></tr><tr><td>경트럭</td><td>29.4</td><td>30.9</td><td>36.1</td><td>35.3</td></tr></table></td></tr>
<tr><td>TR-AU-410a.2</td><td>(1) 무배출 차량, (2) 하이브리드,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td><td>6, 26</td><td>2023년 친환경 차량 판매대수 및 비중 (단위: 천 대)
<table><tr><th>구분</th><th>HEV/PHEV</th><th>EV</th><th>FCEV</th><th>총계</th></tr><tr><td>Global</td><td>422(10.0%)</td><td>269(6.4%)</td><td>5(0.1%)</td><td>695(16.5%)</td></tr></table></td></tr>
<tr><td>TR-AU-410a.3</td><td>연비 및 탄소배출 리스크와 기회의 관리 전략</td><td>25-28</td><td>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 및 내연기관 연비개선 추진</td></tr>
<tr><td>원자재조달</td><td>TR-AU-440a.1</td><td>주요 원자재 사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td><td>41-42, 70, 92</td><td>보고서 해당 페이지 및 현대자동차 분쟁광물 관리 보고서 내 상세 내용 수록 현대자동차 분쟁광물 관리 보고서</td></tr>
<tr><td rowspan="3">원자재효율&재활용</td><td>TR-AU-440b.1</td><td>제조 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td><td>43, 100</td><td>2023년 기준 사업장 총 폐기물 배출량: 1,024,155톤, 재활용비율: 93.5%</td></tr>
<tr><td>TR-AU-440b.2</td><td>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의 무게(ton), 재활용 비율</td><td>40</td><td>2023년 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 무게: 약 19.9만 톤
2023년 폐차 재활용률: 열회수 제외 시 82.4%, 열회수 포함 시 91.0%</td></tr>
<tr><td>TR-AU-440b.3</td><td>판매 차량의 평균 재활용 가능률</td><td>39</td><td>차량 재활용 가능률: 열회수 제외 시 85%, 열회수 포함 시 95%</td></tr>
<tr><td rowspan="2">활동지표</td><td>TR-AU-000.A</td><td>차량 생산대수</td><td>6, 97</td><td>4,289,776대</td></tr>
<tr><td>TR-AU-000.B</td><td>차량 판매대수</td><td>6, 97</td><td>4,216,898대</td></tr>
</table>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table>
<tr><th>Theme</th><th>Metrics</th><th>Page</th><th>Note</th></tr>
<tr><td>기업목적</td><td>목적 정의</td><td>3, 8</td><td>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가치의 실현, 그리고 기업시민의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td></tr>
<tr><td>이사회 우수성</td><td>이사회 구성</td><td>81-85</td><td>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여성이사 2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감사로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td></tr>
<tr><td>이해관계자 참여</td><td>중요 이슈</td><td>14-17</td><td>현대자동차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임직원, 외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td></tr>
<tr><td rowspan="2">윤리적 운영</td><td>반부패</td><td>88-89, 105</td><td>사이버감사실을 통해 불공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준법역량을 강화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td></tr>
<tr><td>윤리 보고체계</td><td>51-54, 88-89</td><td>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경영 전반에 걸친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td></tr>
<tr><td>리스크/기회 분석</td><td>리스크/기회 분석의 경영체계 통합</td><td>16-17, 22-23, 90-93</td><td>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권역/조직별 이슈를 파악하여 각 요인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이슈별 관리방향, 핵심 성과, 중장기 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기후변화</td><td>온실가스 배출</td><td>32, 36, 98</td><td>국내 전 사업장과 10개 해외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tCO_2-eq): 2,275,751
총 11개 카테고리(업스트림 6개, 다운스트림 5개)에 대한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tCO_2-eq): 141,956,876</td></tr>
<tr><td>TCFD 연계 공개</td><td>113</td><td>TCFD Index 내 전체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생태계 훼손</td><td>토지사용 및 생태민감도</td><td>48</td><td>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울산공장이 0.07km 반경 내 태화강이 위치해 있으며, 태화강 하류 일원은 철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td></tr>
<tr><td>깨끗한 물</td><td>수자원 민감지역 용수 사용</td><td>42-43, 99</td><td>현대자동차는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 Tool을 토대로 사업장별 용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도/튀르키예/미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중국에 위치한 북경현대, 현대상용기차, HTWO광저우법인 등이 용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Extremely High) 파악되었습니다.

인도/튀르키예/미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북경기차/현대상용기차/HTWO광저우법인
<table>
<tr><th>용수 취수량 (톤)</th><th>용수 사용량 (톤)</th><th>용수 취수 비율</th><th>용수 사용 비율</th></tr>
<tr><td>5,364,105</td><td>3,438,515</td><td>26.1%</td><td>31.1%</td></tr>
</table></td></tr>
<tr><td rowspan="4">존엄성과 평등</td><td>다양성 및 포용성</td><td>57, 101-102</td><td>연령대별, 여성 임직원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급여 평등</td><td>84, 103</td><td rowspan="2">인당 평균 보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임금 비율</td><td>84, 103</td></tr>
<tr><td>아동, 강제노동 리스크</td><td>53</td><td>아동/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는 없습니다.</td></tr>
</table>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table>
<tr><th>Theme</th><th>Metrics</th><th>Page</th><th>Note</th></tr>
<tr><td>보건과 웰빙</td><td>보건/안전</td><td>105</td><td>산업재해자 수, 산업재해율, 근로손실재해율 및 직업성질병 발생율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재해율/직업성질병 발생률
<table>
<tr><th>구분</th><th>산업재해율</th><th>근로손실재해율</th><th>직업성질병 발생률</th></tr>
<tr><td>국내사업장</td><td>0.93</td><td>2.87</td><td>1.26</td></tr>
<tr><td>해외사업장</td><td>0.08</td><td>0.37</td><td>0.00</td></tr>
<tr><td>임직원 합계</td><td>0.58</td><td>1.89</td><td>0.88</td></tr>
<tr><td>국내 협력사</td><td>-</td><td>1.27</td><td>-</td></tr>
<tr><td>해외 협력사</td><td>-</td><td>0.38</td><td>-</td></tr>
<tr><td>협력사 합계</td><td>-</td><td>1.05</td><td>-</td></tr>
</table></td></tr>
<tr><td>미래 역량 개발</td><td>교육시간</td><td>102</td><td>임직원 교육 현황(직급별 교육시간, 교육비용)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3">경제가치 창출과 고용</td><td>일자리 창출</td><td>103</td><td>국내 신규 고용인원, 이직율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경제 기여</td><td>97-98</td><td>판매 및 재무정보, 연구개발 비용(당사 투자금 및 정부보조금 내역), 경제적 가치 배분 정보를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투자 기여</td><td>98</td><td>현대자동차는 조직의 성공적인 투자와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지출 - 감가상각비: 1,509십억 원
자사주 매입 + 배당금 지급: 2,999십억 원</td></tr>
<tr><td>제품/서비스 혁신</td><td>R&D 비용</td><td>98</td><td>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과 관련 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연구개발비용 계: 약 4.0조 원
- 2023년 정부보조금: (4,708)백만 원</td></tr>
<tr><td>지역사회와 사회 활력</td><td>총 납세</td><td>98</td><td>법인세 내역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able>

제3자 검증의견서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로부터 2024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Road to Sustainability'(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인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인증성명서의 사용대상은 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입니다.

인증 기준

인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2] 등 국제적 인증 규격을 반영한 DNV 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 V6.0 과 AccountAbility 사의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수준의 인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 (2018))의 4 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인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인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인증 업무 절차와 다르며 덜 상세하므로, 획득된 보증 수준은 합리적 인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증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인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DNV는 현재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및/또는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인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인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대자동차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특정지표 수자원 사용량 (303-5), 폐기물 발생량 (306-3), 산재율 (403-9 및 403-10)관련해서는 공시항목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인증을 수행한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현대자동차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되는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 현대자동차의 보고서가 중대성의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제시

현대자동차는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 투자자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각 그룹에 대한 세부정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주요 이슈 등을 보고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주요 관심사항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요 정보 공개를 위하여 이중 중대성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2024년 중대성 평가 결과, 내부 경영진 ESG KPI, 현대자동차 그룹 ESG Index, 글로벌 평가기관 지표, 동종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현대자동차는 중대성 평가를 중심으로 관리내역과 핵심지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중대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에 대해서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현대자동차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회사 및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식별된 핵심 영역과 관련 주제/영향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적절한 성과 지표를 통해 영향을 측정,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14001 및 45001을 국내 및 해외 공장에 적용하여 환경, 안전·보건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공급망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업체에 대해 ESG 현장 리스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DNV는 회사 활동이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특정 및 설명이 보고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인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과 데이터로 지속가능성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인증 과정 중 발견된 오류들이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현대자동차는 식별된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별 표준 공개를 사용하여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2023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현대자동차는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제3자 검증의견서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3]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인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인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다른 계약은 없습니다.

한계점

인증은 DNV에 제공된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현대자동차의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인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인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인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인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인증기관의 책임

현대자동차는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인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인증성명서 형태로 현대자동차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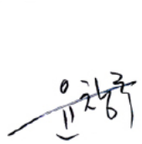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본 인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관련성이 높은 중대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아래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주제 기준 및 관련 관리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보고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수집, 관리 및 보고하기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특정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지속가능성 전략의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관련 프로세스 검토를 위해 현대자동차본사(대한민국, 서울) 방문
- 정보의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 및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ESG 팀 및 관련 부서의 대표자들과 인터뷰 수행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4년 6월 21일





윤창록	**장유리**	**장상례**
인증팀장	인증팀원	기술검토자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SGB2A

DNV그룹의 일원인 DNV Business Assurance Korea는 certification, verification, assessment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3년도 국내 사업장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주)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증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주)로부터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검증의 검증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2023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이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명세서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역경계는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시설, 본사자가건물, 서비스센터, 판매자가건물(출고센터 포함), 제네시스 부문의 국내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통제접근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주)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타인 혹은 타조직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주)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주)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현대자동차(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검증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검증은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 및 기록에 대해 원시데이터 수준까지 검증하였습니다.

보증수준 및 중요성
이 검증의견서에 표명된 의견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 및 2.5% 중요성 기준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2023 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준수 여부 및 표 1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일형
LRQA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 2층

2024년 3월 27일

로이드인증원 계약번호: SEO6012382

표 1. 2023 년도 현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_2eq

범위	사업장								합계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시설	본사	서비스센터	판매	제네시스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325,675	47,332	39,976	52,726	7,205	5,750	2,705	10	481,38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618,115	123,276	82,174	217,904	18,017	13,027	14,483	1,061	1,088,060
합계	943,790	170,609	122,150	270,630	25,223	18,777	17,189	1,071	1,569,439

Note: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절차로 인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와 다를 수 있음.

LRQA Group Limited, 그 관계사와 자회사 및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조항에서 'LRQA'로 나타냅니다. LRQA는 누구에게도 이 문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떠한 손실, 손상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관련 LRQA의 일원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 모든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에 기술된 조건에 따릅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국문 버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에 대해서 LRQ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검증의견서에 언급된 명세서에 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수정이나 변경 없이 온전한 형태로만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LRQA, 2024.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3년도 해외 사업장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23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에너지 사용량(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ISAE 3000 및 ISAE 3410를 활용하여 제한적 보증 수준 및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의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해외 공장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World Resources Institute 및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1]의 GHG Protocol (revised version)1의 준수 평가
- 해외 공장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2]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1] https://www.ghgprotocol.org

[2] 온실가스 검증 범위에는 CO2, CH4 및 N2O가 포함되었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요 활동은 자동차 생산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관리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 표 1, 표 2-1 및 표 2-2에 요약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이 의견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 관리 책임이 있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특정 해외 공장을 샘플링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의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파라메타가 인정받는 출처로부터 참조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체코에 위치한 HMMC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로이드인증원 외의 제 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데이터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들을 취합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 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입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검증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태경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 2층

일자: 2024 년 5 월 17 일

LRQA 계약번호: SEO0000126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표 1. 2023 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공장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	tCO_2e											
	HMMA	BHMC	HTWO	HMI	HAOS	HMMC	HMCSA	HTBC	HTMV	HMMI	HYMEX	HMGICs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30,747	53,988	21	32,730	30,480	31,035	9,094	825	3,900	5,142	17,235	1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지역 기반)	133,336	114,316	3,477	285,695	26,933	44,791	3,370	7,036	21,602	50,956	48,716	3,243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시장 기반)	158,975	114,316	3,477	123,161	8,579	0	1,996	7,036	21,602	0	48,716	3,243

Note 1: Scope 2의 지역 기반 및 시장 기반은 GHG Protocol Scope 2 Guidance (2015)에 따른 용어임.

표 2-1. 2023 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공장 에너지 사용 요약 (TJ)

에너지	TJ											
	HMMA	BHMC	HTWO	HMI	HAOS	HMMC	HMCSA	HTBC	HTMV	HMMI	HYMEX	HMGICs
총 에너지 사용량	1,777	1,775	27	1,736	815	1,051	487	61	153	393	706	31
재생에너지 사용량	0	0	4	688	151	436	128	0	0	293	0	3

표 2-2. 2023 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공장 에너지 사용 요약 (MWh)

에너지	MWh											
	HMMA	BHMC	HTWO	HMI	HAOS	HMMC	HMCSA	HTBC	HTMV	HMMI	HYMEX	HMGICs
총 에너지 사용량	493,635	493,143	7,362	482,094	226,457	291,834	135,204	16,812	42,543	109,183	195,996	8,595
재생에너지 사용량	0	0	1,157	191,087	42,000	121,056	35,670	0	0	81,401	0	744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4.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3년도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23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ISAE 3000 및 ISAE 3410를 활용하여 제한적 보증 수준 및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의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국내 및 해외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GHG Protocol,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1]을 적용하여 산정한 그 밖의 간접온실가스 배출(Scope 3)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1] https://www.ghgprotocol.org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요 활동은 자동차 생산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관리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표 1에 요약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이 의견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 관리 책임이 있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파라메타가 인정받는 출처로부터 참조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들을 취합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 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입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검증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태경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 길 30, T 타워 2 층

일자: 2024년 6월 3일

LRQA 계약번호: SEO00000126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표 1. 2023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Scope 3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	tCO_2e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국내 및 해외 생산 자동차의 부품 소재	23,518,427
자본재 - 국내에서 구매한 컴퓨터 및 모니터	134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 국내 사업장 및 해외 공장에서 소비한 연료의 업스트림 배출 (구매 스팀 및 전기 제외) (해외 사업장은 HMMA, BHMC, HTWO, HMI, HAOS, HMMC, HMCSA, HTBC, HTMV, HMMI, HYMEX, HMGICs를 포함)	189,512
운영으로 인해 생성된 폐기물 - 국내 사업장 및 해외 공장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국내 사업장은 울산/전주/아산공장, 연구소 및 서비스센터 포함하며, 해외 공장은 HMMA, BHMC, HTWO, HMI, HAOS, HMMC, HMCSA, HTBC, HTMV, HMMI, HYMEX, HMGICs를 포함)	217,737
출장 - 국내 근무 직원의 자동차, 버스, 기차,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 출장	26,994
직원 출퇴근 - 국내 통근버스	8,895
다운스트림 운송 및 배송 - 국내 생산 자동차 (현대글로비스에 의한 해운 및 육상 운송 포함)	981,549
제품의 사용 - 국내 및 해외 판매 내연기관 자동차 (200,000km 운행 기준, 전기차 및 수소차는 제외)	114,132,523
판매된 제품의 최종 처리 - 국내 및 해외 판매 자동차	2,323,327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 본사에 입주한 임차 회사들	1,447
투자 - 현대자동차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들 중 6개사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556,331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4.

보고서 개요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설명의무를 담고 있는 AA1000APS(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의 4대 원칙인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도(Impact)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그리고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발행일	2024년 6월
보고서 제작 (문의처)	현대자동차 ESG기획팀 전화: 02-3464-8886 이메일: ESG@hyundai.com
보고 기준	GRI Standards, TCFD, SASB,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ESRS
보고 경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일부 성과는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경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 전반
보고 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일부성과는 2024년 상반기를 포함합니다.)
보고 주기	매년 (지난 보고서: 2023년 7월)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의 연속적인 추세 파악이 필요한 경우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23년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본사, 국내외 생산공장 및 기술연구소, 디자인 센터, 판매법인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현대자동차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일치합니다. 환경 및 사회 관련 정보는 자동차 부문(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에 해당되는 국내 본사, 생산공장, 기술연구소, 서비스 및 물류센터와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등 자동차 부문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고 항목별로 위에서 언급한 보고 범위와 다른 경우는 해당 정보의 보고 범위를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 및 제반 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 기관인 DNV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검증은 독립된 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상세한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의견서 및 온실가스 검증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UNGC(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경영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UN GLOBAL COMPACT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HYUNDAI